

March 2014

Monthly

Gardenin

가든인 3월호

BIG EVENT

프리미엄 50% 할인권 / 제이드가든 20%



Outdoor Garden

IPM 국제식물박람회
2014년 유럽,
우리꽃에 물들다



Indoor Garden

컨테이너조경이란?
패션시계로 만드는
빈티지 가든 장식



도시농업의 발견, 귀농과 교육

김성도 동산농원대표의
화훼재배 30년, 멘토가
된 국화재배 명인

ISSN 2288-1719

10,000원



CHECK LIST

- ✓ 3월의 농사정보
- ✓ 베란다 정원관리
- ✓ 유기농 농산물 구분법
- ✓ 식물의 병해충 관리

텃밭채소 기르기, 실내습도
3월, 모종을 구입하러 가볼까?



Monthly Gardening

HOW TO GROW YOUR GARDEN

정원시공, 관리, 컨설팅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우리꽃은 우리나라 고급 경관 트렌드를 이끌어왔습니다.

여러분의 공간을 자연과 가깝게 아름답고, 쾌적한 고품질의 경관으로 창출합니다.
우리꽃만의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당신의 정원을 더욱 특별하고 가치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공간의 재탄생

단조로운 베란다, 쓸모없는 옥상이 너만의 휴식 공간으로,
유럽풍 키친정원으로, 내 아이의 생태 놀이터로 재탄생됩니다.
피곤한 일상에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힐링 공간을 만들어보세요.

정원의 품격

잘 가꾼 정원은 주택의 가치를 높입니다. 정원의 주제와 식물소재는 적당한지,
내 정원환경은 어떤지, 정원 소품 디스플레이 등 현재 정원상태를 진단받아 보세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꽃의 식물들은 정원의 품격을 차별화 시킵니다.

시공사례



벽화수주식회사 | 031)634-0326
www.uriseed.com



수선화 水仙花

Narcissus tazetta var. chinensis
수선화과(水仙花科) 수선화속(水仙花屬) *Narcissus*

수선화(水仙花), 수선화과에 속한 여러해살이풀이 다. 하얀 꽃잎과 잔 모양의 부화관(副花冠: 꽃잎과 수술 사이, 또는 꽃잎과 꽃잎 사이에서 생겨난 기관으로 꽃잎처럼 생긴 작은 부속체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부화관이 발달한 식물은 수선화 종류로 그 모양에 따라 종이 구분된다.)이 노랗다. 잎은 난초 잎같이 선형으로 자라고, 끝이 둔하며 녹색 빛을 띤 흰색이다. 12~3월에 노란색, 흰색, 다홍색, 담홍색 등의 꽃이 줄기 끝에 6개 정도가 옆을 향해 피며 꽃잎은 6장이다. 꽃잎과 꽃 안쪽에 술잔 모양의 부화관(副花冠)의 형태에 따라 11가지로 분류되며 다양한 품종이 있다. 부화관의 색은 오렌지색, 분홍색, 노란색, 흰색 등 다양하다. 수술은 6개로 부화관 밑 부분에 붙어 있다. 둥근 땅속줄기를 나누어 심어 번식시키며 약간 습한 땅에서 잘 자란다.

수선화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관상용 식물이다. 비늘줄기는 한방에서 약재(발열, 백일해, 폐렴, 천식, 구토, 거담)로 쓰인다고 한다. 속명은 수선창, 금잔은대, 설중화, 지선으로 불린다. 원산지는 지중해와 중부 유럽이다. 우리나라, 중국, 일본, 중부 유럽, 지중해 연안 등지에 분포한다. 원종은 약 60종이지만 원예품종은 수천 종이다. 땅속줄기는 검은색으로 양파처럼 둥글다. 학명은 *Narcissus tazetta var. chinensis*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

도에 야생종이 자란다. 거제도 공곶이(경남 거제시 일운면 와천리)에 가면 노루부가 피워낸 수선화를 감상할 수 있다. 돌담길 따라 노랗게, 하얗게 피어있는 수선화는 정겹다. 꽃이 귀할 때에 피어나 사람들에게 무던히도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을 터이다. 빨리는 1월에서 5월까지 핀다는 수선화는 물을 좋아해 우물이 옆이나 햇볕이 잘 드는 작은 화단에 무리지어 핀다. 초록의 길쭉한 잎과 고개를 숙이고 피어있는 꽃이 고고하다.

수선화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소년 나르시스에 대한 신화가 얹혀있다. 보통 나르시스에 관한 단편적인 것만 알고 있는데, 그 전에 나르시스를 사랑한 에코로 올라가야만 얘기가 풀린다. 남의 말을 따라하는 에코라는 님프가 나르시스를 사모하게 됐다. 하지만 차갑게 거절하는 나르시스, 먼저 말할 수 없었던 에코(헤라의 분노를 사 남의 말을 따라하게 된)는 사랑의 아픔 때문에 동굴에 박혀 있다가 목소리만 남아 메아리가 되었다고 한다. 님프들은 화가 났고, 나르시스에게 복수를 해달라 에리스(복수의 화신)에 청했고, 나르시스는 자기애로 인해 파멸의 길을 가게 된다. 즉, 샘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해 물에 빠졌고, 그 자리에 핀 꽃을 나르시스라 불렀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꽃말이 자기애, 자기주의로 표현된다.



52



70



36



10

Outdoor garden

- 1 cover story
- 4 김영채의 이달의 시편 봄마중
- 6 박공영과 함께하는 식물 속 흙초보기
정원, 속 보이네
- 10 IPM 국제식물박람회 보고서
IPM 국제식물박람회, 2014년 유럽, 우리꽃에 물들다.
- 14 한택식물원에서 들려주는 꽃이야기
봄과 겨울의 경계에 선 꽃들의 치열한 삶(투쟁기)
- 16 제이드가든 소개 숲 속에서 만나는 작은 정원
- 20 Innovative Garden 획기적인 가드닝 도구 8선
- 22 정원으로 꿈꾸는 사람들
경기도 양평의 세 자매의 이야기가 있는 정원
- 26 식물소개
향기에 취하고, 화색(花色)에 놀라다 꽃나리(백합, Lily)

Indoor garden

- 28 윤평섭교수의 가든 이야기 컨테이너조경이란?
- 35 한국원예자재 김성호 대표의 알짜정보
낮은 실내습도 대책은, 습도조절이 가능한 식물키우기
- 36 켄돌 오히나의 베란다 정원관리
3월, 모종을 구입하려 가볼까?
- 40 안완식박사의 먹거리파일
고기과 찹떡궁합인 상추
- 46 가든디자이너 우정아의 DIY 가든
패중시계로 만드는 빈티지 가든 장식
- 48 류제의 정원-봄을 수놓다-사랑을 노래한 톨립
- 52 정순진 박사의 실내정원
향기로운 봄이 오네요~ 좁은 베란다 봄맞이 PET병 미니정원 꾸미기
- 56 식물소개 화려한 봄의 시작, 후룩스 봄바람, 후룩스 봄맞이



28



도시농업의 발견, 귀농과 교육

- 58 귀농-멘토를 만나다
김성도 동산농원대표의 화훼재배 30년 멘토가 되다, 국화를 만나다
- 62 수목재단센터장의 으뜸교육
철갑을 두른 듯, 각자별레
- 66 기자가 들여다본 도시농업의 발견-대림묘목
- 69 경기농업기술원의 '3월의 농사정보'
- 70 상자텃밭에서 길러먹는 채소
초록이 주는 즐거움, 기르는 즐거움-상자텃밭
- 74 오가닉 푸드 Organic Food
텃밭채소, 식탁을 물들이다

Garden Design & Story

- 76 손관화교수의 세계의 정원
정원용 다년초 목욕이 필요하다.
- 80 서수현 가든디자이너의 정원문화
어떻게 정원을 즐겨야 할까, 식물부터 즐겨보자
- 84 이명호의 야생화
할머니의 굵은 허리와 흰머리를 닮은 할미꽃
- 86 Garden Entertainment
3월 신학기에는 아이와 함께 환경애니메이션을
- 88 Gardening Information
친환경? 유기농? 무농약? 농산물 구분법, 서로 무엇이 다를까
- 90 월별 식물관리법
3월 식물 관리 요령
- 92 이달의 요리 참조기 무조림
- 94 Q & A
- 96 가든인이 추천하는 Books & Flowerpot
- 98 가든인 뉴스



52



80



76

봄마중

김영채

봄이 그리웠던 것은
출고 간-
어둠의 세월 때문이었을까

사랑이 그리웠던 것은
통한의 깊었던
얼어붙은 가슴 때문이었을까

찬바람 살갓 외이던
가없는 인고의 아픔에
봄이 그리운 것은

삶의 그리움이었겠지

반세기 긴- 어둠에
굳게 닫은 수박에 없었던
철벽의 문은
엄동혹한에 감당치 못할
옅은 문풍지였을 뿐
형허 동토의 아픔이었을 뿐

아- 이제는
춘삼월 이 땅의 봄에는
금빛 여울 가득한
일곱 빛 포근한 아지랑이 속

눈녹아 스미는 북녘에도
생명의 봄은 오려니
평화의 봄은 오려니
평온의 빛은 내리려니

아- 이제는
춘삼월 우리의 봄에는
소망의 꽃 향기로움 피어나려니
평화의 종소리 울려 퍼지려니

이제 우리는
사랑의 손길 마주하며
봄빛보다 더 아름답고 포근한
환희로운 행복과 평화

이 땅의 영광 함께 하려니
이 땅의 영광 영원 하려니

나는 지금
일곱 빛 봄아지랑이 품에 안고
싸리문 밖 토담 가에 내리는
고향의 봄손님 맞이하려
봄마중 가는 길

환희의 찬가 부르며
봄마중 가는 길

이 땅의 봄 행복이여
이 땅의 봄빛 평화여
우리의 염원이여 소원이여
영원하라 영원하라

나는 지금 일곱 빛 봄아지랑이
이 땅 평화의 깃 내리시는
나의 기다림 봄손님 맞이
평화의 길 봄마중 가는 길

〈시편을 보내는 마음〉

-나는 이렇게 이 봄이 우리에게 찾아오길-

수 없는 세월 그러했듯
양지밭 포근한 봄날
수천 년 다름없이 산산이 곱다운 연분홍 진달래
들 앞의 섯노란 개나리 만발하다.
발 기슭 산수유 웅기증기 내 고향 꽃동산
우리 마을 꽃동리 골골이 평화가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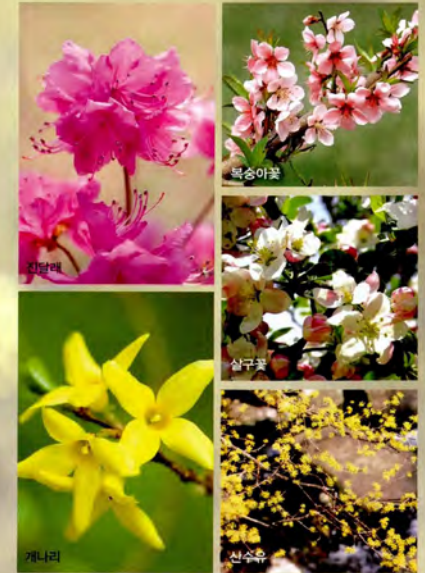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울긋불긋 꽃 대궐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우리의 고향!
눈감아 조용히 그려보는 꿈속의 고향은
언제부턴가 우리를 마음엔 그리움으로만 남아
봄 여름 가을 겨울 오천년 변함없어도
일년 사시 수심을 거듭하면서 걸어온 우리를
그날부터 우리를 북녘 고향은 가슴에 담아온 향수일 뿐 !
울긋불긋 꽃동네 아름다운 그리는 고향은
먼- 저 하늘 아래...
오늘도 그렇게 가슴에 담는다.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우리들 마음의 고향은
가깝고 머나먼 그리운 고향일 뿐
지금도 그 모습 잘 잊으려나...
이제는 그만
겁겁의 동토에 내리는 평온의 빛이여
백두에 평화의 종소리 울려 퍼져 내려
이 땅 온누리 하나 되게 하소서

진달래 개나리 산수유 복사꽃 살구꽃 화사한 꽃동산
나는 이렇게 마음에 심으며 노래하며
생명의 봄마중 길에 나서 마음의 기도를 올린다.
끝없는 영원 우리의 소원
불빛 아지랑이 안고 기도드린다.
평화의 기도를 올린다.

〈봄마중〉 김영채
시인 김영채는 경희대학교 명예교수이며,
월간 가든인 발행인이다.



진 달 래 : 연분홍 꽃피는 향수적 야생의 소관목, 우리
나라 산천에 자생하는 식물로 포기 나눔이나
종자로 번식

개 나 리 : 섯노란 꽃 화사한 봄꽃, 우리의 봄 터전에 정
서 어린 관목, 주로 생울타리 조성, 삼목 번식,
봄부터 잎사귀도 노란 황금개나리도 관상 재
배된다. 관상 조경용

복숭아꽃 : 연분홍 화사한 꽃동네 이루는 정서어린 봄꽃
과실수, 종자 및 접목번식

살 구 꽃 : 담장 넘어 하얀 민중어린 얼굴로 피어나던 정
겨운 교목 과실수, 종자 및 접목번식

산 수 유 : 노란 봄마을 환희로운 정경으로 정겨움을 나
뉘는 야교목, 관상, 약용식물, 종자번식



황금개나리
우리꽃에서 판매하는 황금개나
리는 3.4월에 꽃이핀다.
잎이 황금색이다. 한 분당 도매
1,500원, 소매 3,000원



박공영과 함께하는 정원식물 “속” 홈쳐보기

정원, 속 보이네

여인에게 더 친숙한 민속식물!

창포(Acorus) 속

창포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식물이다. 지금이야 많이 이용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생활 속에서 널리 이용해 온 민속식물이었다. 특히 5월 단옷날에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풍습이 있었다.

이 창포(Acorus) 속에는 전세계적으로 약 6종의 식물이 있다. 이들은 전세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우리나라에는 창포(Acorus calamus)와 석창포(Acorus gramineus)로 불리는 두 종류가 자생하고 있다.

주로 지하경을 이용하여 번식하는 창포는 내한성이 매우 강하고 낙엽이 지는데 반하여

석창포는 작고 가늘며 상록 혹은 반상록성으로 우리나라 중부이남에서 자란다. 다소 내한성이 약한 식물이다. 다년생 수생식물로 개울의 얇은 물가나 호수에서 발견된다. 잎은 칼모양으로 땅을 기는 뿌리줄기에서 발생하여, 다음해에 자라나는 새싹을 가져부로 감싼 채 가을에 시든다. 여름이 오면 작은 빨간색의 옥수수를 닮은 길이 5~7cm 이삭이 잎 모양의 꽃줄기 중심부 바로 아래에 핀다. 이들은 연못의 물이 너무 깊지 않은 곳이나 계류 등과 물이 괴는 낮은 땅이나 습지 같은 지역에 적합한 식물이다. 석창포(A. gramineus) 등 몇몇의 재배종은 수반식물로도 유용하다. 그러나 Acorus 속 식물은 물의

온도가 장기간 22℃를 넘을 경우 연못 혹은 수반 속에서 오래 살 수 없다. 이들은 연못의 가장자리나 햇빛이 잘 드는 아주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잘 자란다. 되도록 얇은 물에서 잘 자라므로 20cm이상 깊이에서는 식재를 피하는 것이 좋다. 주의 할 점은 이들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퍼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용기에 심어서 물속에 넣어주는 것이 좋다. 번식은 지하경을 분주를 하고 화분에 넣은 뒤 자리를 잡아 고정하면 쉽게 번식된다. 그러나 용기안의 좋은 성장을 위해서는 3~4년마다 한 번씩 반복적으로 한다. 특별한 해충과 질병은 없다.

창포(Acorus) 속은 연못의 가장자리나 햇빛이 잘 드는 아주 습한 곳이나 얇은 물에서 잘 자란다



아름다운 초롱, 맛난 식물 잔대(Adenophora) 속

일년생과 다년생 등 약 40종 이상의 속으로 초롱꽃과 유사하다. 그러나 초롱꽃(Campanula punctata)과 도라지(Platycodon grandiflorum)와는 전혀 다른 속이다.

이 속의 식물들은 주로 들판이나 산속의 나무 아래에서 발견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특산식물인 금강초롱(Hanabusaya asiatica)과 매우 비슷하게 생겼다. 대체로 잎이 어긋나고 둥근형에서 난형이며 잎 가장자리는 보통 톱니모양이다.

꽃은 초롱모양으로 매달려 있는데 벨 또는 깔때기 모양의 꽃은 0.5~2cm 길이로 하얀색에서 짙은 라벤더 색까지 있으며, 총상 꽃차례나 원추 꽃차례를 이루며 핀다. 작고 많은 예쁜 종들은 암성정원용 식물로 많이 재배된다. 특히 일본에서는 산야초라 하여 많은 메니아를 확보하고 있는 속이기도 하다. 우리는 주로 잔대라 하여 다육성의 뿌리를

생식하거나 약용으로 많이 이용한다. 잔대(Adenophora triphylla var. japonica), 모싯대(Adenophora remotiflora), 도라지모싯대(Adenophora grandiflora), 톱잔대(Adenophora curvidens) 등 매우 많은 종들이 분포한다.

이들은 대체로 부식토가 많고, 습기가 있는 곳에서 잘 자란다. 토양의 배수는 잘 되어야 하고 해가 잘 들거나 반그늘이어야 한다. 옮겨심기를 싫어하므로 어릴 때 심은 뒤 되도록 옮겨심기를 피해야 한다. 대체로 다육성의 뿌리가 상처가 나면 쉽게 썩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번식은 종자가 누렇게 익으면 곧바로 혹은 늦겨울에 모판 혹은 트레이에 파종을 하고 뿌리 손상을 막기 위해 되도록 어린시기에 조심스럽게 옮겨야 한다. 이때는 직근을 잘라주는 것이 좋다. 많은 뿌리를 발생시킬 수 있고, 어린시기에는 상처가 빨리 아물기 때문이다. 굴벵이나 고자리가 다육성의 뿌리를 먹을 수 있다. 또 민달팽이와 달팽이가 어린 개체를 먹을 수 있다.



공작꼬리를 연상시키는 고사리 공작고사리(*Adiantum*) 속

북미와 남미의 열대지방과 아열대지방 지역에서 상록수와 반상록, 낙엽성 숲에서 자생하는 양치식물로 200~250종의 큰 속이다. 소수는 유럽 온대지역이나 아시아, 호주 그리고 북미에서 자생한다. 대부분 숲속 혹은 숲 가장자리나 절벽 등의 돌 틈 등 그늘진 곳 혹은 개울가에서 잘 자란다. 몇몇 종은 숲의 어두운 그늘을 선호한다. 잎은 1~5개의 직사각형 혹은 다이아몬드 모양에서 둥근 모양까지 있는 우상 복엽이다. 줄기는 길고 광택이 있는 검정색이거나 어두운 적보라색으로 가늘게 자란다. 이들은 많은 잎이 한꺼번에 나오는 포기형과 덩굴성줄기도 있고, 또 지하경으로부터 뿜어나오는 경우도 있다. 둥글거나 직사각형 모양의 포자낭군들은 잎의 가장자리 부

근에 형성되며 신장형이나 반원의 식물 포피에 싸인다. 이들은 대체로 높은 온도를 좋아하는데 온도가 10℃ 밑으로 떨어지는 계절에는 따뜻한 집안이나 온실에서 길러야 한다. 그러나 공작고사리(*Adiantum pedatum*)와 같은 종들은 백두산과 같은 아주 추운 곳에서도 잘 자라는 내한성이 강한 종들도 다수 있다. 대표적인 종류로 *A. alewtium*, *A. capillusveneris*, 그리고 *A. venustum* 등은 내한성이 뛰어나고 냉해에도 잘 견딘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머지 종들과 재배종들은 추위에 약하다. 이들은 주로 수태, 이끼 등과 혹은 피트모스 등 부식질의 토양을 선호하고 약간의 모래와 숯, 화산석 등을 섞은 토양에서 재배한다. 여름에는 밝은 직사광선을 쬌어주고 겨울에는 차광을 하여 직사광선을 피하는 게 좋다.

공중습도는 높게 관리하되 통풍이 잘 되도록 한다. 통풍이 잘 안되면 물을 적게 주고 겨울에는 약간 건조하게 관리한다. 매달 영양제 등을 살포하여 양분을 공급한다. 봄에는 오래되고 상처 입은 잎들을 제거한다. 습한 지역에서 건조한 곳으로 옮길 경우, 시드는 것을 막기 위해 점진적으로 순화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내한성이 강한 종들은 외부에서도 충분히 재배가능한데, 습도가 높은 곳은 배수가 잘 되어야 하고 부분적으로 그늘이 진 비옥한 토양이어야 한다. 증식은 식물체의 포자가 성숙하자마자 파종을 하고 내한성 식물은 최소 15℃에서, 내성이 약한 식물은 21℃ 이상에서 한다. 지하경은 이른 봄에 분주를 한다. *A. caudatum*와 다른 종들의 작은 모목은 잎의 끝부분에서 뿌리를 내린다. 온실에서 키우는 깍지진땀물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공작고사리(*Adiantum*) 속은 숲속 혹은 숲 가장자리나 절벽 등의 돌 틈 등 그늘진 곳 혹은 개울가에서 잘 자란다.



복과 장수를 빌어주는 노란 꽃 복수초(*Adonis*) 속

주로 아시아와 유럽의 산지에 자란다. 일년생 식물과 다년생 식물로 20여 종의 속, 복수초(*Adonis amurensis*)와 같은 몇 개의 종들은 고사리와 같이 생긴 잎은 여름이 되면 뿌리만 남기고 휴면에 들어간다. 잎은 말라버린다. 일반적으로 복수초처럼 생긴 꽃은 다년생일 경우 노란색이고 일년생일 때는 빨간색이다. 재배종들은 겹꽃 품종일 경우 30개 이상의 꽃잎을 갖는다. 아시아에 주로 분포하는 종들은 숲속의 그늘진 곳에서 가장 잘 자라고 유럽의 종들은 넓은 자갈 땅 등이 있는 지역에서 잘 자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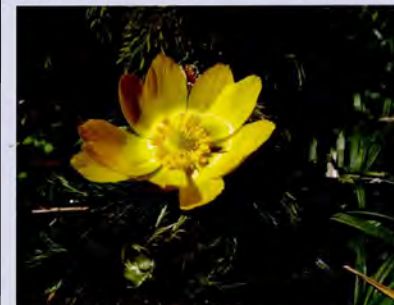
Adonis 속의 여러 종들은 다양한 재배방식이 요구된다. 종류들을 참고하기 쉽도록 다음의 그룹으로 분류하면 용이하다.

1. 완전히 그늘진 곳으로 부식토가 많고, 서늘하고, 축축하며, 약산성 토양을 선호하는 종.
2. 습기는 있으나 배수가 잘 되고 부분적으로 그늘이 진 부식토가 충분한 토양을 선호하는 종.
3. 배수가 잘되고 토양이 알맞게 비옥하며, 햇빛이 잘 드는 알칼리성 토양을 선호하는 종.

증식은 종자가 성숙하자마자 냉상의 온실 안에서 종자를 파종한다. 이듬해 봄 발아를 하는 데, 매우 늦게 그리고 발아세가 좋지 않고 생육도 매우 느리게 자란다. 일년생은 종자를 가을이나 봄에 직파한다. 다년생 품종을 분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나 필요하다면 꽃이 핀 다음에 분주를 한다.

해충 및 질병에는 달팽이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은 특히 *A. vernalis*에서 더 그러하다.

복수초(*Adonis*) 속은 숲속의 그늘진 곳, 자갈 땅에서 잘 자란다.



글·사진 박공영 우리씨드그룹 회장

IPM 국제식물박람회 2014년 유럽, 우리꽃에 물들다

유럽의 하늘은 흐렸다. 그러나 영국의 겨울은 파란 잔디 위에 싱그러움이 피어나고 있었다. 스노드롭이 하얗게 고운자태를 피워내고, 먹음직스러우면서도 아름다운 다양한 관목의 열매들은 물방울을 매단 채 더욱 싱그러게 빛나고 있었다.

2014년 IPM이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독일 북서부에 위치한 에센지역에서 열렸다. IPM은 International Plant Messe의 약자로 '국제식물박람회'라고 하고, Mess는 독일어로 '전시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세계의 농업자재, 화훼, 수목, 채소의 신종품 시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람회장은 매년 각국에서 모여든 약 6만여 명의 바이어로 성황을 이룬다. 총 12개의 관으로 구성된 전시장은 3개의 주제로 나뉘는데, 제1주제는 화훼관, 제2주제는 수목관, 제3주제는 농자재관으로 구분된다. 화훼, 채소, 조경, 수목, 종자, 비료, 상토, 농기계, 관수자재 등 다양한 종류의 품목이 전시돼 있으며 참여 업체만 1,200여 개에 이른다.

올해 우리꽃은 직접참여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유럽과 세계 각 지역으로 품종을 수출, 로열티를 받고 있는 우리꽃



다이안 투리 '트윈켈'이 상표를 달고 전시되고 있다.



의 품종은 IPM의 많은 전시부스에 전시되고 있었다.

특히 패랭이 품종으로 현재 선종적 인기를 얻고 있는 다이안 투리 트윈켈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유럽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그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다. 우리꽃이 개발하여 공급한 다이안 투리는 지금까지 불리고 있는 패랭이의 학명인 Dianthus와 우리꽃의 영문이니셜인 URI를 결합하여 만든 이름으로 우리꽃이 개발한 패랭이란 뜻이다.

유럽은 네덜란드 알스메어 경매장 인근에 위치한 아르마다사가 독점공급하고 있다. 아르마다의 사장인 '제라드' 씨가 말하는 우리의 '다이안 투리 트윈켈'은 우선 봄부터 가을까지 연속 개화하고 추위에 매우 강하며, 겨울에도 상록일 뿐만 아니라 무거운 운실에서도 개화가 지속되기 때문에 연중 재배출할 수 있고, 특히 식물의 절간이 짧고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현재 300만 포트 이상 판매되고 있는 '카오리'라는 품종을 빠른 시간 안에 밀어내고 최고의 자리에 오를 날이 머지않았다는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고, 다른 품종들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기도 했다.

유럽과 세계 각 지역으로 품종을 수출해 로열티를 받고있는 우리꽃 품종은 IPM의 많은 부스안에서 전시되고 있었다. 특히 다이안 투리 트윈켈은 폭발적인 반응이다.

유럽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코레우리는 우리나라를 화훼시장의 로열티 수입국에서 로열티 수출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리라 여긴다.



현재 우리꽃의 주력품목인 코레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하고 많은 품종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가 개발한 코레우리는 세계시장을 무대로 로열티를 관리하는 플랜티사가 파트너이다. 특히 플랜티의 젊은 총각 사장인 '피터'는 2세 경영인데 코레우리의 선전에 매우 고무되어 있다.

코레우리는 현재 유럽은 물론 일본, 호주, 미국, 중동에까지 수출되어 실험재배를 거치고 있고, 올해 말부터는 미국 홀디포의 약 1700개가 넘는 매장에 공급될 것이라고 흥분했다. 피터의 계획이 만약 실제로 진행된다면 미국에서만 약 340만 포트가 판매되어 로열티만 약 71억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매년 더 좋은 품종을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 가능하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된다면 분명 우리나라를 화훼시장 로열티 수입국에서 확실하게 로열티 수출국으로의 자리를 확고히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화훼산업에 있어 독립선언과도 같은 것이다.

이번 출장길에 나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의 시장을 두루두루 살폈다. 특히 이번 출장길에 관심을 갖고 살핀 것은 관목시장에 대한 미래를 설계했다는 것이다.



환한 미소로 다이안 트리 트윈함을 들고있는 우리씨드그룹 박공영 회장



많은 종류의 아름다운 열매가 달린 관목은 물론, 잎이 아름다운 것과 꽃이 아름다운 것, 그리고 겨울에도 상록의 식물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공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우리나라와 같이 겨울의 극한에서도 견디고 또한 여름철 혹서에도 견딜 수 있는 많은 기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품목과 품종들을 살피고 계획을 짚는 소중한 여행이었다. 또 함께한 두 아들과 그들의 꿈이 자라는 모습에서 더욱 행복했다.



봄의 여신 플로라가 온몸에 꽃장식을 하고 꿈꿨던 대지를 녹이며 봄소식을 전해온다. 남쪽에서 들려오는 꽃소식을 들으며 '와 진짜 봄이 오는구나' 하며 마음은 들뜨지만 3월, 아직 차가운 겨울의 기억을 지워내지 못한 시간이다. 봄이라 부르지만 겨울을 벗어날 수 없는 이 경계의 시간 속으로 화사한 빛을 내어 봄을 영접하는 꽃들은 그들의 놀라운 생존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겨울의 시간 속에 봄을 품은 꽃들을 만나러 가보자.

봄과 겨울의 경계에 선 꽃들의 치열한 삶 투쟁기

한 겨울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한 복수초는 풀 중에서는 가장 먼저 피는 꽃이다. 복수초는 복(福)과 장수(壽)를 상징한다고 붙여진 이름인데 눈속에서 핀다고 해서 '설연화', 얼음을 뚫고 핀다고 해서 '얼음새꽃', 땅에 바짝 엮드려 핀다고 '땅꽃'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졌지만 복수초에게는 놀라운 생존의 지혜를 지니고 있다. 복수초의 꽃가루받이를 도와주는 벌은 보통 바깥 온도가 15도는 되어야 활동을 하는데 2, 3월에는 그런 날이 많지 않다. 복수초의 꽃잎은 비단처럼 노랗게 반짝이고 잎은 마치 태양열조리기처럼 오목하게 되어 있어 햇살을 받으면 암술과 수술로 빛이 모여 외부보다 더 높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벌들이 꽃안에서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다면 복수



초에게는 유리하지 않겠는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므로 날씨가 흐리거나 밤이 되어 추워지면 꽃문을 꼭 닫는다. 자신의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다.

털이 보송보송한 잎이 노루의 귀를 닮았다고 붙여진 이름 노루귀는 환경에 따라 하양, 분홍, 파랑, 보라 등으로 다양하게 핀다. 그중 청노루귀는 아주 귀하게 취급받는다. 노루귀의 잎과 줄기에 붙어 있는 털은 영하의 꽃샘추위에도 견딜 수 있는 털옷 같은 역할을 해주는데 이른 봄에 피는 할미꽃, 갯버들, 광대나물, 꽃다지 등도 이렇게 털을 이용해 추위를 견뎌낸다. 밤새 오므렸던 노루귀의 꽃잎은 해가 뜨면 피어서 해가 기우는 방향을 따라 꽃봉우리가 움직인다. 꽃들에게 빛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도깨비방망이 같은 꽃대에 작은 꽃들이 다닥다닥 붙어 피고 후광 같은 포에 둘러싸여 피

는 앓은부채는 가뭄자를 튼 부처의 모습이 연상된다. 계곡 습한 사면에 자라는 앓은부채는 꽃에서 고기 썩은 냄새를 풍긴다 하여 'skunk cabbage' 라는 별명이 있다. 썩은 고기냄새를 맡고 딱정벌레 류의 곤충들이 찾아오는데 포안의 온도가 밖의 온도보다 10도 이상 높아 곤충들은 이곳에서 따뜻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앓은부채는 이로써 꽃가루받이를 하게 된다. 앓은부채와 곤충들은 확실하게 주고받는 사이다. '골짜기의 황금'이라는 꽃말을 가진 앓은부채는 꽃이 유난히 작아 꽃이 필 때 꽃주변 잎까지 노랗게 물들인다. 작은 꽃으로는 곤충을 유인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을 노랗게 물들여 곤충을 유인한다. 고도의 화장술이라 할 수 있겠다. 마치 밤에 빛나는 고양이 눈처럼 골짜기에 빛나는 앓은부채의 모습은 신비스러울 따름이다. 열매를 맺으며 소망을 이룬 앓은부채의 잎은 다시 초록빛으로 변하게 된다.

이런 봄에 피는 꽃들의 특징은 땅 속이나 가지 끝에 미리 꽃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다. 나무 꽃줄에 가장 빨리 피는 남매, 풍년화, 히어리, 산수유 등은 잎이 나오기 전에 꽃망울을 터뜨린다. 그리고 꽃을 한꺼번에 터뜨리지 않고 순차적으로 터뜨린다. 히어리의 경우 3월초에는 꽃차례가 3cm정도 밖에 안되지만 중순으로 갈수록 5cm까지 길어진다. 추울 때는 모여서 피고 따뜻해지면 떨어져 핀다. 혹시 몰지도 모르는 추위에 대비하자는 전략이다.

복수초, 앓은부채, 풍년화, 히어리, 산수유, 생강나

무, 민들레, 영춘화, 산괴불주머니, 개나리...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꽃의 색이 노랑이다. 봄에 피는 꽃들의 색이 노랑이 많은 것은 단순한 우연은 아닐 것이다. 곤충과 색에 대한 과학 실험에서도 밝혀졌듯이 곤충 특히 벌들은 가시광선 영역에서 노랑에 유독 반응을 한다. 노랑이 빛을 잘 반사하고 곤충들에게 잘 보이니 노랑의 꽃들이 진화의 과정에서 살아남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이들 식물들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다. 바로 햇빛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이 식물들은 숲이 우거지거나 다른 풀들이 높이 자라나면 햇빛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식물들보다 앞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다음 한 해의 생을 마감하고 긴 휴면에 들어간다.

여름, 가을, 겨울 지나고 때를 감지한 식물은 뿌리에 비축한 녹말을 열에너지로 바꾸어 연방을 녹이고는 꽃봉우리를 틔우는 것이다.

식물들은 진화의 과정에서 각기 다른 생태적 특성을 갖게 되었다. 인간도 살아온 기후나 지역에 따라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생겨났듯이 말이다. 식물들의 생존에 필요한 빛, 물, 공기, 흙, 곤충 등 다양한 관계를 속에서 다양한 개성과 특징을 갖게 된 것이다. 꽃의 아름다운 인간에게 정서적 위안을 줄 수 있다. 더불어 식물을 둘러싼 여러 관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아름다움에서 느끼는 것 이상의 즐거움을 얻게 된다. 관계를 이해하려는 시도, 이것은 타자에 대한 관심이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식물의 삶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 보는 일, 식물을 보는 진짜 눈을 갖는 것이다.



드라마에서 만나는 근사한
풍경과 저택은 보는 이로 하여금
궁금증을 자아낸다. 어딜까?
우리나라 맞아? 한번 가보고 싶다...
여러 수식어가 꼬리를 문다.
여기 제이드가든에 실마리가 있다.
'너는 펫', '풀하우스 2', '사랑비',
'그 겨울, 바람이 분다' 등 이름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사랑의 파도가 밀
려오는 듯한 이 드라마의
촬영장소가 바로 여기다.
올 봄, 곳곳한 싱그러움이 밀려올 때
보고 싶은 그 곳, 춘천으로
제이드가든을 만나러 가보자.

▼ 국내 최초로 조성된 테마
분원 '드라이가든'은 건
조하고 척박한 토양에서
도 관상 가치가 높고 생육
이 원활한 식물들로 구
성되었다.

숲 속에서 만나는 작은 유럽 제이드가든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서
천리 햇골마을에
위치한 제이드가든은 산림청에서 인증한
첫 번째 기업 수목원이다. '숲 속에서 만
나는 작은 유럽'을 모토로 하여 약 16
만㎡의 부지에 25개의 테마분원으로 조
성되었다.
제이드가든은 계곡 지형을 그대로 살려 화
훼나 수목을 식재하고, 건축 양식과 건물
등에서 유럽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계곡
사이의 지형을 따라 길게 조성되었으며,
만병초류, 목련류, 호스타류, 단풍나무류,
붓꽃류, 블루베리 등 4,000여종의 식물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드라이가든'과 '웨
딩가든', '이끼원', '로도텐드론가든' 등과
함께 2013년에 추가로 조성한 '스트림가
든(Stream Garden)'까지 모두 25개의
분원으로 나뉘어져 있다. 강렬한 원색보다
는 수수하고 은은한 멋을 뽐내는 화훼류
위주로 채워졌으며, 수목원의 배경이 되는
계곡의 우거진 산림 그대로의 멋을 살린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제이드가든은 '숲 속에서 만나는 작
은 유럽'이라는 조성 테마에 걸맞게 투
스카니양식의 방문객센터를 비롯하여 다
양한 식물을 자유롭게 식재한 '영국식보

▶ 제이드가든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로도텐드론
가든'은 우리나라 고산
지대에서 자생하는 만병
초를 비롯한 다양한 품
종의 만병초를 수집하여
전시한 공간이며 양치식
물류와 노루오줌류도 함
께 감상할 수 있다.

◀ 조성 공사시 자연적으로
생성된 이끼 계곡이 아름
다워 추가 동선을 만들
어 탄생한 '이끼원'은 깊
은 계곡이나 산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을 수목원내
에서 접할 수 있어 남녀
노소 다양한 계층에게 인
기가 높다.

▲ 수목원을 찾은 연인이나 가족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수 있도
록 로맨틱하게 조성된 '웨딩가든'은 결혼을 상징하는 흰색 계열 식
물 위주로 식재하였으며 드라마나 영화 등에 많이 등장하는 등 웨
딩촬영 장소로 인기가 높다.

▶ 이탈리아 투스카니양식으로 지어진 방문객센터는 여러 작품에 등장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 방문객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주변 건물과 잘 어울리게 개화한 수선화들.



▲ 물가에서 잘 자라는 수생식물들과 버드나무류의 조화가 아름다운 수생식물원.

더가든'과 아름다운 분수와 식물의 정형미가 살아있는 '이탈리안가든'이 돋보인다. 또한 정상에는 근처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스카이가든'이 자리하고 있다. '스카이가든' 바로 아래 펼쳐진 '야생화언덕'에는 가드너들이 정성 들여 심은 다양한 구근류들이 봄에 절경을 이룬다. 제이드가든에서는 아름다운 분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활동을 진행 및 계획하고 있다. 식물에 관심이 많은 예비 가드너들을 위한 가드너 양성 프로그램과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드닝 프로그램 'Gardening It Yourself'는 2011년에 시작하여 2013년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교육 수요 후 많은 분들이 가드닝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꾸준히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4월에 제7기 교육과정을 모집하고 진행 예정이다. 2011년 제이드가든에서 촬영한 '너는 펫(장근석, 김하늘)'의 일본 개봉으로 인해 새로운 한류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으며, 드라마 '폴하우스2'도 제이드가든에서 주로 촬영되어 2012년 10월에 방영되었다. 2012년 3월에 방영된 한류 드라마의 원조이자 시작인 윤석호 PD의 최근작 '사랑비' 또한 제이드가든에서 촬영했고 남이섬과 더불어 춘천의 또 하나의 명품 한류 관광지로 성장하고 있다. 2013년에는 SBS드라마 '그 겨울,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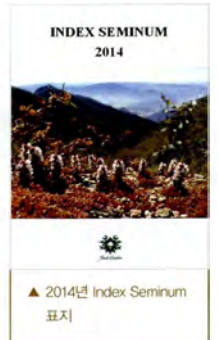


▲ 자생하던 아름다운 귀룽나무와 은행나무로 만들어진 미로원.

이 분다'가 촬영되었으며 2013년 2월 13일에 첫 방영되어 제이드가든의 방문객센터는 <송혜교 저택>, '그 겨울 수목원' 등의 연관 검색어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개원 4년 차에 접어드는 제이드가든은 국내 최초 산림청 인증 기업 수목원으로서 대중적인 인기뿐만 아니라 수목원의 기본적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2013년부터 DMZ 식물탐색 및 수집과 같은 국립수목원 연구용역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산림청 인증 수목원 전문가 교육과정 기관도 신청할 예정이다. 또한 개장 초기부터 국제종자교류사업(Index Seminum)도 꾸준히 수행하여 세계 각국의 지명한 식물원과 수목원, 박물관, 식물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잉여종자들을 교환하고 있다. 2014년에는 총 155개의 기관에 제이드가든의 종자목록을 발송하였고 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 다양한 꽃과 잎의 색깔이 변하면서 전체적으로 큰 물결모양을 이루고 있는 꽃물결원.



▲ 2014년 Index Seminum 표지

◀ 개국지원을 그대로 살려 앉혀진 제이드가든.



숲에서 만나는 작은 유럽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햇골길 80
문의 033)260-8306

획기적인 가드닝 도구 8선

글 황주리 기자

나의 정원을 스마트폰으로 원격조종을 할 수 있다면? 긴 출장을 갔는데 나의 사랑스러운 식물에 물을 줄 수 있다면? 정원을 사랑하고 식물을 내 몸처럼 여기는 가든이라면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귀찮음은 발명의 어머니라고 했던가? 이제는 바쁨이 발명의 어머니라고 해야겠다. 분주하고 정신없는 일상을 살면서도 자연 속에서 사는 삶을 포기하지 못하는 슈퍼맨들을 위하여 너무도 고마운 놀들이 세상에 나타났다.



1. 유캔 : 유캔 (U-Can)은 완벽한 코끼리 코 기능을 그대로 재현한 물 주전자 기능을 하는 제품이다. 길게 늘어진 분출구가 빌트인 (built-in) 바퀴에 달려 있어 정원을 가꾸면서 이곳저곳으로 끌고 다닐 수 있다.

2. 에어레이터 샌들 : 에어레이터는 기폭장치를 의미한다. 기폭장치는 물을 공기 중에 산포하는 방식과 수중에 공기를 분출하는 방식 2가지가 있는데, 이 샌들은 정원의 잔디를 깎으면서 또는 정원을 거닐면서 땅을 숨 쉬게 한다. 다음 날이면 잔디가 더 푸른 색으로 빛이 날 것이다.



3. 무르익은 무 : 별도의 충전방식 없이 태양열로 인해 충전되는 이 정원의 램프는 낮 시간에는 하얗게 변하며 태양열을 흡수하여 밤에는 정원의 아름다운 일루미네이션 기능을 한다. 밤에도 정원을 비추는 가로등 역할을 하고, 별도의 에너지 낭비도 없는 고마운 빛이다.

다. 밤에도 정원을 비추는 가로등 역할을 하고, 별도의 에너지 낭비도 없는 고마운 빛이다.



4. 물 바퀴 잔디 스프링클러 : 물 바퀴 잔디 스프링클러는 수압을 이용하여 정원 이곳 저곳을 스스로 돌아다니며 물을 주는 정원의 물 주전자이다. 집 안에서 스스로 청소를 해주는 로봇청소기가 있다면 정원에서는 스스로 물을 주는 수압으로 스스로 돌아다니는 잔디 스프링클러가 있다.



5. 라운드 업 : 정원에 물을 주면서 호스에 걸쳐 넘어진 적이 있으신가요? 호스를 손으로 만져서 당기거나 말지 않아도 스스로 길이와 거리 조절을 하며 나를 따라다니는 똑똑한 제품이다.



6. 잔디 스프링클러 : 원형 디자인의 잔디 스프링클러는 잔디호스가 놓인 선을 따라다니며 사방을 물로 적셔주는 제품이다. 원하는 부분만 물주기를 원한다면 그 부분만 호스로 길을 만들어만 주면 알아서 길을 따라 물을 주니, 얼마나 편리한가.

7. 플랜트 메이트 : 태양열을 흡수하는 이 제품은 스마트폰 기술과 연동되어 내 정원의 습기, 영양상태, 토양의 상태와 햇빛 양 그리고 전체적인 온도를 내 손안으로 보고하게 되어있다.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실감나게 해주는 놀라운 기술이다.



8. 루기아다 관개(灌漑) : 올인원 관개 시스템인 루기아다는 땅속에 그림과 같은 기계를 박고 식물의 유형을 선택한다. 그렇게 된다면 물을 주는 시간과 양을 자동적으로 조정해서 내 식물을 키워준다. 긴 여행 중이라면 필수품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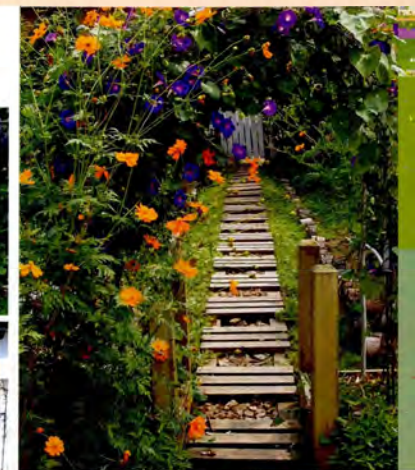
초록이 통성한 정원풍경, 소품과 초록식물이 조화된다

경기도 광주에 자리 잡은 세 자매의 이야기가 있는 정원

사람들은 나이 들면, 아니 조금의 여유가 있으면 전원생활을 원한다. 아담한 정원에 어울리는 나무와 꽃들을 심고 가꾸며 아기자기하게 살길 바란다. 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꿈꾸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다. 여기 꿈을 이룬 '세 자매의 정원'에 관한 얘기를 들어보자. 정원을 가꾸며 사는 오랜 꿈에 대한 얘기보따리가 한가득이다.



고사한 복숭아 나무를 잘라 만든 시늉과 강아지, 기린 등의 조형물



연두 색 새싹들이 땅 속에서 모습을 보이면 눈은 시리고 가슴은 설렌다. 푸르름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색색이 강산을 물들이면, 누구라도 동심으로 돌아가고 싶은 계절 봄이다. 경기도 양평 흑천을 끼고 위치한 세 자매의 정원은 이야기가 있다. 세 자매의 수다가 정원으로 녹아 들어 정원 속에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듯 곳곳에는 작은 소품들이 식물들과 조화를 이루며 동화 속 어딘가에 있는 착각마저 들게 한다. 어린 소녀들의 작은 꿈을 모아 계획하던 전원생활을 2009년 농가주택을 공동으로 구입하면서 이루어 되었다고 한다. 250(830m)여 평에 텃밭과 정원으로 조성된 정원은 소나무, 등나무, 학단풍, 뽕나무, 오가피, 갈나무, 사과나무, 자두나무, 구상나무, 능소화, 모과나무, 수수꽃다리, 붓꽃, 매발톱, 아주까, 작약, 백문동, 글라디올러스, 금낭화, 황금조팝, 수국 등의 수종이 대체로 낮은 구조로 자리잡고 있다.

소녀들의 정원

세 자매에게는 공통된 감성으로 지켜온 꿈이 있었다고 한다.

어릴 적 뛰어 놀던 마당과 장독대, 들판에 흐드러지게 피어 바람과 함께 춤 추던 들꽃들, 동화 속에 아름다운 정원들과 등장인물들은 늘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아 지금의 정원을 조성하는데 시발점이 되었다고 한다.

식물들과 오묘하게 어울리는 조형물들은 말이 없이도 들리는 듯 하다. 동네 어귀에 고사한 복숭아 나무를 잘라 사슴과 강아지, 기린 등의 형상을 만들고, 버려진 나뭇가지와 장난감 등을 활용해 솟대, 깨진 항아리를 화분 삼아 쓰고, 와인 상자를 플랜트 박스로, 침대 머리 부분으로 만든 철길 모양의 길 등 생활에서 쓸모가 다한 것들에게 다시금 생명을 부여한 디자인이 돋보인다.



버려진 나뭇가지를 활용해 만든 솟대



(상)겨울정원모습, (하)자매의 미소가 정경다

스승이 되는 정원

전문적인 사전 지식이 없던 주인공들은 어릴 때 늘 보던 야생화들의 기억을 떠올리며 산과 들에서 식재를 구해 심었다고 한다. 그러나 산과 들에서 수집한 야생화들은 우세한 것들이 많아 잡초만 있는 지저분한 느낌의 정원처럼 변해, 도리어 일거리만 더 많아졌다고 한다. 또한 야생에서 무단 채취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요즘은 지인에게 분양을 받거나, 장터에서 숙근초를 사서 심은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마당을 정원으로 조성하면서 제일 힘이 들었던 것은 뿌리 깊게 내린 잡초와의 싸움이었다고 한다. 간단히 제초제를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땅을 살리고 싶어서 일일이 손으로 잡초를 제거하고, 인공적인 비료를 쓰지 않고 자연에서 나오는 부산물과 왕겨를 섞어서 흙을 섞고 농가에 지급되는 퇴비와 함께 가을에 땅을 갈아 엮는다고 한다. 식물 관리하는 처음에는 책에서 보고 그대로 실행했으나, 해가 거듭되면서 자연스럽게 정

원에서 비롯된 비결이 생겨, 지금은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관리한다고 한다. 특히 글라디올러스 알뿌리는 첫 해 꽃을 보고 난 뒤 가을에 캐서 실내 창고에 보관했으나, 이듬해부터는 11월경에 왕겨를 10cm정도 덮어 놓으니 겨울을 잘 견뎌내고 꽃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우세한 종자는 무리로 식재하고 그 주위에 돌을 박아 놓아서 영역의 확산을 막고, 병이 생기면 원인을 분석해 보고, 그 계절이 되면 미리 방제를 한다고 한다. 해가 거듭될수록 정원에서 배운 것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보람이 된다고 한다.

정원을 위한 집

대부분 집을 짓고 정원을 조성하는데, 이 곳은 정원을 먼저 조성한 뒤에 집을 꾸몄다고 한다. 정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 유리벽을 만들고, 자연스러운 그림도 벽에 그리고, 실내에도 고사한 나무를 옮겨 놓고 계절에 맞



소품과 할아리, 왕석 등이 식물과 조화롭게 배치됐다.

는 열매나 잎을 달아 정원을 연장해 놓았다. 새들도 정원의 연장으로 착각해 통 유리에서 부딪쳐서 목숨을 잃기도 해, 그 앞에 천적인 새(조형)를 매달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으로 자연을 보기 위해 조성한 정원이 자연에 해가 되지 않게 했다.

입을 즐겁게 하는 텃

밭 애당초 텃밭 계획은 없었으나, 주말마다 동행하는 어머니의 소망으로 시작했다고 한다. 텃밭의 전경이 정원의 자연스러움을 감하여, 텃밭을 꽃이나 나무로 가려 착시 현상으로 정원풍경을 해치지 않게 배려했다. 텃밭에서 나는 소소한 채소와 정원에서 나는 제비꽃, 민들레, 망초, 달래, 씀바귀 등 야생화 순이나 잎으로 계절 별미 샐러드를 만들어 갑자기 고구마와 함께 원두막에서 먹는 그 맛은 일품이고, 맛도 맛있지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이라고 한다. 텃밭의 소일거리는 수확의 기쁨과 함께 어머니의 건강을 지켜주고, 주말만 하는 전원 생활이지만 가족애의 돈독해짐이 날로 더해 간다고 한다.

진정한 자연 속으로

얼마 전부터 접하게 된 미국의 동화 작가 타사 튜더의 정원은 그녀들에게 이상이라고 한다. “자연에 순응하는 정원이야말로 진정한 정원이 아닌가 생각 되네요. 인생은 짧고 좋아하는 것을 해야만 하며, 정원일이 좋으니까 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정원은 행복의 원천이며, 기쁨을 준다는 타사의 말대로 우리도 좋아하는 정원 일을 멈추지 않고 인생을 즐길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셋이라 더욱 따뜻한 그녀들의 정원이아기는 꽃이 된다.

**텃밭의 소일거리는 수확의 기쁨과 함께
어머니의 건강을 지켜주고, 주말만 하는 전원 생활이지만
가족애의 돈독해짐이 날로 더해 간다고 한다.**

저 만지 홀로 피어있는 주황색 나리를 본 적이 있는가? 온통 초록인 산에 주황으로 피어나 길손을 불러들일 만큼 화사한 색을 자랑한다. 잠시 쉬어가기를 청하기라도 하듯 하늘거리는 모습은 수줍은 듯 우아하다.



전 세계적으로 100여 종이 있고,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나리는 10~15종이라 한다. 참나리, 하늘나리, 하늘말나리, 섬말나리, 땅나리 등 익히 들어본 이름들일 것이다. 시골 우물가에, 작은 화단에 피어있는 나리는 소박하고 정겹다. 까만 씨를 따서 놀았던 기억, 꽃잎을 따서 물에 띄웠던 기억 한두 가지는 있을 것이다. 요즘 꽃축제나 놀이동산에서 보는 나리는 자생나리가 아니라 꽃을 크게 만들거나 향기를 진하게 만든 즉, 육한 원예품종이다. 자생나리보다 더 화려하고 숨이 자체가 크고 우람해 왠지 나리보다 백합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린다. '나리'는 우리말이고 백합은百合, 영어로는 lily라 부르지만 조금은 다른 듯 같아 보인다. 그래도 꽃축제나 놀이동산에 있는 꽃은 백합이나 lily가 더 어울리고, 산에서 고고하게 홀로피어 있는 꽃은 나리가 더 어울리는 것은 우리네 정서랑 닮아서 그럴 것이다. 나리는 구근식물로 종류가 다양하다. 꽃색도 주황, 다

향기에 취하고, 화색(花色)에 놀라다 꽃나리 백합, Lily

홍, 노랑, 하양, 분홍 등 여러 가지다. 외떡잎식물로 백합과(百合科 Liliaceae)에 속하는 나리속(一屬 Lilium) 식물이다. 학명으로 말하면 릴리움속(Lilium)에 해당하는 식물인 것이다. 백합(百合)은 양파처럼 생긴 뿌리 절편이 많다고 해서 일백 백(百)자를 쓴다고, 인편(鱗片)이 모여서

구근을 이루었다 하여 백합이라 이름 붙였다고 한다. 땅속에서는 흰 비늘 조각이 자라는데, 비늘 조각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겹쳤다고 해서 백합(百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100조각이 1개가 되었다하여 만들어진 한자어百合이다. 백합은 어려해살이 식물로 꽃말은 순수한 사랑, 순결이다.



꽃나리 키우기(꽃나리 Lilium)

꽃꽂이나 정원식물로 매우 좋은 꽃나리는 키우기가 까다롭지 않아 널리 선호하는 종이다. 또한 꽃색이 다양하고 화사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 받는 꽃이다.

- 다양한 종 보유 : 봄~가을까지 장기개화 종 선택 가능
- 단일 대군락 식물들과 혼성식재 가능
- 빠른 증식 : 1회 식재 후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식

식재로 알 수 있는 개화 소요기간

배수가 잘 되는 사질양토가 좋으며, 유기물이 풍부한 토양을 선호한다. 대부분 양지를 좋아하지만 반그늘에서도 대체로 잘 자란다. 성장이 활발할 때는 충분히 관수해 주고 겨울에는 습도를 유지해준다. 종자 번식 시 채종(採種) 후 바로 파종한다. 첫해는 잎이 나오고, 개화하는 데는 보통 18개월이 소요된다. 대체로 강건하지만 딱정벌레, 진딧물, 민달팽이 피해를 볼 수 있다.

품명에 따른 초장과 개화일

품명	초장(cm)	식재 후 개화일
드래곤	38	60-70
오렌지피시	40	80-90
페인티드피시	45	75-80
소우	45	100-110
피치피시	45	75-80
뉴웨이브	50	85-95
모나리자	50	80-90
가든파티	55	75-85
핑크피시	75	85-95
스타게이지	80	100-110
트레서	90	70-80
나보나	100	75-80
몬테	105	70-80
아메리카	112	80-85
카사블랑카	120	90-100

구근 한개당 천원정도 한다.
우리꽃(T.031-634-0326)에서 구입할 수 있다.

컨테이너조경이란

빌딩숲의 도시민들은 녹색을 원한다. 나무와 꽃들로 둘러싸인 곳에서 살길 원한다. 땅과는 다르게 빠르게 돌아가는 삶은 마음마저 각박하게 만들어버린다. 삭막한 회색도시를 녹색환경으로 변화시키고 도시민들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줄 수 있는 조경방법으로 컨테이너조경이 각광받고 있다.



글·사진 윤평섭
삼육대학교 환경그린디자인학과 명예교수

1

2

3

5

4

1. 레스토랑 입구에 가우라와 페튜니아, 바코파, 멕시코가막사리를 식재하여 공중경이용으로 장식해 놓은 전경
2. 실내를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배수공이 없는 테라컨테이너에 관을죽과 아그라오네마를 식재하여 반복해 장식해 놓은 실내 조경
3. 가정집 계단 위 침대에 토분 컨테이너에 단조롭게 식재한 후쿠시아
4. 상점의 복도 기둥 앞에 당총려를 식재하고 양옆에 흰색의 사각컨테이너에 피닉스야자를 식재하여 대칭미를 살린 경관
5. LA 게티(Getty) 센터의 출입구에 향아리형컨테이너에 흑범사를 식재하여 장식해 놓은 전경

조경

식물을 식재할 수 없는 건축구조물의 실내 바닥이나 건축물에 연결되는 현관, 데크, 플라자, 아트리움, 또는 옥상, 포장한 돌바닥이나 아스팔트로 포장한 도로변 같은 곳이다. 이런 곳에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배양토에 식물을 식재하여 관상하는 것을 컨테이너조경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재배는 용도별로 두 가지로 분류한다. 하나는 활착을 돕기 위해 조경용 식물을 생산 재배하기 위해 컨테이너에 식재하는 방법과, 관상용으로 장식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환경에 잘 조화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이용면에서도 관리하기가 편리한 방법으로 디자인하여 식물을 식재하여 관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컨테이너 조경의 유래

고대의 이집트나 그리스, 로마 등의 고대도시에서 광장이나 아트리움, 건축물 중앙에 조성된 중정식정원(patio garden), 포석된 도시의 도로변 지면에 식물을 심을 수 없는 곳에 '식물'을 용기에 심어 장식하게 된 것'이 유래가 되었다. 오늘날 많은 현대도시의 생활환경은 지면에 아스팔트 포장과 블록, 벽돌, 화강석으로 포장되어 식물을 심을 수 없는 장소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도시는 삭막한 경관을 연출하여 우리의 정서를 각박하고 메마르게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도시들은 서울을 비롯하여 많은 도시들이 삭막한 회색환경으로 변해가는 게 사실이다. 녹색경관을 만들려면 이와 같은 장소에 컨

테이너 구조물에 식물을 식재'하는 것'은 필연적이 되었고, 연관된 컨테이너조경도 필수적인 사업이 되었다.

컨테이너 식재시 유의할 사항

무엇보다도 물 관리와 배양토 선택, 배수문제, 그리고 비배(肥培)관리, 식물의 선정에 있어서는 내건성식물을 선택하는 문제와 용기의 형태이다.

■ 배양토로는 보수력(保水力)이 좋은 토양, 보비력(保肥力)이 좋은 토양, 배수가 잘되는 토양, 용기는 주변의 환경과 잘 조화될 수 있는 색채와 형태미를 가진 것과 겨울에도 내한성이 있는 수종, 늘 관상하기 위해 상록수를 선택하며 장소에 따라 내용수나 양성식물을 적지 적소에



컨테이너재배의 장점으로는 취급이 용이하고, 운반이 편리하며, 이식시기가 아닌 때에 식재해도 활착률을 높이 올릴 수 있다.

6



7



8

9

맞추어 심어야 한다. 또한 외부공간에서는 화분처럼 배수구가 있어야 하며 내부공간에서는 배수구가 없는 것이 효과적이다.

■ 컨테이너 재배의 장단점은, 장점으로는 취급이 용이하고, 운반이 편리하며, 이식시기가 아닌 때에 식재해도 활착률을 높이 올릴 수 있다. 대형의 컨테이너라 할지라도 기계로 운반할 수 있고, 이식이 가능하지 않은 식물도 이식이 가능하며, 굴취작업이나 뿌리감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용기에 뿌리가 꼭 차면 갈아 심어야 하고, 하우스에서 재배하면 옥외로 나올 때 순화과정이 필요하다. 용기에 담겨져 있어 바람에 의해 쓰러질 우려가 있다.

컨테이너 식재 시 주의 점

컨테이너와 식물 크기의 비율을 1:1.5~1.7배 정도의 황금비를 맞추어 심으면 보기가 좋으며, 컨테이너는 배수층과 배수공이 있어야 한다. 장식용 컨테이너의 색채와 형태미는 가로와 폭

의 길이가 60cm 되는 크기의 조경장식용 용기이다. 재질로는 금속재나 플라스틱합성수지, 목재, 동재(銅材), 석재, 콘크리트재, 알루미늄재, 주물, 인조석, 인조마블, 도자기 등이다. 이런 재질로 컨테이너용기를 만들어 식물을 식재하여 공간에 장식한다.

컨테이너의 형태와 색채

형태미는 원형과 타원형, 삼각형, 사각형, 육각형 등이 있으며, 깊이는 50cm 이상 되어야 한다. 용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색채와 형태다.

■ 색채는 자연 친화경적인 것이 좋으며 그중에서도 흰색 계열이 잘 어울린다. 다음으로는 갈색계열이 잘 어울리며 회색과 녹색도 잘 어울리지만 흰색 계열만은 못하다.

■ 형태에 있어서는 주변환경의 바닥이나 벽면의 선에 따라 통일성과 단순성을 유지한 유사한 형태의 컨테이너 구조물이 잘 어울린다. 도로변에는 도로선을 따라 직선의 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의 컨테이너가 좋겠고 광장 같은 원형의

장소에는 원형의 컨테이너가 잘 어울린다.

컨테이너의 배양토

인공용토로 피트모스와 버미큘라이트, 펄라이트, 양토, 부숙퇴비, 모래를 식물의 종류에 따라 배합비율을 달리하여 사용한다.

컨테이너 식물의 시비

제한된 용기에 식물을 식재하여 오랜 기간을 지나다 보면 영양분이 결핍하게 된다. 이때 추가비료를 주어 비배관리를 해주어야 한다. 비배관리는 복합비료를 액체비료로 만들어주는 방법과 덩어리로 만든 고형비료를 배양토의 표면에 놓거나 알개 묻어주어 물을 줄때마다 일정양의 양분이 용해되어 토양에 스며들게 하는 방식이다.

컨테이너의 관수관리

배수처리가 되어야 하며 관수관리는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관수방법에는 분수식관수와 스프링클러식, 직접관수식, 점적관수식, 탱크물 저면흡수식, 제리(젤)관수식 등의 방법이 있다.



10

6. LA 게티(Getty) 센터의 출입구에 향아리형 컨테이너에 흑법사를 식재하여 장식해 놓은 전경
7. 포장적으로 포장한 도로에 카나리아야자를 지면에 반복식재하고 그 사이에 무사 아비시니아를 황토색 원형 컨테이너에 식재하여 도로 중앙에 반복하여 장식해 놓은 골목길
8. 리시마키와 아프리카봉선화를 반구형 컨테이너에 식재하여 삭막한 콘크리트 코너 공간을 장식하여 신선하게 조성한 환경
9. 큰극조화와 페리지스타티스, 제라니움을 테라컨테이너에 식재하여 백화점 입구를 장식한 컨테이너 조성
10. 뉴기니아봉선화와 후쿠시아, 로벨리아, 다알리아 등의 초화류를 코코넛컨테이너에 식재하여 공중걸이용으로 공중의 코너 공간을 장식한 전경
11. 플라스틱컨테이너에 여러 가지 초화류를 각각 식재하여 건물앞 계단을 장식한 조합형 화단



11



12



13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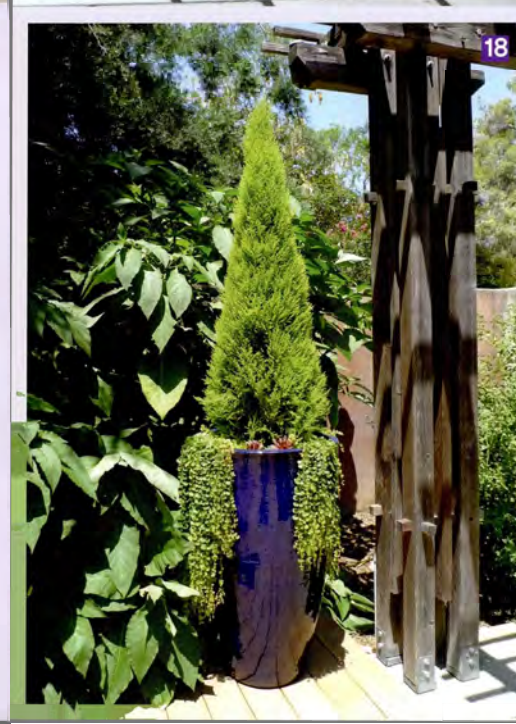
- 12. 현관 앞을 컨테이너에 식물을 식재하여 장식한 컨테이너조경 페튜
- 13. 니아를 컨테이너에 식재하여 화강석으로 포장한 광장을 반쪽 장식한 전경
- 14. 나무통으로 제작한 컨테이너와 석재 컨테이너에 큰고랭이와 부들, 부처꽃 등을 식재하여 시원한 공간을 조성한 서울시 광화문에 장식한 수재화단 조경



15

16

17



18

- 15. 무늬부들을 수저에 식재하여 수재화단의 분위기를 살린 컨테이너 조경
- 16. 물상추와 수련을 수저에 식재하여 수재화단의 분위기를 살린 전경
- 17. 블록으로 포장한 보도 위를 나무로 만든 사각 컨테이너에 페튜니아를 단식으로 식재하여 장식한 거리 조경
- 18. 수직적인 원통형의 도자기에 원추형의 상록침엽수를 식재하고 늘어지는 리시마키아를 식재하여 아름답게 데크 공간을 장식한 컨테이너조경
- 19. 가우리와 잉글리쉬아이비를 나무로 만든 컨테이너에 식재하여 출입구 측면을 장식한 전경



19



20. 마차와 같은 컨테이너에 고구마와 콜레우스, 큰극각조화를 식재하여 공간장식을 한 조경



21. 베리글드와 백목국, 잉글리쉬아이비, 콜레우스를 부직포 망으로 컨테이너를 만들고 인공용토를 넣어서 조화류를 도자이형에 식재한 입체공간 조경



22. 볼라핀석으로 포장한 공간을 컨테이너에 키가 큰 큰극각조화(Streptocarpus)와 부채야자로 장식한 조경

Gardenin Information

인공용토

피트모스(이탄이끼) : 이끼나 갈대가 땅속에 침하되어 어느 정도의 압력과 열을 받아 생성되는 물질로 주로 산성을 좋아하는 블루베리 등이 잘 자라는 곳의 흙. 보수력이 상토 중에서 가장 우수하여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 나무에 유리한 토양이다. 25kg 25천원 내외, 일반상토와 1:1로 섞어 사용한다.

버미큘라이트 : 보습에 좋고 다공질이라 가볍다. 입자가 굵은 것과 가는 것이 있다. 질석을 가공하여 생산한 중성 인토토로 토양개량에 많이 쓰이고 물을 흡수한 상태에서 압력을 받으면 기능을 상실한다. 리터당 천원 정도가 값이 싸다.

펄라이트 : 진주암을 고온 처리하여 만든 미세한 다공질의 인토토로 가볍고 보수력이 있으며 오래 사용할 수 있다. 매우 가벼워 식물지탱능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다른 흙을 함께 넣어주어야 한다. 혼합하지 말고 층별로 쌓아주는 게 좋다. 소독된 토양이라 병균이 없다. 비료는 따로 넣어줘야 한다. 100리터에 1만~1만 2천원 정도.

양토(壤土) : 점토가 25~37.5% 정도 함유된 흙이다. 모래와 진흙이 알맞게 섞여 있어 배수성(排水性), 보수력(保水力), 통기성(通氣性)이 적당하므로 모든 작물의 재배에 알맞다.

배양토 :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양분이 잘 배합된 흙이다. 화분에 공기가 잘 통하게 마사나 모래, 흙이 적당히 섞여 있다. 분갈이용 흙으로 사용한다. 표준배합은 상토(4): 피트모스(4): 모래(2)로 배합한다. 가격은 저렴하다. 종류에 따라 배합비율을 달리하여 사용한다.

부숙(腐熟)퇴비: 썩어서 발효된 거름이다. 가격은 저렴한 편이다. 직접 만들어 사용해도 된다. 20kg 6천원 정도.

마사토 : 화강암이 오랫동안 풍화되어 잘게 부서진 것으로 화강토라 한다. 푸석푸석한 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다른 배양토와 섞게 되면 배수성, 통기성이 좋아진다. 야생화재배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다. 굵기에 따라 대, 중, 소가 있다. 2.5kg 천오백원 정도로 저렴하다. 대량은 20kg에 5천원 정도.

상토(床土) : 살균이 되어 있는 흙이다. 씨를 뿌릴 때 사용한다. 발아와 육묘를 주목적으로 하는 토양이다. 50리터에 만원정도 한다.



낮은 실내습도 대책은? 습도조절이 가능한 식물키우기

여러분은 실내습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경을 쓰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내가습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습니다. 가습기를 가동하기도 싫고 날마다 청소하기도 귀찮습니다. 몇 해 전 일어난 가습기소독제 사건의 후유증이기도 하듯 가습기가 참고로 숨은 지 오랜 것 같습니다. 가든인에서는 실내습도를 식물을 키움으로서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가습기 전자제품이 아닌 식물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건강과 관련된 정보는 넘쳐난다. 민감한 사람들은 정보를 직접 찾아보기도 하고 실천도 해본다. 반대로 실내습도는 신경 쓰지 않는다. 실내습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습도에는 예민하지 않다.

최적의 실내습도를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구하여 관리하려고도 않는다. 겨울철, 봄철 실내습도는 20~30%로 매우 낮고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다. 최적의 습도는 40~60%라 한다.

습도가 낮은 이유

겨울철, 봄철엔 실외습도가 여름보다 10~20% 정도 낮다. 또한 3월까지의 난방을 하면서 환기는 잘 하지 않는다.

낮은 습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질병에 쉽게 노출되는 사람들, 예를 들면 기관지가 약한 사람, 면역력이 낮은 어린이나 임신부, 인체 수분비율이 낮은 노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잘 걸리는 병

습도가 낮으면 만성 피부질환인 아토피, 피부염, 건선 등이 올 수 있고, 호흡기 질환

쪽으로 천식, 알레르기비염을 일으킬 수 있다. 습도가 낮으면 생활하는데 쾌적하지 않고, 정전기 등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해결책

최적의 습도를 찾아 올리는 방법이다. 직접가습 간접가습이 있다. 직접가습으로 빨래 널기, 가습기, 실내분수, 미니수족관을 들여놓으면 된다. 간접가습으로는 식물재배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다. 식물과 토양의 증산작용이 생각보다 많은 가습으로 상승작용이 나타나고 자연친화적인 방법이라 가장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습도점검

우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실내의 습도를 측정해보는 것이 우선이다. 습도측정기(온·습도계, 디지털온·습도계)를 들여놓고 수시로 측정해서 조절한다.

〈실내녹화와 습도의 비율〉

실내 녹화율	상대 습도율
0%	34.2%
2%	36.7%
3%	46.9%





3월에 파종하여 올라온 어린 새싹

3월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왠지 파릇파릇한 초록색이 떠오른다. 12~2월까지의 한산하고 앙상한 나무줄기가 떠올랐다면 3월은 새싹이 떠오르는 시기일까? 나뭇가지의 꽃눈만 봐도 봄이 찾아왔음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3월은 약간의 느긋함이 필요한 시기이다. 봄기운에 설레서 무조건 서두르기만 하면 아직 채 가시지 않은 겨울의 찬바람에 고개를 숙이는 화분이 생길 수가 있다. 수영을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이 필요하듯 3월은 봄을 맞이하기 위해 서서히 준비운동을 하고,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울 시기인 것이다.

매해 봄이 되면 나는 따로 구입할 식물이 없더라도 꽃시장

에 달려간다. 어떤 식물을 키울 것인지 생각을 해놓지 않았더라도 무작정 꽃시장에 찾아가면 다양한 꽃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 3~5월은 다른 계절보다 더욱 다양한 꽃들을 꽃시장에서 구경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계획 없이 방문했다가 마음에 드는 허브를 발견하고는 구입하곤 했다. 그러다가 씨앗을 심는 매력에 푹 빠져서 꽃시장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씨앗을 심을까 고민하고, 3월의 꽃샘추위에 관찰을 체크한 후 모종판에 씨앗을 심게 되었다. 그리고 추위에 약한 식물의 파종과 모종 구입은 4월초로 미뤄 두었다.

하지만 작년 3월에는 사실상 씨앗을 거의 심을 수 없었

초봄의 왕재꽃시장

3월, 모종을 구입하러 가볼까?

무언가 시작하고 싶어 근질거리는 시기. 왠지 모르게 화분을 구입해야 할 것만 같은 시기, 바로 3월이다. 매해 3월이 되면 나는 어떤 식물을 키울지 고민에 빠지게 된다. 이 식물도 키우고 싶고 저 식물도 키우고 싶고... 3월은 행복한 고민과 함께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울 시기이다.

글·사진 오하나
파워블로거 허브향 가득한 체럼네 화단
<http://blog.naver.com/ei512/>





고, 모종도 거의 구입할 수 없었다. 결혼식을 앞두고 신혼집으로 짐을 옮겨야 했는데 화분을 구입하여 집을 늘릴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거기에 기존에 키우고 있던 식물들도 꽤 많아서 그 화분들을 신혼집에 들고 가는 것도 꽤 벅찬 일이었다. 그래서 월동이 가능한 일부 허브들을 시댁 화단에 심어 놓고 올 수밖에 없었고, 그 중에서도 추위에 약하고 베란다에서 키우기 수월한 화분들을 신혼집으로 가져가게 되었다. 결혼을 막 했을 때에는 그래도 정신이 없을 시기여서 아쉬움이 덜했는데,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자 기존보다 적어진 화분에 아쉬울 수밖에 없었다. 새해 봄이 되면 바로 꽃시장에 가자지, 그리고 다양한 화분을 구입해야지 하고 생각했다.

그 동안은 주로 허브 위주로 모종을 구입했는데 올해부터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 홀로 자취를 할 때에는 무조건 "저렴하게 오래 키울 수 있으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 좋아! 1년생 화초는 금세 꽃이 시드니까 싫어" 라고 생각해서 허브 위주로 키워 왔는데 신혼의 영향인 것일까... 아니면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일까? 올해 봄부터는 이상하게 꽃이 있는 식물을 키우고 싶었다. 물론 허브가 예쁘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 키우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다. 초록색 이파리에 향긋한 허브만의 향기는 매우 매력적이지만 그래도 자주 꽃을 피우는 화초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 3월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던지! 요즘에야 비닐하우스에서 키워낸 화초를 출하시키기 때문에 1~2월부터 봄 화초가 나와 있는 경

우가 많고, 겨울에도 햇볕이 잘 들어오는 남향 베란다에서는 꽃이 핀 화초를 키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겨울에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우리집 베란다에서 무리하며 키우기보다는 햇볕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기부터 들이고 싶었다.

씨앗으로 1년생 화초를 키우는 것도 좋겠지만 봄마다 채소, 허브 씨앗을 심어야 하기 때문에 심어야 할 씨앗 숫자를 늘리기에 무리가 있어 꽃을 감상하는 것이 목적인 1년생 화초는 꽃시장에 들러 모종을 구입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계획했다. 화초를 처음 키우는 분, 꽃만을 감상하는 것이 목적인 분, 씨앗을 심을 시간이 없는 분께는 모종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게 적용할 것이다.

이미 꽃을 피운 화초이기 때문에 별로 관리할 것이 없어 보여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꽃이 오래 피고지고 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애정이 필요하다. 햇볕이 잘 들면서 너무 덥거나 춥지 않은 곳에 두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 식물의 특징을 체크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시든 꽃과 시든 잎은 바로바로 제거를 하는 것이 오래 꽃을 감상하는 지름길이다. 만약 구입한 꽃을 피운 모종이 다년생이라면 다음에 또 꽃을 피우기 위해 꽃이 완전히 시든 후 전체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신혼의 영향인 것일까...
아니면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일까?
올해 봄부터는 이상하게
꽃이 있는 식물을 키우고 싶었다.**

겨울동안 애지중지 관리했던 구근이 빛을 발하는 순간!

봄을 대표하는 화초들은 씨앗으로 키워낸 화초만이 아니다. 튤립, 수선화, 히아신스 등과 같이 구근에서 꽃을 피우는 화초가 있다. 빠르면 늦겨울부터 모종 구입이 가능한 화초들인데 10~12월쯤에 구근을 심어 놓으면 초봄에 화사한 꽃을 감상할 수 있고, 베란다가 따뜻한 집은 더 빨리 꽃을 피우기도 한다. 처음에는 다양한 종류의 구근을 심고 싶어 구근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검색했는데, 가장 저렴하면서 흔하게 구입할 수 있는 튤립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기본적으로 5개 이상씩 구입을 해야 했고, 대형마트에서는 10개 이상씩 묶어 팔기도 하였다. 가격을 비교했을 때 대형마트에서 파는 10개짜리 튤립 구근이 훨씬 싸서 마트에서 구입하게 되었는데, 이미 베란다에 심기에는 너무 많은 수량이었다. 다른 사람과 나눠서 구입하면 편하겠지만 구입할 당시에는 함께 구입할 사람이 없어서 몇 개의 구근은 친구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구근은 전부 화분에 심기로 하였다. 튤립 구근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부담이 커서 다른 종류의 구근을 심는 것은 미룰 수밖에 없었다.

"올해는 튤립 꽃을 많이 피워서 싹껏 감상하고 다음해 가을에는 다른 종류의 구근을 심어야지. 그리고 다른 구근 식물의 꽃이 끝난다면 봄에 모종으로 구입해야지!" 라고 생각했다. 1월 중순쯤 되자 튤립의 싹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오랜 기다림 속에 올라온 튤립 싹이 어찌나 귀엽고 사랑스럽던지! 봄에 꽃이 활짝 피어 있는 튤립 화분을 구입하면 쉽게 꽃을 감상할 수 있겠지만 구근에서 직접 키워 피워낸 튤립 꽃은 더욱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올 것 같다.



<봄에 꽃을 활짝 피우는 구근 화초들>



튤립 봄이 되면 많은 곳에서 튤립 축제가 행해질 정도로 인기가 많은 구근 화초이다. 노란색, 보라색, 빨간색 등 다양한 컬러의 종류가 있으니 마음에 드는 컬러의 튤립을 골라 키워 보자. 구근 화초 중에서도 구근이 썩기 쉬운 편이기 때문에 심기 전에 전용 살균제나 약수 희석액을 이용하여 소독을 하는 것이 좋고, 물 관리에 더욱 신경 쓰는 것이 좋다.



히아신스 주로 늦겨울~봄에 화분에 심어진 상태로 판매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수경재배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물에 심어서 판매하는 모종도 볼 수 있다. 히아신스는 구근 색에 따라 꽃색이 달라지기 때문에 원하는 꽃색의 모종을 구입할 때 구근 색을 참고하면 좋다.



무스카리 가장 키우기 쉽기로 널리 알려진 구근 식물이다. 여름에 구근을 캐서 보관했다가 심어도 잘 자라고, 화분 체로 구근을 보관해도 잘 올라온다. 작은 포도송이를 닮은 꽃이 참 매력적이어서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



향기별꽃 아이페이션, 향기부추 등 불리는 이름이 다양한 구근 식물이다. 튤립, 히아신스, 무스카리 등의 구근 화초에 비해서는 흔히 파는 구근 화초는 아니지만 하얀색 계통의 소박한 느낌의 꽃은 정말 사랑스럽다.



수선화 늦겨울쯤 제주도에서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구근 화초이다. 봄이 되면 흔히 판매되는 구근 화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노란색 혹은 흰색의 꽃이 참 매력적이고, 향기 또한 강한 편이다.



크로커스 꽃이 땅에 붙다시피 하여 이른 봄에 일찍이 앙증맞은 꽃을 피우는 구근 화초이다. 꽃 모양이 얼핏 튤립을 닮아 있는데 꽃크기는 튤립에 비해 훨씬 작다. 잎은 부추처럼 길고 가늘며 꽤 단단한 것이 특징이다.



고기와 찰떡궁합인 상추

너무나 익숙한 채소, 상추. 사계절 내내 우리 식탁에서 우리의 입을 즐겁게,
풍요롭게 해주던 상추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포기상추, 잎상추, 꽃상추 정도만 알고 있다면 꼭 읽기를 권합니다.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상추, 특히 고기 먹을 때 없으면 안 되는 귀한 채소, 상추.
상추를 만나봅니다.



경천적상추



충남 논산, 배프자상추



반딧불이에 끌리게 자라고 있는 평창적치마상추



담배상추기 꽃만 웃음

담배상추를 절충중인 마늘밭 고랑에 심은모듬

추운

겨울이 가고 새싹이 파릇이
울ტი 시작하는 봄이 오
면, 어김없이 광속 향아리 안에 넣어 두었던
씨앗자루에서 꺼내어 텃밭에 뿌려야만 했던
상추가, 지금은 한겨울에도 도시나 읍내를
가리지 않고 구입할 수 있다. 암소갈비집이
나 돼지삼겹살집, 영양탕집 등 고기를 먹는
음식점 최고 상추가 나오지 않는 곳이 없다.
백색혁명이라고 일컫는 1970년대 이후 비닐
하우스 덕에 이제는 철을 가릴 필요가 없어
진 것이다. 심지어 도시농부들은 때 없이 배
란다에서도 상추를 기른다.
요즈음은 식생활 패턴이 바뀌고 살기가 좋
아져서 육식을 많이 하는 관계로 고향이나
성인병이 옛날보다 많아졌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불고기나 생선회를 먹을 때면 오래 상
추와 함께 먹는다는 점이다. 고기에 없는 식

물성 섬유소나 비타민, 무기질을 함께 섭취
할 수 있고 맛을 배가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고기와 상추는 그야말로 찰떡궁합인 것이다.
상추를 식물학적으로 품종군을 분류할 때,
양배추처럼 결구가 되는 결구상추, 반 정도
결구되는 반결구상추, 잎이 오글오글한 잎상
추(또는 오그라기상추), 배추 모양의 배추상
추와 굵은 줄기로 곧게 자라나서 밑에서부터
잎을 젖혀 먹을 수 있는 줄기상추(또는 치마
상추) 등으로 나눈다.
토종상추는 크게 잎상추와 줄기상추로 30여
종이 있다. 잎상추는 다 자랐을 때 포기채로
수확을 하지만 줄기상추는 3~4일에 새잎이
한 장씩 나오면서 줄기가 자라므로 밑에 달
린 큰 잎부터 몇 장씩 젖혀 먹을 수 있어 심
어두고 먹고 싶을 때 적당히 수확해 먹는 데
제격이라고 하겠다.

잎상추의 토종으로는 독섬상추, 은평오그라
기, 안동상추 등이 있으며, 줄기상추로는 충
남상추, 서울개봉상추, 적치마상추, 청상추
등이 있다. 근래에는 여러 종묘회사에서 이
들 품종을 기본으로 하여 수확량이 많고 맛
이 있는 품종들을 개발하여 시판하고 있다.
상추는 기원 전 550년부터 재배되기 시작했
다고 하는데 바비르프에 의하면 중국, 인도,
근동 지중해 지역이 그 발생지라고 한다. 청
나라 때의 문헌 <천록식어(天祿識餘)>에 고
구려의 사신이 상추씨앗을 비싼 값에 팔아
천금채(千金菜)라 불렀다는 기록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상추
를 재배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문헌상으
로는 고려 고종(1236~1251)때 편찬된 <향
약구급방(鄕藥救急方)>에 처음으로 언급되
고 있는데 상추를 와거 라고 표기하고 있다.



글·사진 안완식
안완식 씨드림 대표, 농학박사
한국토종연구회 고문, 슬로푸드코리아
생물다양성위원장, 맛의방주 위원회 위원장

잎상추의 토종으로는 독섬상추, 은평오그라기, 안동상추 등이 있으며, 줄기상
추로는 충남상추, 서울개봉상추, 적치마상추, 청상추 등이 있다.



그 아들아들한 상추 잎을 두어 장 받치고 밥을 엮고 햇마늘, 풋고추 놓아 고추장을 떠서 얹은 다음 쓱 말아서 한입 넣으면 그 상추쌈 맛이란 게 그저 꿀맛이지요.

날씨가 더울수록 쓴맛이 더하는 청상추, 청이부루

“보리를 베느라고 흠뻑 젖은 잠방이차림에 목도 마르고 시장기가 한창인데, 점심 광주리를 이고 나오는 새락을 보면 군침부터 나오지요. 모두들 발독에 나앉아 그 아들아들한 상추 잎을 두어 장 받치고 밥을 엮고 햇마늘, 풋고추 놓아 고추장을 떠서 얹은 다음 쓱 말아서 한입 넣으면 그 상추쌈 맛이란 게 그저 꿀맛이지요. 거기애다 탁주 한 사발 쭉 걸치는 맛은 농사일 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말씀씨 좋은 권기자 아주머니는 청치마상추 자랑을 하면서 입에 군침이 돌게 만드는 재주까지 있었다. 문경시 산북면에서 재배하고 있는 청치마상추는 청이상추라고도 하고 청이부루라고도 하는데, 하늘색이 약간 돌 정도로 짙푸른 색깔을 띠고 있다. '부루'라는 말은 상추의 옛말인데 이 동리에서는 언제부터였는지 모르지만 청이상추를 계속 심어왔다고 한다. 잎의 모양은 바깥쪽이 다소 넓은 장타원형으로 잎의 가장자리에 약간 주름이 진다. 4~5월에 마당가에 씨를 뿌리면 6월 중순부터는

아래쪽 일부부터 필요에 따라 차례로 따먹을 수 있는데 8월에는 꽃이 피고 씨가 맺힌다. 잎을 찢히면 하얀 진액이 나오고 여름이 더울수록 쓴맛이 난다. 아직까지도 손님을 대접할 때 제일로 치는 것이 암소갈비 아니면 생선회라지만 필자는 인간의 신체구조를 생각한다면 육식문화보다는 채식문화가 보다 발전을 식문화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손님을 대접할 때면 '두메산골'이라는 음식점으로 자주 안내한다. '두메산골'은 수원 상공회의소 건너편 골목 안에 있던 작은 식당인데, 상추는 물론이거니와 깻잎, 배추, 고추, 신선

부자마을로 탈바꿈시킨 청치마상추

영동고속도로 문막 인터체인지에서 빠져나와 42번 국도, 지방국도 396번, 383번을 차례로 타고 이포대교를 건너 다음 우회전, 다시 37번 국도로 접어들어 10km를 가면 상추 재배로 이름난 양평을 원덕리와 봉성리에 갈 수 있다. 원덕리와 봉성리는 30여 년 전만 해도 논농사를 많이 하는 전형적인 한국 농촌으로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논밭을 팔아야만 그나마 아이들 대학이라도 보낼 수 있는 곳이었던 것이다.

20세에 이곳으로 시집와서 40여 년 간 상추를 재배해 온 최재순 아주머니가 처음 시집을 와서 보니 시어머니가 청치마상추를 텃밭에서 재배하고 계셨단다. 그런데 여름이든 논 일하는 사람들에게 상추를 찢혀 씻어서 보리밥에 고추장으로 점심을 대접했는데 인기가 좋았다고 한다. 그때 심었던 청상추는 잎끝이 둥근 타원형으로 연한 녹색을 띠고 약간 오글오글 하면서 꽃대가 올라오는 것이 늦어 밭에 심어 놓고 밑에서부터 자라는 대로 찢혀 먹으면 되었다. 그러다가 밭에 심은 것이 남아서 처치하기가 곤란하여 시장병 일 있을 때 양평이나 용문시장에 가져가서 팔아 보았

는데 생각보다 돈이 되어 규모를 차츰 늘리게 되었다고 한다. 돈이 된다는 소문이 이웃으로 퍼져서 재배하는 사람들이 늘게 되었고 텃밭에서 논으로 재배장소가 옮겨졌다. 또 일찍 재배하기 위해 나무로 쳤던 비닐터널을 대나무로 바꾸게 되었고 다시 철골 하우스로 바뀌게 되었다. 처음에는 잎을 한꺼번에 따지고 나가서 돈으로 쳐서 달라는 대로 조금씩 썬 것이 다발을 짓게 되었고 다시 최근에는 상자에 담아 상품화하기에 이르렀다. 상추재배는 마침내 온 마을로 면적이 넓혀졌고 돈 잘 버는 부자마을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최재순 아주머니는 6남매 자손들의 학교 진학을 쉽게 이룰 수가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상추품종도 개량이 되어 개량종이 많이 재배되고 있다. “상추는 한국의 토종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개량된 품종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재배되었는데, 근래에는 우리나라의 중요상에서도 좋은 품종이 많이 개량되어 시판되고 있습니다.” 당시 흥농종묘(주)의 김병환 박사의 말처럼 역시 우리 입맛에 맞고 우리 땅에서 잘 되는 작물품종은 우리의 재배종의 피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상추파무침

[재료] 진간장 3큰술, 식초 2큰술, 설탕 1큰술, 고춧가루 1큰술, 깨소금 2작은술, 참기름 1작은술

1. 상추는 작은 것은 그대로, 조금 큰 것은 알맞은 크기로 뜯어 잠시 찬물에 담갔다 건져 물기를 뺀다. 채 썬 파 역시 찬물에 담가 싱싱하게 물이 오르면 건져 낸다.
2. 분량의 진간장에 식초, 설탕, 고춧가루, 깨소금, 참기름을 넣고 설탕이 녹을 때까지 골고루 저어 준다.
3. 넓은 그릇에 상추와 파채를 담고서 양념초간장을 넣어 가볍게 무친다.

파를 가늘게 채 썰는 방법은 파를 손에 들고 칼끝으로 쪽쪽 가르듯이 써는 것, 또는 길게 반 가른 다음 얹어 놓고서 채 썬다.
상추나 파는 찬물에 담가두어 싱싱하게 물이 오르게 한다. 또한 파의 매운 맛이 너무 강할 때 물에 담가두면 매운 맛이 어느 정도 빠진다.

상추의 효능과 부작용

상추는 영양이 풍부하다. 눈에 좋은 비타민A가 풍부하고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E가 함유되어 있다. 항산화작용을 하는 비타민 E는 세포막의 산화적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며, 겨울철 피부가 거칠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상추에 들어있는 철 성분은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형성에 필수적이며, 신경전달물질, 콜라겐 합성에도 관여하여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준다. 상추는 소변 불리증이나 혈뇨를 치료해 주고, 예부터 산모의 젖이 잘 나오도록 도와주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추를 먹고 자면 불면증이나 신경과민 증세가 있는 사람에게 특히 좋다. 상추 유액 속의 최면, 진정, 진해 효과가 있는 성분인 락투카리움, 락투세린과 락투신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식물성 섬유도 풍부하므로 변비 증세가 있을 때 상추를 많이 먹으면 좋다.

상추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냉한 사람이 많이 먹으면 냉기가 더 심해지고, 산모가 많이 먹으면 아기가 푸른 변을 보기도 한다.

좋은 상추 고르기

화확 비료를 주지 않고 기른 상추는 10일이 지나도 무르지 않고 싱싱하다. 옷자라지 않아서 크기가 손바닥 정도이고, 녹색이 너무 진하지 않으며 밝은 색이 나는 짓무르지 않은 것이 좋은 상추이다.



극성 달배상추



달배상추



진간상추



대화적상추

상추 기르기

상추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채소로서 종자의 발아 적온은 15~20° C가 기르기에 좋다. 25° C 이상에서는 휴면상태로 들어가게 되어 싹이 잘 나지 않는다. 여름철 고온과 장일에서 꽃눈분화가 촉진되고 꽃대가 빨리 나온다.

파종상 준비

상추재배에 적당한 토양은 보수와 배수가 잘되는 사질양토 또는 점질양토이다. 적당한 토양 산도는 pH5.8~6.8로 약산성이다. 베란다의 경우에는 플라스틱 혹은 스티로폼 상자 밑에 배수를 위한 구멍을 사방에 뚫고 가는 망 등으로 덮는다. 농약상 등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토에 준비한 퇴비 등 거름이 있으면 섞어서 채운다.

파종

밭에는 3월 중순이 파종 적기이다. 여름철에 파종 재배 시는 꽃이 늦게 피는 여름재배용 종자를 구입하여 심어야 한다. 좁은 면적일 경우에는 고온 휴과 씨를 혼합하여 고르게 흩어뿌림하거나 5~6cm 간격으로 줄뿌림을 한다. 종자가 작고 햇빛을 보아야 발아가 잘 되므로 가볍게 복토한다. 연결트레이에 2~3립씩 파종한다. 파종 후 5~7일 정도면 싹이 튼다. 남은 종자는 냉장고에 보관하면 활력을 몇 년간 잃지 않는다.

정식

본 잎이 1~2장 나왔을 때 한구멍에 1~2개체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위로 잘라낸다. 육묘 기간은 20~30일 정도이며, 본잎이 3~5장 전개되었을 때 정식하면 활착이 잘 된다. 포기 사이는 25cm 정도가 좋으나 베란다의 경우에는 생육이 왕성하지 못하므로 15cm 정도로 하며, 정식하고 나서 물을 충분히 준다.

가꾸기

상추의 뿌리는 얇게 뻗으므로 김매기와 제초 작업은 얇게 해 주어야 하며, 물을 주거나 멀칭을 하여 항상 건조하지 않도록 한다. 베란다, 하우스나 터널재배에서는 물을 지나치게 주면 뿌리가 썩거나, 식물체가 옷자라 병해가 발생하기 쉽다.

거름주기

상추는 생육기간이 짧고 뿌리도 잘 발달하지 않으므로 멀거름 위주로 준다. 멀거름은 정식 10~15일 전에 질소질 비료 중심으로 준다. 옷거름은 정식 10여일 후 완전히 활착하고 본잎이 1매 더 나왔을 때 준다.

수확하기

파종 후 60일(정식 후 30일경)이면 수확하게 되므로 밑의 잎부터 수확한다.

파종상준비→파종 →정식 →가꾸기 →거름주기

글·사진 우정아
경기조경대학 강사, 가든디자이너



과종시계로 만드는 빈티지 가든장식

완성된 제품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재활용품을 이용해 직접 만들면 그 가치는 배가 될 것이다. 손수 색칠하고 화초를 심고, 가꾸는 재미를 아는 이라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 당장 우리 집에 어울릴만한 재활용품을 찾아보고, 리폼에 도전해보자. 나만의 가든에 도전해보자. 올 봄 기분 좋은 출발을 위해서...

관리법

호접란은 햇빛이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환기에 신경을 써야 한다. 또 공중 습도가 높은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침 저녁 분무기를 사용하여 분무하고, 분무 시 꽃에는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 한다.

관수는 바크의 경우 손가락을 넣어 바크가 완전히 마르면 관수한다. 수태 볼의 경우 공중에 있기때문에 수분 증발이 많으므로 수태가 완전히 마르지 않도록 관리한다. 꽃이 다 지면 꽃대를 완전히 잘라주어야 영양분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잎을 마른 천으로 닦아 이물질을 제거해 주면 잎이 숨을 쉬는데 도움이 된다. 비료는 액체비료를 1000배 희석하여 엽면시비(葉面施肥):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용액으로 만들어 식물의 잎 표면에 뿌리는 일해 준다.

재료

과종시계, 아크릴물감, 스펀지, 방수포, 팔레놉시스(호접란), 바크, 낙시줄, 수태



1. 과종시계의 부속품들을 다 떼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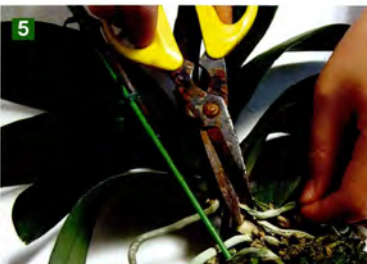
2. 아크릴물감을 스펀지로 여러 번 두드려서 색 깔을 낸다.



3. 바닥에 방수포를 깔아준다.



4. 포트를 가위로 잘라 호접란의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꺼낸다.



5. 호접란의 상한 뿌리와 잎을 제거한다.



6. 아크릴 물감이 완전히 마른 후 과종시계에 호접란을 넣어 위치를 잡는다.



7. 2개의 호접란을 넣고 주위를 바크로 채운다.



8. 호접란의 뿌리에 수태를 감싼다.



9. 수태를 낚시 줄로 감아 동그랗게 볼을 만든다.



10. 볼을 만든 호접란을 장식물 상단 쪽으로 고정시킨다.

“
고장 난 과종시계를 리폼하여 봄 분위기가
나도록 월 가든을 만들어 보자.
간단한 작업만으로도 빈티지 느낌의 이국적
인 장식물이 재탄생 된다.
”



봄을 수놓다 사랑을 노래한 튤립 tulip

튤립은 정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봄의 전령사이다.
화려한 색깔로 봄을 전하는 튤립의 꽃말은 빨강은 사랑의 고백,
노랑은 사랑의 표시, 보라는 영원한 사랑이란다.
봄, 어디든 가면 반겨주는 대표적인 봄 화초 튤립에 대해 알아보자.

학명 *Tulipa gesneriana*
이명 올금향(鬱金香)
분포 아시아, 유럽
크기 약 20~30cm
원산지 유라시아 대륙
꽃말 명성, 애정, 사랑의 고백(황색은 헛된 사랑, 백색은 실연)

글·사진 윤태훈
파워블로그 류제의 정원
<http://blog.naver.com/bornyunny3>



개요 봄 정원의 화사함을 책임진다

튤립은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이 원산지인 백합과의 구근식물이다. 3~5월에 빨강, 분홍, 하양, 노랑, 주황 등의 꽃이 컵 모양으로 피는데, 꽃색이 화사하고 꽃이 커서 눈에 잘 띄어 예로부터 이슬람 왕실의 사랑을 받아왔다. 현재까지도 봄 정원에 빠질 수 없는 화초이다. 또한 구근의 값이 싸고 가을에 구근을 심어두면 대부분 개화가 가능한 정도로 재배도 쉬운 편이라 봄 정원에 이 꽃을 빼놓을 이유가 없다. 현재는 전통적인 컵 모양의 홑꽃뿐만 아니라 장미나 작약을 연상하게 하는 겹꽃 품종도 종종 볼 수 있으며 화색도 혼한 빨강, 노랑, 흰색, 분홍뿐만 아니라 보라, 검정, 피코티 등의 색상을 가진 품종도 나와 있어 더욱 다채롭게 즐길 수 있다.

튤립구근은 10~12월에 구덩이를 10cm 정도 판 후에 심는다.
구근 간격은 5~15cm 정도다.

식재정보 배수가 좋은 곳에 심는다

튤립 구근은 가을~겨울에 주로 판매되며 이 때 구근 판매 사이트를 둘러 구입하도록 한다.

튤립은 양지바르고 배수가 좋은 비옥한 곳을 선호하므로 물빠짐이 웬만큼 좋은 곳이라면 식재가 가능하며, 화단의 배수가 좋지 않다면 화분에 배수가 잘 되는 흙을 담아 심도록 한다. 구근을 심는 시기는 10~12월이며 구덩이를 10cm정도 판 후 심으면 된다. 구근을

심지 않고 너무 오래 공기 중에 놓아두면 상하기 쉬우므로 구입하고 빨리 심는 것이 좋다. 심을 때는 구근끼리 5~15cm 간격을 두고 심는 것도 좋지만 간격을 더욱 좁게 하여 심어도 된다. 밀식을 하면 개화기 때 더욱 아름답다. 튤립은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식재 간격을 잘 지켜 심어도 내년에 꽃이 필 정도로 구근 비대가 잘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심는 장소는 양지 바른 곳이 좋다. 혹시라도 올해 꽃을 피운 구근을 내년에도 쓰고 싶다면 4월까지의 양지바르다가 5월 초순부터 반그늘이 되는 장소에 심도록 하자

요즘 우리나라는 고온기가 빨리 오기 때문에 구근 비대가 잘 되지 않는데, 더위가 찾아오는 5월부터 반그늘에서 키운다면 잎을 조금이라도 오래 보존할 수 있어 구근 비대에 도움이 된다.

비료, 물주기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다

튤립은 한 해만 꽃을 볼 생각이라면 비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 첫해에는 비료를 주지 않아도 구근의 양분만으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 혹시 계속해서 꽃을 보고 싶다면 구근을 심을 흙에 퇴비를 듬뿍 주고, 봄에 잎이 출현할 때부터 잎이 마를 때까지 물에 녹인 액비를 2주에 한 번 공급해준다. 사실 이렇게까지 해도 구근 비대가 그렇게 잘 되진 않으므로, 새 구근을 매년 사서 심는 것을 추천한다. 튤립 구근은 값이 싼 편이다.

물주기는 단순히 겉흙이 마르면 주면 된다.

번식법 가정에서는 번식이 힘들다

튤립은 이론상으로 분구와 살생번식을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구근 비대가 잘 되지 않으므로 자구들이 생겼다 해도 꽃을 피울 정도로 키우기가 힘들며, 잘 키워서 작년 구근을 개화구로 키웠다 해도 자구까지 개화구로 키우는 힘들다. 씨앗 역시 개화구로 자라는 데 7년 정도 걸리므로 가정에서는 번식이 힘들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튤립이 씨앗을 맺게 되면 구근의 양분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여 구근 비대가 잘 되지 않으므로, 구근을 내년에 쓸 생각이라면 꽃이 질 때 열매를 따주는 것이 좋다.

원종계 튤립

요즘 시판되는 튤립 중엔 야생종에 가까운 원종계 튤립들이 판매되기도 한다. 원종계 튤립은 보통 튤립보다 병에 강하고 구근이 작아 구근 비대가 쉬워 매년 꽃을 보기가 수월한 종류이다. 대신 키나 꽃이 보통 튤립과는 비교도 안 되게 작고 가격이 비싼 편이다. 참고로 원종계 튤립이라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튤립보다 잘 적응하는 것은 아니다. 원종계 튤립 역시 정마철엔 구근이 썩기 쉬우므로 잎이 지고 나면 구근을 캐내어야 한다.



병충해 알맞은 약제를 써서 방제한다

진딧물이 가끔 붙는데 병을 옮길 수 있으므로 코니도 등을 사용하여 최대한 빨리 방제해준다. 가끔씩 바이러스에도 걸리기도 하는데, 바이러스에 걸린 튤립은 화색이 이전과 달라지며 줄무늬가 생기는 데 바이러스는 치료법이 없으므로 발병된 포기를 제거하는 수밖에 없다. 가끔 구근에 묻은 곰팡이 때문에 심은 구근이 썩기도 하므로 벤레이트 1000배 액에 구근을 1시간 정도 담가두었다가 심으면 좋다.

튤립의 월동 내한성이 강하다

튤립은 내한성이 강하여 화단에 심었다면 월동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화분에 심었다면 베란다에서 겨울을 나게 한다. 화분 재배시에는 0~5도 사이의 온도에서 월동을 시키면 좋다. 겨울을 너무 따뜻하게 보내면 내년의 개화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겨울 동안 구근을 따뜻하게 보관하면 안 된다.

튤립 구근 보관법 굳이 냉장고에 보관할 필요가 없다.

튤립 구근은 습도가 높아지면 썩기 쉬우므로 캐어서 건냉암소에 보관하던가, 화분에 그대로

로 놔두고 물을 주지 않도록 한다.

튤립 구근 보관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튤립 구근을 수확하자마자 냉장고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구근을 냉장고에 넣는 경우는 저온 처리를 미처 하지 못했을 때 냉장고에 넣어두는 것인데, 이것이 잘못 퍼져 구근은 무조건 냉장고에 보관해야 된다는 오해가 생겼다. 어차피 겨울을 지내면서 자동으로 저온 처리가 되므로 냉장고에 넣어가면서까지 저온 처리를 해 줄 필요는 없다. 구근을 수확한 후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건조한 곳에 구근을 보관했다 가을에 심으면 된다.

구근(球根)식물~~~ 꼭 알고 계세요.

한자 그대로 둥근 뿌리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꽃인 튤립, 수선화, 백합, 프리지아, 칸나 등이 있다.
구근은 심는 시기만 잘 지키면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봄에 피는 튤립은 그 화사함만큼이나 종류도 다양하다. 심는 시기, 기다리는 마음, 보관하는 정성을 들여야만 하는 구근류는 그 과정이 있기에 더 기다려지는 꽃이다.
구근은 종류가 많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구근을 정리해봤다. 가까운 판매점이나 인터넷으로 알아보면 쉽게 구입할 수 있고, 보관방법, 심는 방법까지 덩으로 얻을 수 있다. 그리 비싸지 않다고 하니 올하는 봄에 피는 구근류부터 키워보자.

구근의 종류

인경(鱗莖) : 땅속줄기의 하나로 비늘줄기라 한다. 줄기가 짧고 그 둘레에 두꺼운 잎이 둘러싸여 둥글게 덩어리 모양이 된 줄기를 말한다. 공모양, 달걀모양, 길동근모양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파, 마늘, 나리 따위에서 볼 수 있다. 줄기가 짧고 잎이 비대해

진 것으로 튤립, 아말릴리스, 히아신스 백합 등이 있다.

괴경(塊莖) : 덩이모양을 이룬 땅속줄기의 하나로 덩이줄기라 한다. 피막이 없는 상태에서 줄기가 비대해진 것으로 아네모네, 칼라, 칼라디움, 시클라멘, 구근베고니아, 감자, 토란 등이 있다.

구경(球莖) : 땅속줄기의 하나로 잎줄기라 한다. 녹말 등의 양분을 많이 저장하여 부피가 커져서 둥글게 된 것으로 감자, 토란, 쇠귀나물 따위에서 볼 수 있다. 글라디올러서, 프리지아, 크로커스, 콜치쿰, 익시아 등의 꽃들도 포함된다.

근경(根莖) : 뿌리와 비슷하게 땅속으로 뻗어나가는 식물의 땅속 줄기로 뿌리줄기라 한다. 마디가 생기고 마디에서 부정근(不定根)이 돋으며 지상으로 잎을 낸다. 아이리스, 칸나, 꽃생강 등이 속한다.

괴근(塊根) : 식물의 뿌리가 양분을 저장해서 덩이모양으로 비대해진 것으로 덩이식물이라 한다. 식품으로 고구마, 순무 따위가 있다. 달리아, 라넡쿨러스, 글로리여사 등이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다.



구근 심기		
봄에 심는 구근	심는 시기	개화기
글라디올러스	4~6월	7~11월
다알리아	4~5월	6~10월
아마릴리스	3~4월	5~6월
칸나	3~4월	7~11월
칼라	4월	6~7월
가을에 심는 구근	심는 시기	개화기
나리	10~11월	5~8월
백합	10월	3~4월
수선화	9~11월	6~8월
아네모네	9~10월	2~5월
아이리스(구근)	9~10월	4~5월
튤립	10~11월	3~5월
후리지아	10월	3~4월
히아신스	10~11월	3~4월

심는 시기: 서리가 내리지 않는 시기부터 5월말까지
심는 장소: 햇볕이 잘 드는 장소
심는 방법: 구멍을 파내거나 이랑을 만들어 구근을 심는다(심는 방법을 다양하게 하는 게 실패확률이 낮다)
심는 깊이: 구근의 2배 깊이(다알리아나 베고니아는 지표면에 가깝게 심는게 좋다.)
심는 간격: 크기가 작은 구근은 10cm, 글라디올러스는 12cm, 베고니아는 25cm, 백합은 30cm, 다알리아 40cm가 좋다.
심는 토양: 최대한 부드럽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이 좋다.
※ 아마릴리스 : 봄에 심는 구근 류 중 가장꽃이 화려하다.



PET병 미니정원들이 줄지어 창가에 놓여있다. 실내환경을 화사하게 변화시켜준다.

1. 봄 분위기 물씬 나는 미니정원

어느 계절보다도 예쁜 녹색의 식물과 꽃을 곁에 둘 수 있는 봄. 때문에 집 안에서든 정원에 가장 정성을 들이는 계절이기도 하다. 특히 미니정원은 베란다나 거실 한 코너를 이용해 좁은 집에서도 간단하게 꾸밀 수 있으며 관리도 수월하다. 특히 화사한 색상과 향기를 지닌 수선화, 히아신스와 같은 알뿌리 식물들과 각양의 모양과 색깔, 향을 가지고 있는 프리울라 등의 초화류는 봄을 알려주는 마음의 전령사이다.

향기로운 봄이 오네요~

좁은 베란다 봄맞이 PET병 미니정원 꾸미기

나만의 미니정원, 내가 좋아하는 종류로 만드니 더 정이 가겠지요. 역시 봄은 꽃이 최고죠. 추운 겨울을 지나 막 봄에 들어선 3월은 특히 더합니다. 정순진 박사님께서 작고 예쁜 구근류나 초화류 등을 이용해서 조화롭게 담아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따라 해봐도 가능할 거 같지요. 주저하지 마시고 집안에 예쁜 PET병 미니정원 하나 들여놓으면 어떨까요?

깜찍한 봄의 전령 수선화

학명 : *Narcissus tazetta* 수선화과

영명 : narcissus geranium

특성 : 구근(알뿌리)식물

원산지 : 프랑스, 중국

이용장소 : 실내 화분, 실외 정원

온도 : 5~20℃

물주기 : 배양토에 습기가 있을 정도로 유지한다.

번식 : 알뿌리

특별한 관리 : 다음 해에 다시 꽃을 피우고 싶을 때는 꽃이 지고난 후 꽃만 따내고 물과 비료를 주어 알뿌리를 충실하게 한 후 잎이 누렇게 될 때 캐어 건조시켜 시원하고 컴컴한 장소에 보관한다.



집안에 우아한 향기가 가득 히아신스

학명 : *Hyacinthus orientalis* 백합과

영명 : hyacinth

특성 : 구근(알뿌리)식물

원산지 : 지중해 부근 유럽

이용장소 : 실내화분, 수경재배, 실외정원

온도 : 5~20℃

물주기 : 배양토에 습기가 있을 정도로만 준다.

수경재배(뿌리만 물에 잠김)

번식 : 알뿌리

특별한 관리 : 알뿌리가 충분한 냉온처리 기간을 거치지 않고 밝고 따뜻한 곳으로 급히 나왔을 때, 꽃이 피지 않거나 꽃대가 위로 올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선명한 색과 향으로 봄을 전하는 프리울라

학명 : *Primula* spp. 앵초과

영명 : Primula

특성 : 1년 초화류

원산지 : 영국 해안, 태평양 연안 및 중국 대륙

이용장소 : 실내 창턱, 실외 정원

온도 : 10~20℃

물주기 : 배양토가 습해야 하며, 시원한 환경을 좋아함

특별한 관리 : 봄을 가장 먼저 전하는 초화류로 햇빛이 드는 창가에 예쁜 화분 속에 넣어두면 예쁘다.



2. 만들기 전에

접시정원은 넓은 접시 모양의 용기에 여러 가지 식물을 함께 심어 만든 축소된 정원의 형태를 말한다. 용기 재료는 유리, 도자기, 플라스틱 등 재질에 상관없이 향არი 뚜껑, 접시, 화분받침 등 자유로운 분식을 장식을 시도할 수 있다. 이번 호에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활용소재인 PET병을 이용하여 미니 정원을 꾸며보고자 한다.

접시정원 이용시 주의할 점

PET병을 가로로 자르면 높이가 5cm정도의 접시 정원 용기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용기에는 배수구멍이 없으므로, 토양이 과습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입자가 큰 배지를 이용하여 꼭 배수층을 만들어야 하고 이때, 숯이나 하이드로클레이와 같은 정화기능이 있는 배지를 이용하면 정화기능까지

더할 수 있다.

용기의 깊이가 낮으므로 배양토가 충분히 담길 수 없지만, 용기 내 키 큰 식물을 중심으로 배양토를 높게 북돋워 식재하면 충분한 배양토가 이용될 수 있다. 생태형이 비슷한 식물들끼리 모아 심으면 관리하기 쉽고, 생태형에 따라 건조형, 적습형, 수경형 접시정원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외에도 화산석, 자연석, 자갈, 통 숯 등으로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

물을 줄 때는 스프레이와 같은 미세한 입자의 분무기를 이용하여 배지를 충분히 적신 후, 과도한 물은 입자가 커서 물길을 끊어주는 배수층(약 용기 높이의 10~20%) 아래쪽에서만 고이게 하여 배지로 물이 전달되는 것을 막아 주는 것이 물주기의 포인트다.



“
봄철 작은 화분에 피는 꽃들은
시원한 환경과 배지가
습한 것을 좋아하므로 배지가
마르지 않도록 주의함
”

4. PET병 접시정원의 관리를 잘 하려면...

꼭이 좁은 창턱이나 베란다, 실내 빛이 잘 드는 장식장이나 테이블 위에 배치한다.

PET병 접시정원은 배수구멍이 없는 용기이다. 한꺼번에 물을 많이 주는 경우, 배양토가 물을 흡수하기 전 배수층으로만 물이 고이므로, 압축식 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식물체 뿌리부분으로 천천히 물이 스며들도록 시간차를 두어 물을 준다. 천천히 공급한 물이 배수층으로만 고일만큼 충분히 준다. 혹시라도 물을 과다하게 주어 접시 용기가 물로 채워진 경우, 뿌리의 생육을 생각하여 물을 스며들게 하는 종이를 이용하여 과다한 물을 빨리 제거해 주는 것이 좋다. 관련 동영상으로 「네이버 TV캐스트(tvcast.naver.com)」에서 '나만의 미니정원 만들기'가 서비스 되고 있으므로, 많이 활용하기 바란다. 농촌진흥청 도시농업연구팀 (T. 031-290-6164)

▼ 책장과 잘 어울리는 PET병 미니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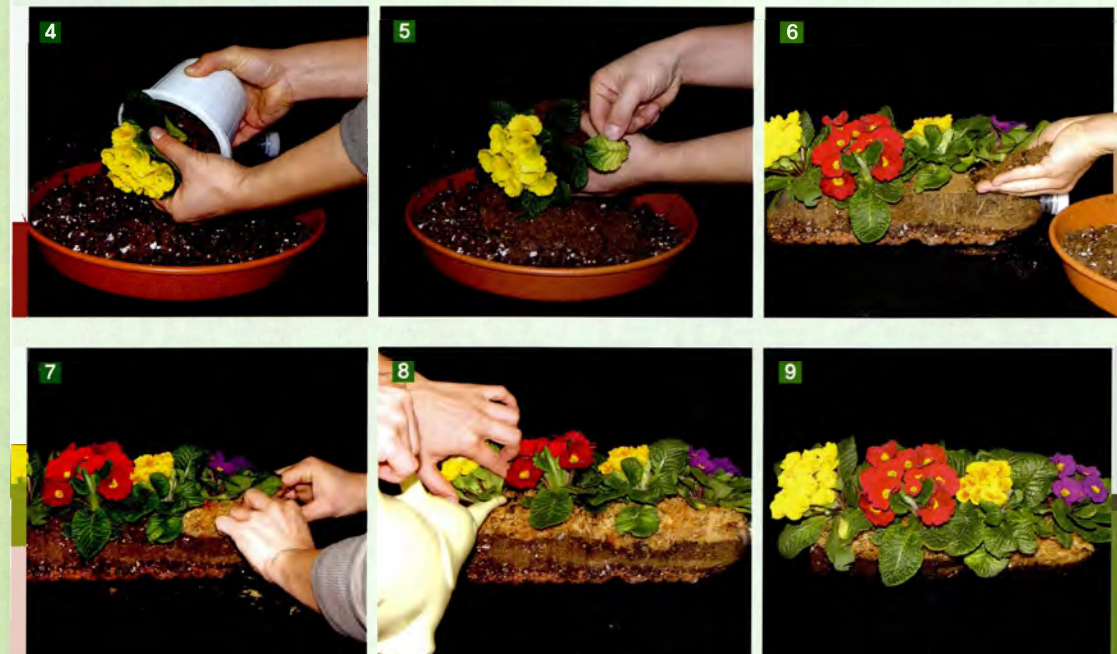


3. PET병 접시정원(Dish Garden)에 봄 향기 가득 담아볼까?

재활용 PET병을 이용한 용기에 봄에 피는 알록달록한 꽃 화분을 곁들이면 큰 수고를 들이지 않고 집 안 분위기를 색다르게 변신시킬 수 있다. 봄분위기 물씬 풍기는 미니정원을 만들어 좁은 베란다나 창틀에 놓아 둘 PET병 접시정원을 만들어 보자! 예쁜 PET병 접시정원을 만들어 따뜻한 사랑과 함께 이웃에게 봄을 선사해 보는 어떨까?

PET병 접시정원 만드는 순서

- ① 재활용 PET병, 프리물라, 배양토, 하이드로클레이를 준비함
- ② 하이드로클레이처럼 입자가 굵은 배지로 배수층(용기 높이의 10~20%)을 만들
- ③ 배수층 위로 배양토를 한층 올림(특히 입자 숯을 이용하는 경우 뿌리가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
- ④ 화분의 둘레를 마사지 하듯 잘 만져주어 분흙이 잘 떨어지게 준비한 후 식물을 받쳐 꺼냄
- ⑤ 식물의 잎 중 노란 잎이나 상한 잎을 정리하여 줌
- ⑥ PET병 안쪽으로 화분에서 꺼낸 프리물라를 색깔대로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한 후 배양토로 고정시킴
- ⑦ 충분히 적신 수태를 이용하여 표면을 가려주고, PET병 가장자리로는 막대기를 이용하여 수태를 안쪽으로 넣어줌
- ⑧ 식물의 잎을 위로 올려 배양토가 충분히 물을 머금을 수 있도록 함. 급히 물을 주지 말고 시간차를 두어 충분히 흡수시킴
- ⑨ 완성! 배수층 아래로만 물이 고일만큼 물을 공급함



다섯 개의 꽃잎이 모여 한 송이 꽃을 이루고 있는 후룩스, 별을 닮은 듯 오각형으로 뿔어나간 꽃잎이 어여쁘다. 길 따라 무리지어 심기도 하고, 화분에 심기도 한다. 풍성하게 피어나 꽃방망이를 연상시키듯 오밀조밀 줄기 위에 여러 꽃송이가 모여 핀다. 후룩스의 꽃말은 동의, 온화한다.

다섯 개의 꽃잎이 모여 한 송이 꽃을 이루고 있는 후룩스, 별을 닮은 듯 오각형으로 뿔어나간 꽃잎이 어여쁘다. 길 따라 무리지어 심기도 하고, 화분에 심기도 한다. 풍성하게 피어나 꽃방망이를 연상시키듯 오밀조밀 줄기 위에 여러 꽃송이가 모여 핀다. 후룩스의 꽃말은 동의, 온화한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하지만 예상외로 조경용으로 적용할 봄꽃은 그리 많지가 않다. 항상 새로운 봄꽃이 없을까 고민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갈증을 해결시켜줄 제품이 바로 후룩스 봄시리즈의 봄바람과 봄맞이이다. 봄바람과 봄맞이는 Phlox 속의 품종으로 후룩스와 꽃잔디의 중간형이라고 하면 이해가 쉽다. 두 품종 모두 단독연출의 기능뿐만 아니라 다른 소재



화려한 봄의 시작, 후룩스 봄바람, 후룩스 봄맞이.



와도 잘 어울려 활용가치가 매우 뛰어나다. 또한 꽃잔디와 개량후룩스와 혼식을 해주면 장기간에 걸쳐 연속하여 꽃을 볼 수 있는데, 5월경 꽃잔디, 속근사루비아 외에 꽃을 피우는 조경용 소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 활용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후룩스키우기 : 두 품종 모두 강건하여 물빠짐이 좋은 토양에 식재하면 절자라며 봄에 좋은 꽃을 보기 위해서는 밀거름을 충분히 잘 해주는 것이 좋다.

봄바람(Phlox sivericata 'Cloude of Perfume')
봄바람은 약 15~20cm정도 자라며 4월 말경부터 은은한 보라색의 꽃이 피기 시작하여 5월까지 꽃을 피우는데, 꽃이 피어있을 때는 향기가 매우 좋다. 군식하거나 화기가 다른 여름, 가을식물과 혼식을 하면 좋다. 특히 꽃잔디와 개량후룩스와 혼식하면 한 장소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연속해서 꽃을 볼 수 있다. 강건하여 물빠짐이 좋은 토양에 식재하면 잘 자란다. 비옥한 토양을 선호한다.

봄맞이(Phlox diverficata 'Cloude of Perfume')

봄맞이의 키는 30~40cm 정도 자라고 5월 초부터 6월까지 부드러운 진분홍색의 꽃을 피운다. 꽃이 매우 다화성이며 조밀하게 피어난다. 화기가 다른 여름, 가을식물과 혼식을 통해 경관 연출이 가능하다. 단독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다른 소재와도 잘 어울리는 특징이 있어 활용가치가 넓은 소재이다. 봄바람과 마찬가지로 특히 꽃잔디와 개량후룩스와 혼식하면 한 장소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연속해서 꽃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분당 천원정도 한다.

우리꽃(T. 031-634-0326)에서 구입할 수 있다.





김성도 동산농원대표의 화훼재배 30년 멘토가 되다, 국화를 만나다

글 취재 양순진



아직은 바람이 차다. 봄은 멀기 만 한 것 같다. 봄은 출엽시즌으로부터 오기 시작할까? 졸업과 입학이 물려있는 2,3월은 하우스재배 꽃들의 세상 나들이 날이다. 추운 겨울동안 품어낸 꽃송이들이 당당하게 선택받는 날, 그 날 만큼은 제값을 하는 날이다. 당당히 고개를 들고 자존심을 부려도 탓할 이 없다. 최고의 날이기 때문이다.

삼대가

국화를 재배하는 동산농원. 부모님으로부터 김성도 대표 부부, 또 그분의 자제분까지 국화에 폭 빠져 살고 있는 국화가족이다. 가족 모두 국화를 키우니 대물려 배우는 비법도 비법이거니와 애깃거리가 넘쳐난다. 국화에 관한 하나에서 열까지가 모두 소통이 되니 가업계승의 최대 장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취재를 간 날은 아침기온이 영하로 내려간 제법 쌀쌀한 날씨였다. 이전 시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이천시 호법면 동산리)한 동산농원은 그야말로 무르익은 봄날이었다. 겹겹이 싸매고 간 자람새가 무색할 만큼 후끈한 하우스 안은 국화세상이었다. 온통 초록의 세상이었다. 처음 본 낯선 환경에 감탄하고, 어떻게 이 많은 것을 관리하느냐가 궁금해졌다.

온 몸으로 말하고 있는 국화들은 이제 막 삼목한 상태부터 출하를 기다리고 있는 과정이 순차적으로 심어져 있었다. 지난 10월에 심은 국화는 꽃을 품어내 출하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밑으로의 과정이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농원은 우리가 생각한 소박하고 정겨운 국화와는 품격이 다른 고품격으로 다가왔다.

최첨단 시설하우스

반쯤열린 자루, 분홍, 노랑, 연두, 하양의 아름다운 국화송이가 피어 있는 시설 하우스 안은 최첨단시스템의 보고였다. 버튼하나만 누르면 국화에 맞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이 김대표의 손끝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 국화재배의 오랜 이력은 국화의 모습만 보고도 뭐가 부족한지를 금방 알 수 있는 달인

출하를 앞두고 있는 국화 옆에서... 김성도 동산농원 대표가 흐뭇한 미소로 포즈를 취해주었다.

의 경지였다. "식물과의 관계를 잘 알아야 국화농사를 잘 지을 수 있어요. 보면 무엇이 부족하지 않고 제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줘야 합니다." 김대표님은 사람도 관계맺기가 중요하듯, 식물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고 강조하셨다. 즉, "식물이 원하는 것을 바로 들어주고 채워줘야 합니다. 물이 부족한 지, 빛이 부족한지, 온도가 맞는지를 체크 보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셨다. 최적의 환경은 최첨단 시스템이 아닌 바로 김대표님의 오감에서 나옴을 알 수 있었다. 시설재배의 단점은 인건비는 절약할 수 있을지 몰라도 초기 투자비용과 시설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점이 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을 투자해야만 하는 순리를 깨닫는 순간이다.

화훼와의 인연

지금도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은 시골에서 농사짓는다는 것을 그리 달갑지 않게 여기는 세월이 있었다. 지금의 4.5집대 세대다. 어떻게 하면 농부의 아들에서 벗어나 번듯



한 직장에 다닐까를 고민하고 하나둘 도시로 해외로 나갔던 세월이었다. 김대표님도 중등 이라크에 산업역군으로 근무하다 1983년도 들어오셨다 한다. 부모님의 화훼농사를 봐 온 김대표는 다른 직업을 찾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화훼재배에 손이 갖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 한다.



LED 조명은 식물체에 꼭 필요한 파장의 빛만을 식물체에 쏘여 식물성육을 촉진한다. 또 조광은 6%, 무게는 15% 늘어 품질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 필요에 따라 개환시키도 조절할 수 있다.



시설하우스의 관리를 위한 여러 기계장치



(상) 국내 판매용, (하) 일본 수출용

처음엔 프리지아를 20년 정도 재배했는데, 연작피해(땅의 지력을 높이지 않고 같은 장소에 같은 작물을 계속 심는 경우에 입는 피해)가 커 국화로 품종을 바꿔 3600평에 총 20종 하우스의 대규모 재배농사가 되었다.

실패가 성공을 낳다

30년 농사의 길이 어디 성공뿐이었으랴. 실패가 성공을 낳듯 여러 번의 실패 경험이 노하우를 만들고 멘토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병들어 뽑아버리기도 하고 기체가 고장 남으로 인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화에게 가 피해를 입히는 일도 여러 번이라 한다. 화훼재배 30년은 병(국화에 있는 병)과의 싸움, 시설과의 싸움인 것이다. 묵묵히 그런 과정을 겪어냈기에 국화를 알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으로 거듭난 것이다.

이전에서 화훼재배에 몸담고 계신 분은 약 105명 정도이고 국화재배에 힘을 쓰고 계신 분은 9명이며 그 중 김대표님을 포함해 2분이 대단지 시설재배를 하고 계신다며 이천화훼협회장이기도 했던 몇 해 전의 얘기도 내비치셨다. 이천 명예시장이기도 하셨던 김대표는 경기농업CEO로서 이천의 화훼농업을 이끌고 가실 선도주자이다.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앞선 화훼농업 선진국인 네덜란드, 독일도 수차례 다녀오며, 선진시설을 견학한 데에서 오는 경험이 지금의 앞선 자리를 만들지 않았을까한다.

뿌리를 내려 적응한 초록의 국화가 '정그렇게 자라는 모습'과 '아름답게 꽃을 피워낸 국화'가 가장 예뻐 보이고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 김대표는 국화만큼이나 온화하고 인정있는 모습이었다.



철단시설에 바하인 등약과 기구들은 소박하다



옛날식 지시대



수확을 기다리는 국화꽃



(상) 실패할 국화순, 세심하게 적어놓은 작업일지, (하) 국화씨앗, 실험실(국화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실험하우스인)

20년 후엔 부농이 대세다

시대는 돌고 돈다는 말이 있듯, 앞으로 20년 후엔 부농이 대거 출현한다는 뉴스도 이제 심심찮게 접하는 세월로 변하고 있다. 상주의 참외, 고창의 복분자 농사를 짓는 분들 중에는 억대의 소득을 올린다는 얘기는 흔하다. 유럽은 이미 젊은 사람들이 농업을 선택해서 우수한 농업인재로 재탄생되고 있다한다. 우리의 길은 조금은 먼 거 같지만 장년층에서의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었다. 고향이나 살고 싶은 곳으로 아예 이사를 가서 땅을 일구는 모습은 익숙하다. 이런 귀농과 도

시의 텃밭프로그램이 출발이다. 좁은 땅과 높은 인구밀도는 정원이 딸린 작은 집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일률적인 아파트를 양산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후대에까지 물려진 상태다. 변화를 원하면 움직여야 한다. 귀농을 원한다면 내게 맞는 농사종류를 찾아내고 각 농업기술원, 지역 멘토를 찾아내 부지런히 움직이며 배워야 한다. 한번 짓는 농사가 아닌 이상 말이다.

지나호 마감으로 인해 늦게 방문함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친철히 안내해주고 설명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국화가 커가는 과정



1. 수확을 마치고 심종하는 모습
신록 : 식물의 가지나 잎 등 땅위를 없거나 잘라 흙에 꽃이 피도록 내리기 위해 완전한 개체로 자리매김

2. 심종한 국화가 뿌리를 내려 적응한 상태로 심종하는 과정이 이어진다

3. 시설하우스 안에 줄지어 심어져 있는 어린국화-손들이 부지런히 올라오고 있다

4. 봉우리가 되기 전까지 자란 노란 국화

5. 봉우리가 맺혀있는 국화

6. 국화꽃이 활짝 피기 전에 솎아준다. 심을 열린 봉우리가 솎아를 기다리고 있다

▲ 농약도 자동화 각종 센서와 환경기
기계포장
6중으로 된 하우스



글·사진 차병진
충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장

철갑을 두른 듯 깍지벌레

이제는 겨울도 힘을 잃어 가는 것 같아 보인다. 조금만 있으면 따뜻한 봄, 모든 것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봄이 돌아올 것이다. 언제나 돌아오는 겨울이 쓸쓸해 보이는 것은 겨울이 흠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겨울엔 많은 식물들이 사라지고, 남은 것들도 있을 다 떨어뜨리고 맨 가지로 서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쓸쓸한 겨울엔 식물, 특히 나뭇가지의

상태를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생육기 동안에는 잎에 가려 잘 보이지 않던 가지들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가지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탄성이 저절로 나오도록 신비한 구조를 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가끔 이상한 것들이 붙어있다. 마치 나무껍질의 무늬나 작은 눈같이 위장하고선... 이들을 나뭇가지의 일부로 오인하는 것은 이들의 생김새도 생김새지만, 대부분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

지만 문지르면 딱지 떨어지듯 떨어지는데, 떨어져 나간 껍데기 안쪽을 돋보기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운데에 작은 벌레가 있다. 바로 '깍지벌레' 다. 식물에 해를 주는 대부분의 곤충들이 그렇듯이 깍지벌레도 매우 다양하다. 깍지벌레들은 일반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살아가는데, 어떤 녀석들은 움직이기도 한다. 또, 대부분 아주 작지만 간혹 커다란 녀석들도 있다(사진 1). 하지만 공통



◀ 사진 1. 가지의 표면에 붙어서 수피의 일부처럼 보이는 깍지벌레.

▲ 사진 2. 크기가 크며 군집으로 모여 줄기표면을 거의 덮고 있는 깍지벌레.

사진 3. 깍지벌레 군집이 흡즙하여 말라죽은 잎

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은 껍데기, 즉 깍지로 덮여 있다는 것이다. '깍지'란 콩팥 같은 식물들의 꼬투리에서 알맹이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을 말한다라는 것은 모두가 알 것이다.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등으로 잘 알려진 말이다. 깍지벌레는 몸통머리를 비교적 두껍고 단단한 껍데기들이 덮여 싸고 있으니 그 이름이 참 잘 어울리는 해충이다. 이 녀석들이 깍지를 쓰고 있는 이유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깍지는 천적이나 환경변화 또는 농약으로부터 벌레를 보호하여 준다. 깍지는 크기뿐만 아니라 모양과 색깔 등도 매우 다양하다. 깍지의 모양은 공같이 둥그란 것부터 타원형, 불규칙형, 심지어는 깍지가 매우 빈약한 것까지 여러 종류가 있다. 표면의 모양도 밀랍같이 매끈하고 반질반질한 것부터 동심원 무늬가 있는 것, 용단같이 짧은 솜털들이 밀생한 것 등 다양하다. 색깔 역시 하얀 것부터 누런색, 붉은색, 갈색, 흑갈색 등 여러 가지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어떤 깍지벌레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깍지벌레는 '곤충강'에서도 '매미목'에 속하는 곤충들로서, 이런 습성을 가진 녀석들만 모아 '깍지벌레과'로 구분하며, 그 안에서 다시 생김새나 습성 등에 따라 '가루깍지벌레' '공깍지벌레' '송깍지벌레' '식나무깍지벌레' 등으로 분류한다. 벌레 자체의 크기는 보통 1mm 이내인데 몸체보다는 훨씬 큰 껍데기를 둘러싸고 있으므로 실제 겉으로 보이는 크기는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겉 크기는 일반적으로 1~5 mm 정도인데 더 큰 것들도 꽤 있다. 서로가 모여서 군집생활을 하여(사진 2) 몇 센티미터에 이르는 커다란 덩어리를 만들

기도 한다. 이 녀석들의 주둥이는 바늘같이 생겼으며, 이 주둥이를 식물조직 속에 박아 넣고 즙을 빨아 먹으며 살아간다. 이 작은 녀석 한 마리 한 마리가 빨아 먹는 즙액조차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으며, 실제로 이들은 집단으로 발생하므로 깍지벌레가 가해하기 시작하면 수세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그 부위 또는 식물 전체가 말라죽는 일도 드물지 않다(사진 3).

식물을 가해하는 부위는 주로 잎의 앞면 또는 뒷면(사진 4)을 비롯하여 싹초와 같이 조직이 연하고 부드러운 부분들이지만, 수피가 비교적 잘 발달된 나뭇가지들에서 흡즙을 하며 사는 깍지벌레도 많다. 심지어 솔껍질깍지벌레는 소나무 줄기의 두꺼운 수피 아래로 들어가 흡즙을 하기도 한다. 쥐동나무 같은 경우에는 쥐동밀깍지벌레가 가해하기 시작하면 이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스티로폼으로 수도관을 둘러싼 것같이 쥐동나무 가지를 하얀 솜이나 스티로폼으로 감아 놓은 것같이 보이기도 한다(사진 2). 또한, 깍지벌레도 진딧물이 흡즙할 때와 비슷하게 감로를 배설하여 그들 음병이 발생하기도 한다(사진 5). 종류가 매우 다양하듯이 깍지벌레는 기



▲ 사진 4. 호랑가시나무의 잎 뒷면에서 흡즙하고 있는 깍지벌레 약충.

주범위도 매우 넓어서 잔디 같은 화본과 식물은 물론, 선인장 등 다육식물(사진 6), 케일 등 채소류로부터 감나무, 배나무 등 과수류, 향나무 등 조경수목류, 소나무 등 산림수목류 등에 이르기까지 웬만한 식물은 모두 가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실내에서 키우는 화분식물은 물론 마당의 화훼식물에도 매우 자주 발생하여 문제가 되곤 한다.

사진 5. 깍지벌레가 잎에 배설한 갈로에 곰팡이가 서식하여 나타난 그을음병. ▶



▲ 사진 6. 다육식물인 꽃기린에 피해를 주고 있는 깍지벌레.

입제를 사용하면 간단하지만 살충제가 식물체에 잔존 할 수도 있으므로 식용식물에는 되도록이면 사용을 피한다.

깍지벌레 방제법

작물보호제 살포, 기계유 살포, 물리적 방제, 친환경방제법 등이 있다. 식물을 잘 살펴 적절하게 사용해야 확실한 효과가 있다.

1. 작물보호제(살충제) 살포

어느 병이나 해충과 같이 깍지벌레도 가장 좋은 방제법은 작물보호제를 살포하는 것이다. 깍지벌레는 깍지를 뒤집어쓰고 있으므로 약제의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크나, 다행스럽게도 깍지벌레를 죽일 수 있는 살충제들이 여러 종 개발되어 있다. 현재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깍지벌레 약제들을 <표1>에 정리하였다. 깍지벌레가 발생한 부위에 살포를 하려면 수화제나 액상수화제를 구입하여 사용설명서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이 약제들에 대해서는 알갱이로 되어있는 입제에 생산되고 있는데, 입제는 사용설명서에 따라 적당량을 화분에 뿌리고 물을 부어주면 뿌리가 약을 흡수하여 지상부로 이동하여 효과를 낸다.

입제를 사용하면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 노력도 덜 들지만, 식물체 내부에 살충제가 잔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식용식물에는 처리하지 말아야 하며, 단속되지 않는 어린이가 있는 곳에서도 처리를 피하는 것이 좋다.

2. 기계유 살포

기계유란 기계의 결속 또는 연결 부위 등에 윤활제로 사용하는 기름을 말한다. 이 기름을 살포하면 충체를 기름으로 피복하거나 기문 또는 피부 등으로 침투하여 질식사키므로 방제가 어려운 깍지벌레와 응애류의 방제에 주로 사용한다. 하지만, 연약한 조직 또는 수세가 약한 식물에 사용하거나, 살포액의 농도가 높았을 때는 약해가 잘 나오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싹이 나올 때, 특히 꽃이 필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기계유는 물에 잘 섞이지 않으므로 살포액을 만들기 쉽다. 따라서

물리적 방제법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잎, 특히 가지에 붙어있는 깍지벌레들을 긁어내어 없애는 것이다.

작물보호제로 생산한 제품을 농약상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현재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기계유 유제로는 삼공기계유(한국삼공), 경농기계유(경농), 동부기계유(동부한농), 이비엠기계유(인바이오텍), 아그로텍기계유(동부아그로텍), 아리기계유(농협케미컬), 선문기계유(선문그린사이언스), 동방기계유(동방아그로) 등이 있다. 깍지벌레를 없애는 방법 중 가장 확실한 방법 한 가지는 깍지벌레가 붙어있는 가지 등을 손으로 훑어서 제거하고 사위기 등으로 한 번 씻어내는 것이 식물의 원형을 보존하면서도 가장 확실하게 깍지벌레를 없애는 방법이다.

3. 물리적 방제

다른 방법들에 비하여 효과도 가장 확실하고 사람과 환경에 주는 악영향도 없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다만,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 결정적인 단점이다. 물리적 방제법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잎, 특히 가지에 붙어있는 깍지벌레들을 긁어내어 없애는 것이다. 깍지벌레는 식물체 표면에 달라붙어 있기는 하지만 문지르면 쉽게 떨어지는 편이다. 따라서 깍지벌레가 붙어있는 가지 등을 손으로 훑어서 제거하고 사위기 등으로 한 번 씻어내는 것이 식물의 원형을 보존하면서도 가장 확실하게 깍지벌레를 없애는 방법이다. 손으로 문지르는 것이 꺼려진다면 거즈나 면봉으로 떼어내는 것도 괜찮다. 다만, 이 때 잎을 떨어뜨린다거나 식물체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깍지벌레가 심하게 많이 붙어있는 잎은 떼어내고 가지는 잘라내

는 것이 좋다. 잘라낸 잎이나 가지, 긁어낸 깍지벌레 등은 그냥 버리면 또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비닐봉투에 넣어 완전히 밀봉하여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땅에 깊이 묻거나 태워버려야 한다.

밖에 남오일 등 식물로부터 추출한 정유계 등의 천연물질들이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일부는 제품으로 생산되어 유통되고 있으나 확실한 방제효과에 대해서는 보장되어 있지 않다.

4. 기타 친환경방제법

얼마 전 본 '가든인'에도 효능과 제조법이 소개되었던 '난황유'가 진딧물, 응애 뿐만 아니라 깍지벌레도 방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난황유는 달걀노른자와 식용유를 섞어서 만드는 것으로, 재료비도 매우 저렴하고 만들기도 쉬운 동시에 해로운 성분이 전혀 없는 방제제이므로 필요에 따라서 조제하여 사용할 만하다. 물에 마요네즈를 섞어서 뿌리는 것도 난황유와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으나 가능한 난황유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좋다.

깍지벌레의 천적으로서 어린 깍지벌레를 잡아먹는 풀잠자리류의 유충을 풀어놓아 방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천적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적당한 방법이다. 그

<표1>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깍지벌레 방제용 살충제

품목명	상표명	제조 및 판매사
디노테퓨란	오신	동부한농
	솔탄	농협케미컬
	팬텀	농협케미컬
	보스	경농
아세타미프리트	대포	한국삼공
	모스피란	경농
	마스그린	한국삼공
	신엑스	경농
이미다 클로프리트	랜드킹	아리스타
	코니도	동부한농, 바이엘
	아리아미다	농협케미컬
	코사인	동방아그로
클로티아니딘	코하노	바이엘
	베타랑	동방아그로
	노다지	경농
	어드마이어	바이엘
뷰프로페진 합제	독소리	동방아그로
	빅카드	한국삼공
	세시미	성보화학
	오메가	동부한농
뷰프로페진 합제	뉴명가	동부한농
	매머드	동부한농
	백승	바이엘
	바람탄	경농
뷰프로페진 합제	히어로	한국삼공

글 김지태, 사진제공 대림묘목농원



자연이 살아 숨쉬는
건강한 묘목 생산지
충북 옥천군
대림묘목농원

충북 옥천에 위치한 대림묘목농원은 묘목 특구지역에서 40여년간 좋은 묘목만 생산 재배해 온 곳이다. 묘목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나무를 자식처럼 키우면서 전국토를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는 '나무아빠'가 되는 게 대림묘목농원의 꿈이다. 그동안 전문적인 농업 방식으로 나무를 연구한 결과 현재 200여 수종의 묘목을 취급하고 있다. 또한 신품종 육성에 앞장선 결과 농림부장관 표창과 신지식농업인으로 선정되어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대림묘목농원으로부터 적합한 수종 선택과 나무심기, 관리 등에 관한 기본요령을 알아보기로 한다.

수종 선택과 나무심는 시기

좋은 묘목을 고르기 전에 우선 적합한 수종을 선택해야 한다. 수형이 아름다운 나무로는 주목, 소나무, 반송 등이 있고 그늘을 위한 나무로는 느티나무, 벚나무, 팽나무 등이 있다. 아름다운 꽃을 보려면 산딸나무, 번나무류, 이팝나무, 조팝나무, 자귀나무, 배롱나무 등을 고르면 된다. 울타리를 만들려면 쥐동나무, 회양목, 사철나무, 탕자나무, 향나무, 측백 등이 적당하다. 그밖에도 다양한 수종들이 있으니 용도와 크기를 감안해서 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게 좋다.

정원이 있는 가정의 경우 대추나무, 감나무, 살구나무, 앵무나무 등 유실수와 단풍나무, 자귀나무, 배롱나무, 주목 등 관상수 그리고 장미, 철쭉, 라일락, 매화, 영산홍 등 꽃나무 등으로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 배치하면 좋다.



정원이 있는 가정의 경우 대추나무, 감나무, 살구나무, 앵무나무 등 유실수와 단풍나무, 자귀나무, 배롱나무, 주목 등 관상수가 좋다

산림청에서는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2~3월의 평균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나무 심는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보통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 동안이 나무 심기 적당한 시기라고 볼 때 지역마다 미세하게 차이가 난다. 남부지역(제주, 전남, 경남)은 3월 1일~4월 10일, 중부지역(충·남북, 전북, 경북)은 3월 10일~4월 20일, 북부지역(서울, 경기, 강원)은 3월 20일~4월 30일을 권장하고 있다.

좋은 묘목 고르기

묘목은 잔뿌리가 많고 가지가 사방으로 고루 뻗어 있으며 눈이 큰 것이 좋다. 또한 병충해 피해가 없고 묘목에 상처가 없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꽃나무의 경우 꽃봉오리가 굵으면서 봉오리수가 적게 달린 것이 병충해에 강하고 꽃도 잘 핀다. 밤나무, 호두나무 등 유실수는 품종계통이 확실한 것이 좋다. 상록수는 잎이 짙푸른 것이 영양상태가 좋은 것이며 너무 웃자라거나 털 자란 것보다는 적당한 크기에 매끈하게 자란 것이 건강한 묘목이다. 또한 가지에 흠집이 있는 것은 병충해 피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점목묘의 경우 점목 부위를 흔들어 봐서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넓게 퍼져 있고 잔뿌리가 많은 것을 선택해야 옮겨 심어도 잘 자란다. 큰 나무(성목)는 발육이 양호하고 나무의 형태가 아름다우며 병충해를 받지 않고 분이 깨지거나 뿌리와 분이 분리되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

묘목과 성목 잘 고르는 방법

묘목	성목
1. 굴치 후 장기간 보관하지 않은 것 2. 잔뿌리(수염)가 많은 것 3. 가지가 사방으로 고루 뻗고 정아(定芽)눈이 큰 것 4. 병충해 피해가 없고 상처가 없는 것 5. 크기에 비례해 근원경과 뿌리가 균형있게 발육한 것 6. 유실수는 품종계통이 확실한 것	1. 미쳐 가지가 있을 것 2. 발육이 양호하고 수형이 정돈되어 있고 병충해를 받지 않은 것 3. 이식이 가능한 것 4. 뿌리의 확장이 좋고 잔뿌리가 많은 것 5. 토성, 수분, 기성환경 등에 따라 적응성이 좋은 것

나무 심기 전 준비사항

1. 묘목 운반

- 1) 묘목을 운반할 때는 뿌리가 햇볕에 쪼이거나 건조되지 않도록 한다.
- 2) 비를 맞거나 오래 쌓아두면 부패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 3) 묘목이 얼거나 어린 순이 부러지지 않도록 한다.

2. 가식(임시 심기)

- 1) 가식을 할 때는 끝 부분이 북쪽으로 향하게 한다.
- 2) 뿌리를 잘 퍼서 열을 지어 묻어 준다.
- 3) 상록수는 잎이 묻히지 않을 정도로 묻고 낙엽수는 묘목의 1/2 이상이 묻히도록 한다.
- 4)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단단히 밭아준다.

3. 식재 거리(간격)

- 1) 조경수 등 나무 생산 목적일 경우에는 품종의 특성, 묘목의 크기, 성장하는 속도, 판매시기에 따라 적합한 거리를 정한다. 가장 경제성이 높은 식재밀도는 식재 후 3~4년 내에 판매 또는 이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무는 서로 경쟁시킬 때 빨리 자라고 관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 2) 관상목일 경우에는 충분한 생육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4. 구덩이 파기

- 1) 구덩이 크기보다 넓게 지피물을 벗겨낸다.
- 2) 크기는 수종에 따라 다르지만 규격에 맞추어 충분히 파는 것이 좋다.
- 3) 겉흙과 속흙을 따로 모아놓고 돌과 낙엽 등을 가려낸다.
- 4) 묘목을 심기 전에 미리 파 두었다가 매운 흙이 가라앉은 후 심는 것이 좋다.
- 5) 메마른 땅은 넓고 깊게 파고 배수가 불량한 땅은 습해를 피하기 위해 낮게 판다.
- 6) 구덩이 하층부에는 완속퇴비와 색은 고운 흙을 잘 섞어서 채워되 화학비료는 주지 않는다.



기자가 돌아다본 도시농업의 발견

수왕석인물

일지화

미니석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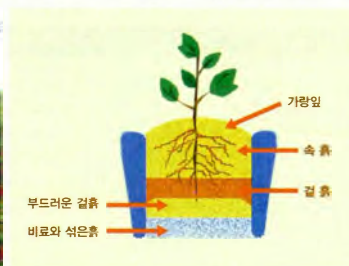
황금사발



나무 심는 방법

1. 수종과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른 봄 얼었던 땅이 풀리고 나무의 눈이 트기 전에 심는 것이 좋다.
2. 나무 심는 날은 흐리고 바람이 없는 날 아침이나 저녁이 좋다. 공중습도가 높으면 더욱 이상적이다.
3. 미리 구덩이를 파서 흙을 햇볕에 말려주면 살균이 되어 병충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
4. 구덩이 크기는 심을 나무의 뿌리가 퍼져있는 직경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5. 구덩이에 밑거름과 부드러운 겔흙을 5~6cm 정도 넣고 뿌리를 곧게 세운 다음 겔흙과 속흙을 섞어 2/3 정도 채운 후 나무를 약간 위로 잡아당기듯 하여 잘 붙여준다.
6. 물을 충분히 준 후 나머지 흙을 채우고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 짚이나 나뭇잎을 덮어준다. 이때 너무 깊이 심으면 뿌리 발육이 안되고 가지를 잘 뻗지 못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7. 뿌리 부분과 흙과의 공기층이 없도록 하기 위해 바닥층까지 포화상태에 이르도록 물을 흠뻑 주는 것이 나무의 활착에 좋다.
8. 큰나무는 지주목을 설치해 주면 좋다.
9. 유실수 묘목은 지상에서 30~50cm 정도 남기고 가지를 잘라주어 햇볕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수형 및 결실이 좋아진다.
10. 비료는 심은 해 가을에 준다. 산이나 정원에 심은 것은 산림용 고형복합비료를 주고 화분에 심은 것은 1~2년이 지난 후에 분재용 비료를 화분 위에 올려놓으면 된다.

인터넷 검색창에 나무 심는 방법을 입력하면, 블로그, 카페, 산림조합중앙회 등에서도 정보제공을 하고 있다.



3월 농사정보

자료출처 : 경기농업기술원

핵심사항		
■ 고추, 토마토, 가지 상추 육묘상 관리하기 ■ 씨고구마, 씨감자 온상 설치 ■ 완두 씨뿌리기 ■ 한지형 마늘 웃거름주기		
농가메모	상 / 중순	중 / 하순
식량작물	■ 못자리 자체 준비 – 모판흙, 상자, 법씨 등 ■ 벼 직파재배용 자체 준비 ■ 규산질비료, 퇴구비 주기, 논갈이 ■ 논보리 물벨도랑 정비, 객토한 논 종합개량 ■ 논콩재배 계약 ■ 조기재배 고구마 묘판관리 – 온도 : 23~25℃, 습도 : 70% 유지 ■ 고구마 온상만들기 – 온상면적 : 본밭10a당 10m² ■ 단옥수수 모 기르기 준비 ■ 조기재배 감자 묘판관리	■ 못자리 자체준비 ■ 이른 모내기용 법씨 담그기 ■ 벼 직파재배용 기계와 자체준비 ■ 객토한 논 종합개량과 관리 ■ 규산질, 퇴구비 주기, 봄 논갈이 ■ 논보리 물벨도랑 정비 ■ 발작을 종자, 전용복비 등 자체준비 ■ 고구마 냉상 자체준비 ■ 단옥수수 묘판관리 ■ 조기재배 감자 묘판관리 ■ 콩, 옥수수 종자 확보(10a당) – 콩 : 5~7kg(단경종 10kg) – 옥수수 : 2.0~2.5kg
원예작물	■ 단지형 마늘, 양파 웃거름 주기 ■ 일찍가꾸기 채소 묘판관리 ■ 일찍가꾸기 참외, 수박 파종(중부) ■ 시설하우스 환경관리 ■ 사과, 배 전정 끝내기(남부) ■ 과수 밑거름주기와 월동병해충 방제 ■ 시설과수 온·습도 관리 ■ 숙근화훼류 번식 ■ 느타리, 영지버섯재배와 배양관리 – 느타리 23~25℃, 영지 25~28℃ ■ 느타리버섯 불재배 균사배양	■ 고추, 아주 심을 포장준비 ■ 마늘, 양파 흑색썩음균핵병 발생포기 일찍 제거 ■ 마늘, 양파 등 월동채소 웃거름 주기 ■ 참외, 수박, 고추 등 과채류 묘판 관리 ■ 배추 파종과 시설하우스 환경관리 ■ 과수 석회유황합제 뿌리기 ■ 과수 높이집 품종 바꾸기 ■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채취 준비 ■ 무가은 시설과수 보존관리 ■ 숙근화훼류/나리 종구 아주심기 ■ 도라지, 더덕, 당귀, 시호, 만삼, 반하 파종 ■ 표고버섯 원목구입과 종균접종 준비
농업기계 생활자원	■ 농업기계 교육훈련 알아보고 신청하기 ■ 트랙터 사리 전 점검정비 – 앞바퀴 베어링 구리스 주입, 타이어 압력 – 클러치 및 브레이크 유격 점검 ■ 이앙기 배터리 상태와 액량 단자 부식 점검 – 기름이나 물이 새는 곳 없는 지 – 각종 와이어류 및 작동부에 기름 치기 ■ 가정원에 포장 씨앗준비	■ 트랙터 사용 전 점검정비 철저 – 연료필터, 공기청정기 청소 및 교환 – 유압포지션과 드래프트 컨트롤 작동상태 확인 ■ 이앙기 주행 및 이앙기 클러치 작동상태확인 ■ 화단 꽃씨 뿌리기, 분갈이하기



▲ 버리는 모종용 작은 화분에서 자라는 채소

상자텃밭을 잘 가꾸려면

상자로 텃밭을 만들려면 먼저 상자를 구해야 합니다. 흙을 적당하게 담을 수 있는 넉넉한 상자면 되는데요, 플라스틱, 나무, 스티로폼, 비닐백, 펠트병, 화분 등 주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을 마련합니다. 물이 잘 빠져야 하므로 바닥에 구멍이 없으면 적당히 뚫어줍니다. 흙은 주변 화원에서 사거나 마트에서 살 수 있는 배양토를 준비합니다. 식물은 직접 씨앗부터 길러도 되고, 종묘상이나 모종을 파는 데서 기호에 맞게 골라 외도 좋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상자에 옮겨 심

으면 됩니다. 식물이 자라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햇빛은 베란다에서 키울 경우 하루 4시간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남향집이면 더 좋겠지요. 동남향이나 동향은 연하게 옷자르거나 시간이 가면 물러지는 경우가 있더군요. 그래도 꼭 키우고 싶다면 옥상이나 난간, 아파크 났(창가에서 보이는 곳, 상자텃밭 몇 개 놓는다고 뭐라 할 수 없는 곳을 골라봅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곳을 찾아보면 됩니다. 작물일지를 쓸 수도 있지만 식물을 기르는 것이 즐거운 마음으로 길러야지 공부가 되면

귀찮아지므로 성향에 맞게 하면 됩니다. 그 보단 관심을 가지고 적당한 시기에 물을 주고 손을 뜯어주며 잘먹겠다는 말을 한마디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참! 환기도 필요합니다. 텃밭 앞에 있는 문을 직접 열기보단 앞뒤로 열어 전체적으로 통풍을 시키면 더 좋습니다.

상자로 텃밭만들기

씨앗을 심을 경우 : 상자로 텃밭을 만들 때는 상자 바닥에 구멍을 낸 후 상자 안쪽에 배수용 부직포를 깔아줍니다. 흙을 담은 후 물을 흙

상자텃밭

집에서 직접 채소를 길러 먹는다는 게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협소한 공간, 일조량 부족, 옷자람으로 인해 너무 연해져 버린 채소, 한두 번 따 먹고 나니 결국엔 없어져버리고 마는 경험은 채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일 겁니다. 힘들게 채소를 키우느니 그냥 사먹겠다며 돌아서는 분들에게 쉽게 키울 수 있는 텃밭을 소개합니다. 상자텃밭 몇 개만 만들어 채소를 키우면 식탁이 즐거워집니다. 직접 기른 채소를 뜯어 요리를 한다는 즐거운 마음에, 하루하루 채소 보는 재미가 쏠쏠하겠지요. 베란대에 햇빛 잘 드는 옥상에 우리 가족이 좋아하는 채소를 길러보세요. 초록이 주는 싱그러움이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에 물을 겁니다.

▼ 꽃바구니에 수태를 입혀 화분을 만들어 당근을 심었다.



▼ 플라스틱텃밭에서 자라나는 채소





상자텃밭에서 길러먹는 채소

비밀화분 안에 심어지고 있는 무와 브로콜리



화분에서 자라고 있는 무



플라스틱 화분에 서로 다양한 채소가 자라고 있다.

▼ 호박화분에 심어진 채소



땡 줍니다. 흙은 상자높이까지 채우지 말고 어느 정도 여유를 둡니다. 물을 주면 흙이 다 젖어 내려갑니다. 씨앗의 3배 정도 되는 깊이로 흙속에 심어 줍니다. 너무 많이 심으면 나중에 적당한 간격으로 솟아 내줘야 합니다. 모종을 사다 심을 경우 : 흙을 담은 상자에 적당한 간격을 두고 심습니다. 간격이 촘촘한 거보다 간격을 넉넉히 두면 식물이 충분히 자랄 수 있어 더 좋습니다.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물주기

식물을 키우기 어렵다고 하는 분들은 물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지면관수법을 활용해 보면 좋습니다. 다육식물이나 직접주면 안되는 식물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화분을 통째로 물에 담그는 건데요, 화분의 1/3 정도가 물에 잠기게 하는 방법입니다. 물이 상토 표면까지 올라오면 멈춥니다. 그럼 물을 따로 주지 않아도 식물이 잘 자란다고 하네요. 초보자에게 주의할 사항은 너무 과습되지 않게 화분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화분 속 식물은 과습에서 죽는 경우가 물을 주지 않아서 죽은 경우보다도 많다고 하니 주의바랍니다. 물은 오전 9~11시 사이에 주면 좋다고 합니다. 한낮에 물을 주면 열에 의해 어린묘는 죽을 수 있고 오후 늦게 주면 땅에서 습이 올라와 병이 올 수 있다하지만 베란다에서 키울 경우엔 겉흙이 한마디정도 말라있을 때, 4~5일에 한번씩 충분히 주면 좋다고 합니다. 배수구멍으로 물이 잘 빠지는 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수돗물은 바로 주는 것보다는 염소성분이 날아간 뒤에 주면 더 좋다고 합니다. 가는 물줄기로 나오는 물줄리개를 사용하면 됩니다.



▲ 여러 상자텃밭에서 자라고 있는 채소들



재미있는 호박 화분에 갖가지 채소들이 자라고있다. 웃고있는 호박 화분 때문에 채소들도 웃고 있는것 같다.



주전자화분에서 자라는 화분이 재미있다.

Gardenin Information

자연농약(작물보호제) 만들기

캐우는 채소에 진딧물이 생기면 써보세요. 인터넷에서 검증된 친환경 작물보호제들입니다.

- ① **목초액:** 나무를 태울 때 발생하는 연기가 외부 공기와 접촉하면서 액화된 목초액은 자연농약으로 이미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목초액은 진딧물 예방제로 쓸 수 있고, 진딧물 잡는 데는 약하게 감식초를 타서 뿌려도 됩니다. 그러면 진딧물 알이나 유충의 피부가 녹아버려 죽는다고 합니다.
- ② **마요네즈 희석액:** 마요네즈의 주원료인 기름과 달걀노른자에 살균, 살충 작용이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마요네즈 1: 물 200으로 섞어 흔들어 씹니다.
- ③ **달걀껍질 식초:** 먹고 난 달걀의 껍질도 농약의 재료가 됩니다. 잘 말린 달걀껍질을 현미식초를 달걀껍질이 잠길만큼 부어주면 됩니다. 숙성시킨 후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연역성도 길러주고, 뿌리도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 ④ **요구르트나 막걸리:** 작은 것 한 병 사서, 분무기에 넣어 충분히 뿌려주세요. 그러면 진딧물이 싹 없어 진딧입니다.
- ⑤ **우유를 분무기에 넣어 진딧물이 있는 곳에 뿌려주세요.** 그러면 감쪽같이 진딧물이 없어진답니다.

집에서 채소를 키울 경우엔 가족의 건강을 생각해서 직접 만든 작물 보호제를 뿌려주면 병충해로부터 안전하게 채소를 키울 수 있습니다.



텃밭채소 식탁을 물들이다



실내에서 키우면 겉잎도 속잎처럼 연하다. 작은 텃밭에 자란 적치커리가 수북하다.



한 잎, 한 잎 따는 재미가 그만이다. 겉잎부터 똑똑 따다. 잘 안 따지면 도구를 이용한다.



실내에서 자란 적치커리는 길쭉하게 자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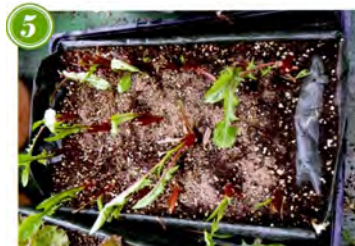


다 따고 난 뒤의 텃밭. 지저분한 잎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직접 가꾸 더 믿음직한 먹거리의 보급처 상자텃밭

초록이 그림자. 다 같은 초록이 아니거늘, 채소가 주는 초록은 다채롭고 이채롭다. 맛 또한 다양하다. 땅돼지 한 뼉 없는 도시인들에게 텃밭을 가꾼다는 것은 그림의 떡일까? 아니다. 작은 베란다에 좁은 창가에 상자텃밭, 재활용텃밭을 만들어 알콩달콩 채소키우는 맛을 가져보자.

작은 텃밭에 심은 채소 하나가 식탁을 풍성하게 한다. 직접 길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작은 텃밭은 적치커리뿐만 아니라 다른 채소류도 재배가 가능하다. 작은 텃밭에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수확하여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어먹는 재미는 기대 이상이다. 식물이 주는 싱싱함은 덤이다. 모종을 사다가 심어도 좋고, 씨앗부터 시작해도 좋다. 씨앗부터 심으면 기다리는 시간이 기니 모종상가에서 좋아하는 채소류를 몇 개만 사다가 심는 것도 좋다.



겉잎에서 중간 잎까지 뜯어낸 채소 발, 깨끗하게 정리해 놓은 상태. 겉잎만 뜯으면 일주일마다 한번씩, 중간 잎까지 뜯으면 일주일 이상 되면 새 순이 자라난다.



일주일 후면 다시 자라난다. 중간 잎까지 따냈는데도 제법 많이 자랐다.



집에 있는 소고기를 구워 기름기를 키친타월로 제거한다.



적치커리 위에 소고기를 놓고 된장을 얹어... 침 넣어가네~



마음도 풍성. 뭐해 먹을까? 머릿속은 요리가 두둥실~



깨끗하게 씻어 바구니에 담겨있는 치커리가 풍성해보인다.



적치커리 위에 구운 새송이버섯을 돌려놓고 구워 기름기를 뺀 소고기를 얹었다. 소스로는 꿀을 갈아 꿀을 넣어 사용했다.



아이도 쓴 줄기를 떼어내고 잎사귀부분으로 싸주면 맛있게 먹는다.

내가 길러 더 건강한 요리

적치커리 등심 새송이 샐러드

샐러드 재료
직접 재배한 적치커리, 소고기 등심, 새송이, 굴, 꿀, 설탕

적치커리 등심쌈 재료: 적치커리, 소고기, 된장

샐러드 순서

1. 깨끗하게 씻어 물기를 어느 정도 뺀 적치커리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놓는다.
2. 집에 있는 새송이버섯을 2mm 정도로 잘라 기름을 두르지 않고 프라이팬에서 굽는다.
3. 소고기를 굽는다. 완전히 익히는 게 좋다. 딱딱하게 굽지 않는다.
4. 구운 소고기는 키친타월로 꼭꼭 눌러 잎사귀 기름기를 어느 정도 제거한다.
5. 샐러드그릇이나 오목한 그릇에 적당히 잘라놓은 적치커리를 밑에 수북하게 담고, 그 위에 방 돌려 구운 새송이버섯을 담는다. 마지막으로 구워 기름기를 뺀 소고기를 담는다.
6. 노란 굴소스를 뿌려 맛있게 먹는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연신 맛있다 한다.

소스재료: 집에 있는 굴, 꿀, 설탕
집에 먹다 만 굴을 껍질을 깎아 다음 믹서에 꿀을 넣고 간다. 단맛은 기호에 맞게 조절하면 된다.

쌈

1. 깨끗하게 씻은 적치커리를 준비한다.
2. 등심은 뒷잎이 가시 정도로 살짝 굽는다.
3. 반으로 접은 적치커리 위에 소고기를 놓고 된장을 얹어 먹는다. 줄기는 빼고 잎사귀로만 쌈을 싸면 아이도 맛있게 먹는다.

쌈원장 재료: 집원장, 다진 파나 다진 양파, 다진 마늘, 볶은 깨, 참기름 한 두 방울을 넣고 섞는다. 짜지 않게 다진 파나 양파를 듬뿍 넣는다.

정원용 다년초 목록이 필요하다.

글·사진 손관화
천안연암대학 화훼디자인계열 교수(가드닝 전공, 플로리스트리 전공)
<http://sohn.yonam.ac.kr>

지난 주에 순천시민들로 구성된 그린게릴라들의 스물
가든디자이너 특강을 하러 갔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정도로 정원
문화에 관심이 높은 순천시민들을 위한
교육 중 한 프로그램이었다.

가상의 작은 공간을 평면도와 입면도,
3D로 표현하는 연습
을 하면서, 정원의 공
간을 나누어 길을 만
들고 교목을 심고 관
목으로 생물다양성을
만들었고 벤치를 배
치한 뒤 초화류를 배
치하기 시작하자 '순
천에서 초화류는 어
디서 구매해요?' 라
고 사람들이 물어보
았다. '5일장에서 구
해요', '살 데가 없어
요', '순천에 큰 화원이 하나 있는데
그 곳에서 구매해요' 라고들 했다.
이것은 순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원
을 만들 때 필요한 초화류를 구매할 경
우에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대부분 부딪치게 되는 문제이다. 필자도
학생들의 실습정원을 만들 때나 가드닝
전시를 준비할 때면 서울로 초화류를
구입하러 간다. 주변에서 살 수 있는 종
류는 몇 가지 안 되고 인터넷 구매로 구
입할 수 있는 식물들은 묘목이나 근근류,
다년초 뿌리, 또는 종자 정도만 가능하
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초화류, 특히
정원용 초화류의 중심이 되
는 다년초는 구입 가능 여부
와 그 식물에 대한 정확한 자
료를 얻기 어렵다. 꽃이 아름
다운 신품종 다년초는 가든
디자이너가 발품을 팔아 직
접 화훼시장을 다니면서 조
사하거나 인터넷을 조사하여
자료를 얻어야 한다.**

여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초화류, 특
히 정원용 초화류의
중심이 되는 다년초
는 구입 가능 여부와
그 식물에 대한 정확
한 자료를 얻기 어렵
다. 특히 자생식물보
다 꽃이 아름다운 신
품종 다년초는 가든
디자이너가 발품을
팔아 직접 화훼시장
을 다니면서 조사하
거나 인터넷을 조사하여 자료를 얻어
야 한다. 정확한 학명과 일반명, 초장,
초폭, 화색, 개화기 등의 자료를 구하기
도 어려우며, 또 있다 하더라도 조사한
시기에는 구입 가능하나 실제 식물구매
시에는 없는 경우가 많다. 또 인터넷으
로 구입처를 알았다 해도 필요한 다년
초를 거리가 먼 여러 장소에서 구입해야
한다면 운임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대
규모 구매가 아닌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구매가 어렵다.

순천의 그린게릴라들과의 특강에서 정



베로니카스트럼(Veronicastrum) 등



살비아(Salvia), 알리움(Allium) 등



루드베키아(Rudbeckia fulgida), 여꾸(Persicaria
amplexicaulis Fretail), 쉐조스타일리스(Schizo-
stylis) 등



원꽃배초향(Agastache), 모나르다(Monarda) 등



검은이삭(Stachys byzantina) 등



오스트리아 빈의 궁전(Schloss Schönbrunn)의 정원



아케미라(Alchemilla mollis), 블루산비아 등



알리움(Allium sphaerocephalum)



에키나세아(Echinacea), 스티파(Stipa calamagrostis) 등

정원 디자인을 위한 초화류 선정 시 고려해야 할 내용은 크게 용도, 식재 환경 조건에 맞는 식물의 생육 특성, 그리고 크기(초장과 초폭), 형태, 질감, 화색, 개화기의 6가지 시각적 특성과 후각적 특성인 방향성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원에 필요한 다년초를 선정하라고 하자 다들 가지고 있는 참고자료나 스마트폰으로 다년초를 찾으면서 정원디자인을 위해 필요한 좋은 목록이 있는지 궁금해 하였다. 정원 디자인을 위한 초화류 선정 시 고려해야 할 내용은 크게 용도, 식재 환경 조건에 맞는 식물의 생육 특성, 그리고 크기(초장과

초폭), 형태, 질감, 화색, 개화기의 6가지 시각적 특성과 후각적 특성인 방향성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시각적인 특성 중 가장 실용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초장, 화색, 개화기의 3가지 요소이다. 게다가 혼식할 경우 같이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체크해야 한다. 작년에 인터넷으로 국내 100여 개 화훼종묘 회사와 초화류 생산농원, 그리고 60여개의 상업적 정원, 식물원, 수목원의 홈페이지를 조사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하고 있는 정원용 다년초에 대해 사진, 학명, 일반명, 화색, 초장, 개화기의 6가지 내용을 게시하고 있는 업체를 조사하였다. 조사한 국내 160개 업체 중 (주)대한종묘조경, 한택식물원, 우리꽃의 세 업체만이 다수의 다년초에 대한 6가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었는데 그 수를 조사한 결과 각각 232,

660, 460 종류의 다년초를 보유 또는 생산, 판매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사한 세 업체는 보유 또는 생산하는 식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지만 정원 디자인에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다년초의 용도, 식재환경에 맞는 생육 특성, 그리고 시각적 특성에 대한 모든 항목을 게시하고 있지 않았으며 또 업체에 따라 게시 또는 검색 방식이 다르고 학명과 일반명에 대한 오류가 있으며 초장, 화색, 개화기를 서로 다르게 제시한 식물이 많았다. 세 업체의 전체 다년초를 생육 특성이 뚜렷한 1급류, 암석원식물, 그래스류, 고사리, 수생식물을 분리하여 나머지 다년초와 함께 6개 군으로 구분한 뒤 각 특성별 다년초를 화색, 초장, 개화기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하여 기초적인 목록을 만들어 보았다(참고: 손관화, 2013, 국내 정원용



아스틸베(Astilbe), 군데라(Gunnera) 등



라벤다(Lavandula)



미스(Miscanthus), 호스타(Hosta) 등



페로브스키아(Perovskia) 등

“ **외국에서 도입되는 다년초의 신품종이나 자생식물을 이용할 시엔 정확한 식물표기 일반명, 학명이 필요하다.** ”

한택식물원을 한달에 세 번 12개월을 다닌 후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중이다. 조사를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자 너무 힘들어 오늘은 꽃이 다 저버리고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 을 정도였다. 앞으로 손쉬운 식재계획을 위해 더 정확한 정원용 다년초 목록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다.



스카비오사(Scabiosa), 살비아(Salvia), 아가스타(Agastache), 제라늄(Geranium), 세이지(Sage), 라벤다(Lavandula) 등

다년생 초화류의 생육 특성별 화색, 초장, 개화기 분류, 한국인간식물원 경학회지 16:383~400.) 외국에서 도입되는 많은 다년초의 신품종을 비롯하여 자생식물을 이용할 때도 이제는 정확한 식물 표기가 필요한 만큼 일반명 외 학명이 기재되어야 하는데 세 업체의 자료뿐 아니라 식물을 검색해보면 동일한 식물에 대해 일반명은 물론이고 학명의 오류가 많다. 또 식물마다 여러 개의 학명을 가진 것이 많아 혼동되는 식물이 다수다. 게다가 화색, 개화기, 초장 또한 자료마다 다른 것이 많기 때문에 기초 목록을 시작으로 정확한 자료를 업그레이드해야 할 것 같다. 외국의 정원식물 도감이나 종묘회사 카탈로그를 보면 다년초의 생육환경과 관련된 자료뿐만 아니라 초장과 초폭의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어 비교적 손쉽게 식재계획을 할 수 있다. 또 화단을 만들 때 혼식시 서로 맞는 패턴 또는 동반식물의 목록까지 수록되어 있어 경험이 많지 않은 디자이너에게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외국의 도감도 수록된 내용, 특히 개화기를 도감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니면서 조사해보라 충고한다. 기후가 바뀌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예전 자료를 그대로 옮긴 자료가 많다는 것이다. 작년에 정원용 다년초의 개화기를 직접 조사해보고자 물향기수목원과

기념 일이나 무엇인가를 축하해야 하는 특별한 날에 꽃을 사는 건 누구나 한번쯤은 해본 일일 것이다. 하지만 식물을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 이외에 매일 식물들로 집을 장식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될까? 물론 집집마다 베란다에 화분 하나씩은 가지고 있겠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꽃이나 식물 소비가 적은 것은 확실하다.

농식품부 자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연간 1만 7천원을 꽃을 사는데 소비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웃 일본의 3분의 1도 안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정원의 나라 영국은 어떨까?

토요일 아침, 동네 타운센터에는 어김없이 조그마한 장이 열린다. 여러 가지 식물들이며 집에서 직접 만든 빵과 디저트 등 우리나라 시골 시장과 같은 분위기다. 이중에서도 어느 장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식물을 파는 꽃집이다. 농장에서 갓 잘라온 것 같이 싱싱해 보이는 분화(Cutting flower)부터 화분에 담은 식물까지 전시되어 시장 분위기를 화사하게 만들어 준다.

정원은 누구나가 갖기를 원하지만 생활은 그리 녹록치 않다. 정원을 만들 공간도 없고 가꿀 시간조차 태부족이다. 화분을 사는 건 그렇다하더라도 꽃을 사서 집안을 장식한다는 것은 연감생심이다. 식물(꽃, 정원, 화분)을 가끔으로써 얻는 정신적 위안은 대단하다. 다른 사람을 위해 꽃을 선물했다면 오늘날만큼 나를 위해 꽃 한 송이, 작은 화분 한 개를 마련해 보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나 주차장 옆, 식료품 장에서도 어김없이 꽃과 화분들을 판다.

어떻게 정원을 즐겨야 할까?

글·사진 서수현 가든디자이너

식물부터 즐겨보자

“꽃이 주는 위안을 알기 때문일까! 영국에 사는 보통사람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꽃을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 꽃을 산다.”





영국의 길거리 정에는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 빵, 디저트, 여러 맛으로 피클을 만든 올리브 그리고 꽃집이다.



오래 키울 수 있는 작고 예쁜 화분, 키우기 쉬운 화분부터 집안에 들여놓아 보자. 이것이 정원을 즐기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식물들은 누군가의 기념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꽃을 사는 자신들을 위한 것이다. 시장에 나온 식물들이 가격이 싸서 많이 사는 것일까? 솔직히 가격이 그렇게 싸지도 않다. 꽃을 살 돈이면 디저트로 케이크 하나 더 살 수도 있다. 그러나 영국인들의 식물 사랑이 남달라서일까? 풍족하지 못한 유학생들을 하면서도 가끔 이런 영국인들의 모습이 부러워 나도 한번씩 꽃 한 다발을 사서 고이 모셔둔 적이 있다. 하지만 한국에 돌아오니 이렇게 주변에서 꽃을 보고 한눈에 반해 나도 모르게 꽃을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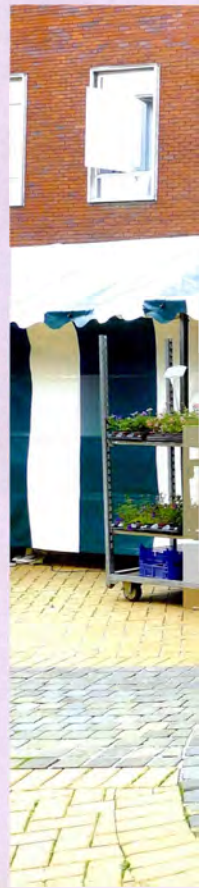
버리는 그런 소비는 줄어든 것이 확실하다. 강의가 있는 날 준비물로 식물을 사러 가는 것 이외에 식물을 접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다. 늘 주변에 식물들이 눈에 띄었던 환경과는 거리가 멀었다. 석사 수업은 일주일에 이틀만 있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에는 정원 여행을 가거나 첼스포드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다. 특히 주말에 여행을 가면 사람들이 북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더 좋았다. 문화를 느끼기 위해 그 나라 사람들의 생활상을 엿보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정원 여행을 위해 Corsham이라는 동네 들렀을 때에도 타운센터에 장이 열렸다. 지역마다 파는 것이 다르고 모습도 다르지만, 식물은 빠지지 않는다. 식물 하나를 사면서도 자신들의 집을 꾸밀 생각에 즐거운지 참 해맑다. '정말 이 사람들은 식물을 사는 것이 생활화 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청원디자인을 공부하는 나도 '정원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까?' 보다 '내 생활이 식물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도 하게 만들었다. 확실히 눈에 보이고 안보이고의 차이가 큰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선물을 줄 때만 꽃집에 들르는 경우가 많고 그것마저도 요즘엔 인터넷으로 주문을 한다. 실제로 식물을 보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 이런 환경에서 정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거나 정신 건강에 좋으니 '자연과 함께 하세요' 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영국에서는 식물을 살 수 있는 곳이 참 많았다. 사람들이 늘 접하는 장소, 즉 지하철이나 기차 역 앞이나 편의점 같은 곳처럼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늘 꽃을 파는 곳이 있었다. 선물을 하는 꽃다발처럼 저장하지 않은 그저 신문지에 돌돌 말린 한 다발이면 충분하다. 혹은 오래 키울 수 있는 작고 예쁜 그리고 키우기 쉬운 화분부터 집안에 들여놓아 보자. 이것이 정원을 즐기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Gardenin Information

책상위에 놓으면 좋은 화분, 꽃	다육식물, 고무나무, 행운목, 허브류, 호아, 선인장, 야기철, 호접란, 카네이션, 카라 등
집안에 놓으면 좋은 꽃	꽃보다 아름다운 관엽식물 : 피토니아, 알로카시아, 율마, 트리안, 네프롤레피스, 폴리서스 등 화사한 꽃이 피는 식물 : 안시리움, 미니장미, 아프리카 바이올렛, 시클라멘, 포인세티아, 칼라코에 등
정원에 심으면 복을 부르는 나무	회화나무, 자귀나무, 배롱나무, 집안엔 관엽식물 등
2,3월에 좋은 꽃들	튤립, 수선화, 포피(망귀비), 스톡꽃 등

가까운 화원에 가면 쉽게 살 수 있다. 나를 위해 작은 화분 하나를 마련하면 2014년 3월엔 화사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Chelmsford town centre
첼스포드 타운센터에 열린 시장.
늘 꽃을 파는 가게가 들어서 있다.
주말이면 부모님 손을 잡고 시내 중심가로 산책 나온 아이들, 두 손을 꼭 잡고
귀경 나으신 노부부 들어 많다.



할머니의 굽은 허리와 흰머리를 닮은 할미꽃

할미꽃, 어찌지 정이 가는 꽃이다.
삶을 달란듯 한, 미련 없는 듯
수줍게 고개 숙이고 있는
할미꽃은 우리에게 할머니를 닮았다.
한세상 잘 살았다고 뒀던길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말하려는 것처럼 말이다.
꽃이 지면 풀어헤친 하얀 머리카락처럼
나풀거리는 모습 또한 닮지 않았나싶다.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던 우리 꽃

할미꽃은 햇볕이 잘 드는 나지막한 동산
이라든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던 꽃이
었다. 전형적인 양지식물이기 때문에, 햇
빛을 잘 받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쉽게 자랄 수 있는 우리 꽃이다. 흔히 할
미꽃은 묘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는 해마다 한 번씩 깎아주는 묘지에 햇
빛이 잘 들어서 할미꽃이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기 때문이

다. 과거에는 집 주변
이나 야산에서 많
이 보였던 할미
꽃이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말들을 종종 한
다. 예전에는 산에

서 나무를 해다가 난방
용으로 썼기 때문에 햇빛이 잘
들어서 할미꽃이 많았고, 지금은 산에
나무가 우거져서 할미꽃이 저절로 설 자
리를 잃게 된 것이다.

할미꽃의 생김새 관찰



할미꽃은 꽃이 필 때 고개를 숙이고 땅
을 향해 핀다. 할미꽃의 꽃줄기가 할머니
의 굽은 허리를 닮아 할미꽃이라는 이름
이 지어졌다. 꽃이 지고 열매가 달릴 때
쭈뼌이 할미꽃은 신기하게도 고개를 하
늘로 쳐들고 똑바로 선다. 종자가 다 익
어 날아갈 때다. 이때는 할머니의 흰머리
가 산발한 것처럼 보인다.

기본종의 흰 할미꽃은 꽃이 필 때 꽃
색이 적자색이고, 꽃잎 끝이 약간만 벌
어져서 땅을 보고 피는 것이 특징

이다. 그래서 할미꽃을 한자로
는 백두옹(白頭翁)이라 쓴
다. 곧, 머리가 하얀 노인
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손녀 사랑을 듬뿍 담 은 꽃

옛날, 어느 깊은 외진 산골에서
할머니가 두 손녀를 데리고 살고 있었다.
할머니는 가난했지만 부지런히 일을 하
며 어렵게 두 손녀를 키웠다. 큰손녀는
얼굴이 예쁜 편이었지만 마음씨는 고약
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런데 작은손녀

는 별로 예쁜 얼굴은 아니었지만 마음 씩씩이가 굽고 착했다. 손녀
들을 시집보낸 지도 몇 년쯤 되었을 때 할머니는 홀로 쓸쓸한 마
음을 달래면서 지내고 있었다. 할머니는 이제 너무 늙고 병까지 들
어 도저히 혼자서 살 수가 없었다. 큰손녀를
보러 갔지만 문전에서 박대를 당
한 할머니가 작은손녀를 보러 가던
중 작은손녀의 집이 바라다 보이는
고갯마루에서 돌아가셨다. 양지바른
곳에 장사를 지냈더니, 그 곳에 매년
작은손녀를 보러오는 할머니 같은 꽃
이 피었다고 해서 할미꽃이라는 이름
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손녀가 그
리워 연약하고 불평한 몸을 이끌고 손
녀의 집을 찾아 산길을 건넌 할머니가
끝내 손녀를 못보고 산언덕에서 돌아가
다는 할미꽃에 얹힌 슬픈 전설 때문인지 많은 분들이 할미꽃은 금
방 알아본다. 꽃줄기가 굽은 모습이 할머니 같다는 동 열매 맺어 하
얇게 부른 모습이 할머니 같다는 동 자신들의 할머니 모습을 떠올
리는지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도 쏟아진다.

할미꽃의 종류별 특징 관찰

야산이나 무덤가 양지바른 곳에서 자라는 할미꽃 종류들은 대개 꽃
이 땅을 보고 피었다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고개를 하늘로 향해
쳐든다. 보통 할미꽃은 꽃이 적자색이지만, 노랑할미꽃은 꽃이 황색
이고 분홍할미꽃은 꽃이 분홍색이다. 북부지방의 높은 지대에서 자

라는 산할미꽃은 꽃이 홍자색이면서 옆 또는 위를 향해서 꽃이 핀
다. 한국특산식물인 동강할미꽃은 정선, 영월, 평창의 동강 바위절
벽 돌틈에

서 자라는 것이 특징인 식물이다. 세계 다
른 지역에서는 찾을 수 없고 오로지 한국
에서만 볼 수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꽃이
다. 동강할미꽃은 색깔도 제법 다양하다.
자주색, 홍자색, 보라색, 흰색 등으로 피
는데, 꽃이 필 때 꽃잎이 활짝 벌어지면
서 하늘을 향해서 핀다. 할미꽃 종류들
중에서는 가장 늠름해 보이고 활기가
있어서 좋다. 동강에 댐을 막으려 할
때 동강할미꽃 보호 때문에 댐을 막
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 꽃에 대한 관심도는 대단한 편이

다. 동강할미꽃은 자생지에서 흙에서 자라는 것은 볼 수 없고, 전부
석회암 지대의 바위틈에 뿌리를 박고 자라는 것으로 보아 석회암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자라는 식물이라 생각이 된다.

할미꽃의 민간요법

할미꽃의 뿌리는 무척 독성이 강한 식물이다. 옛날에는 뱀간에 구더
기가 많이 발생하면 이 할미꽃을 몇 뿌리 뽑아다가 넣었다고 한다.
할미꽃 뿌리의 독성 때문에, 구더기의 발생이 억제되고, 민간에서는
지사제나 학질을 치료하는 데에도 썼다고 한다. 간혹 충치로 고생하
는 분들은 이 할미꽃 뿌리를 충치구멍에 맞게 잘라서 끼우기도 하
는 등, 치통이나 신경통 치료에 썼다는 기록이 있다.

환경운동가,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태어나지 않는다. 어렸을 때부터 부지런히 관련영화나 책, 현장을 다녀야만 깨닫고 물드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환경영화를 무턱대고 보라 하면, 배워야 한다 하면, 지겨워 할 수도 있다. 자연스럽게 재미있는 만화영화를 보여주는 것만으로 만족해야만 스스로 깨우치게 된다. 훗날 환경과 관련 있는 일에 관심이 있길 바란다면 아이들에게 재미와 환경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접해보자. 저절로 되는 공부 될 것이다.



이 영화에서 오늘 날 환경문제의 기본철학을 근사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인간 생활방식을 고수해 나간다면 엄청난 기후변화의 재앙이 닥친다고 기후변화학자들은 이야기한다. 하지만 한 사람이 너무 한 그루라도 심는다면, 환경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기후변화의 재앙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꽃과 나무를 무심코 심는 것도 좋다. 단순히 부모가 하니 아이가 따라서 심는 것도 좋다. 하지만 자연을 가꾸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법과 이유를 스스로 깨닫는 것처럼 '지속가능' 교육은 없을 것이다. 아이들이 환경의 소중함을 비로소 이해하고 능동적인 미래의 '가든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봄학기를 맞이하여 아이들과 '환경애니메이션'을 섭렵해 보는 것은 어떨까?

3월 신학기에는 아이와 함께 환경애니메이션을

얼마 전 미국 디즈니사에서 제작한 '겨울왕국'이라는 애니메이션이 극장가를 휩쓸었던 적이 있다. 어렸을 적부터 마법에 걸려 모든 사물을 얼음으로 얼려버리는 힘을 가진 주인공 엘사는 동생인 안나를 어릴 적 얼려 죽일 뻔 하고 자신의 고향마을을 흑한의 겨울나라로 만든다. 하지만 언니를 향한 안나의 사랑으로 모든 얼었던 것을 녹이고 모두가 두려워했던 엘사의 마법도 아름다운 눈꽃을 뿌리는 마술로 비춰진다.

미트릭스 (The Meatrix)

2003/2006년 11분 / 애니메이션 / 감독: 루이스 폭스

총 3편으로 구성된 미트릭스는 영화 매트릭스를 풍자, 의인화하여 만든 환경애니메이션이다. 매트릭스영화에서처럼 주인공이름은 '레오'이며 아가페지역이다. 현명한 소 '무피우스'와 '치키티라'라는 닭은 공장형 축산업의 위험성과 육류의 대량소비에 따른 피해에 대해 환경호르몬, 항생제 과다사용 등의 구체적인 설명을 곁들여 아이들의 이해를 돕는다. 인구의 증가가 산업의 개발로 이어지고 고기 소비가 늘어나면서 좁은 공간에 갇혀 대량사육을 당하고 있는 가축들, 대량사육을 당하는 가축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질병에 약해서 많은 양의 항생제가 들어간 먹이를 먹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고기를 섭취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고 있는지, 이 애니메이션에서 날날이 설명해준다.

또한 공장형 축산업은 시나 구제역과 같은 가축 질병이 발병하면 손쓸 틈 없이 큰 피해로 확산되어 어떠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지 아이들과 함께 보는 부모들에게도 교육이 되는 애니메이션이다. 고기의 소비를 완전히 억제할 수는 없지만 조금만 소비를 줄인다면 조금 더 친환경적인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점과, 자연에서 자란 건강한 고기를 먹지는 우리들의 건강도 그리고 지구의 건강도 좋아질 수 있다는 우리 매일의 생활습관과 방식을 되돌아 보게 하는 환경애니메이션이다.

농장의 금요일(Fridays at the Farm)

2006년 / 19분 / 다큐멘터리 / 감독: 리처드 파워 호프먼

농장의 금요일은 알록달록한 색과 그림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은 아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직접 주인공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의 흥미를 북돋아 준다. 본 필름의 감독이자 미국에 사는 리처드는 식사 때마다 "우리가 화학물질을 많이 써서 키운 것이라면 어떻게 하지?", 지금 먹는 이 생선이 유전자변형(GMO) 처리가 된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함으로 결국 직접 농사를 짓고 농산물을 생산하기로 결심한다.

환경영화 '농장의 금요일'은 리처드씨가 일 년간 주말농장에서 보낸 생활을 담고 있다. 결코 쉽지 않은 농사일이었지만 가족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노력한 결과 싱싱하고 맛 좋은 농산물을 얻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영화에 나오는 리처드씨 아이들은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아버지를 통해, 그리고 몸소 체험하며 꽃도 심고 먹을거리도 심고 또 수확하며 배운다. 땅이 없어 농사를 못짓는다 말은 이제 변명일 뿐이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상추나 방울토마토를 키우는 법, 아파트 옥상이나 학교 화단에서 오이, 당근 등의 채소를 키울 수 있는 법, 3월에는 안전한 먹을거리도 얻고 나와 내 가족의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도시농업의 주인공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가든인'이 되기를 바란다.

에코플래닛

2012년 / 태국 / 애니메이션 / 감독: 콤포 캄군니르드

에너지절약과 환경에 대한 인식을 키워줄 수 있는 애니메이션 '에코플래닛'이 영화는 지구를 파괴하는 치명적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는 꼬마 영웅 삼총사를 그리는 이야기다. 미국 대통령으로 나오는 어린이 주인공 '샘'은 평소 소고집이 세기로 유명하다. 하루는 고집대로 행동하다 깊은 산 속에서 길을 잃고 만 샘, 다행히도 원주민 친구 '노바'와 자연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호르페'는 쓰러진 샘을 정성껏 보살피지만 샘은 오히려 심술을 부리며 집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한다. 하지만 이 날, 하늘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샘은 노바의 할머니로부터 인간들의 이기심으로 훼손된 오존층의 파괴로 지구가 곧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 길로 지구를 파괴하는 치명적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는 험한 모험을 떠난다. 지구를 무사히 구해 낼 수 있을지, 아이들과 함께 흥미진진한 샘의 모험에 함께 빠져보자.



로렉스



2012 / 미국 / 애니메이션 / 감독: 크리스 리노드, 카일 발다
별레없고 세균없이 완벽해 보이는 세상 속에 갇힌 사람들. 모든 것이 기계로 조종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가는 스니드빌 사람들. 이 곳은 공기도, 풀도, 바람도 모두 인공적으로 만들어 낸 최첨단 도시이다. 하지만 주인공 테드의 옆집에 사는 소녀 오드리는 '살아있는 나무'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다. 그리고 오드리를 좋아하는 테드는 그녀가 간절히 원하는 '살아있는 나무'를 찾기 위해 아무도 가 본적이 없다는 스니드빌 바깥 세상으로 나간다. 그 곳에서 나무와 로렉스에 얽힌 비밀을 알게 된 테드, 나무요정 로렉스와 마지막 남은 나무의 씨앗을 손에 넣게 된다.

자연이, 나무가 그리고 식물이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선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해 주는 영화. 우리 삶에서 별레와 세균, 그리고 흙이 더럽고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닌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는 영화. 요즘 너무 '깨끗하게'만 살려고 온갖 기계와 세정제에 젖어 사는 우리들에게 자연 그대로의 치유에 대해 다시 배울 수 있는 영화다.

친환경농산물,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르다. 하지만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고 구매하는 소비자는 몇이나 될까? 관심있는 사람도 헷갈릴 것 같다. 친환경, 유기농산물 코너에 있는 농산물이면 그저 좋겠거니 하며 사는 정도다.

소비자의 관심이 진짜 친환경농산물을 보호하고 제대로 된 친환경 제품을 소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값이 비싸 사는 사람도 많겠지만 소비가 많아지면 값도 좀 내려가지 않을까 한다. 알아야 따지기도 하고 제 값 주고 사 먹을 수 있다. 소비자가 똑똑해야 진짜 친환경농산물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친환경? 유기농? 무농약?

농산물 구분법 서로 무엇이 다를까?

글 사진 황주리 기자

현대인 중 대다수의 사람들이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에 무조건 좋은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인지 건강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조금 비싸더라도 유기농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아직 유기농에 대한 개념은 인지도 없고 있는 기관에서도 명확한 개념이 없어 소비자들만 더 헷갈리게 하고 있다.

게다가 막연한 유기농에 대한 믿음이 우리 생활을 더 위협하고 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인식 중 하나가 바로 유기농이 몸에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유기농 농산물은 기타 일반 농산물에 있는 화학물질, 잔류농약, 가짜호르몬이 덜 들어있거나 극소량 들어있을 뿐 전혀 '약' 처럼 받아들여 '몸에 좋은 것' 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유기농 제품을 살 때에는 무조건 '농약이 전혀 없다' 라고 오해하지 말고 농약이 '얼마나 적게' 들어갔는지를 고려해보고 구입해야 조금이라도 어리석은 소비를 피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친환경농산물을 3단계로 구분한다. 저농약농산물, 무농약농

산물, 유기농산물이 그것이다. 전환기 유기농산물까지 포함해 4단계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이 일반적인 구분에 속하는 농산물은 친환경 마크를 달고 마트와 슈퍼에서 주로 판매된다. 하지만 현재로서 이러한 기준조차 애매하기 때문에 친환경 마크를 달지 못하고 판매되는 상품은 극단적으로 농약량 어리리 분류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마크를 단 친환경상품일 지라도 크게 신뢰를 얻고 있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제도를 통해 오히려 친환경제품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표현해도 되겠다. 게다가 이러한 애매한 제도들 때문에 '진짜 유기농' 상품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는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유기농산물 생산자들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치면 그 해 농산물 생산량과 수확물의 크기가 달라짐에 따라 수익차도 클 텐데, 눈에 보이는 유혹을 이겨내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토양을 관리하면 몇 년씩 농약과 화학비료를 쓰지 않으며 번거로운 유기농사법을 마다하지 않고 신념을 가지고 곳곳이 농사짓는 분들도 있다.

이런 '착한 농사꾼' 들을 보호하기 위해 '진

짜 유기농' 을 보호하는 방법으로서 소비자로 하여금 '진짜 유기농' 의 구매유도를 하기 위해서 아직 우리나라가 공부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캐나다에서는 까다로운 유기농산물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일반 농산품목으로 지정한다. 이런 방법처럼 완전 유기농으로의 전환을 단계별로 독려하며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덜 오염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유통업체에서라도 먼저 움직임이 있길 소비자와 생산자들은 염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친환경농산물이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하게 제공되기 위해 전문인증기관의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 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 주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와 인증마크의 기준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을까?

먼저 친환경농산물은 광의의 개념으로, 유기농 농산물을 포함한다. 따라서 친환경농산물은 크게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그리고 저농약농산물로 나뉜다.

유기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 중 가장 몸에 덜 해롭다 할 수 있다. 전환기기간 이상을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조금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인 유기농산물은 과거에는 전환기유기농과 유기농을 구분하였으나, 2006년 법령 개정으로 기존에 전환기유기농산물을 유기농산물로 통합되었다.

무농약농산물은 농약은 전혀 쓰지 않지만 화학비료는 권장량의 3분의 1이하로 사용한다. 비록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지만 화학비료는 사용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다. '無' 자가 있다고 해서 화학비료도 쓰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니 꼭 기억해야겠다. 저농약농산물은 유기합성 농약은 절반 이하로 줄이고, 화학비료도 절반 이하로 줄여 재배한 농산물을 가리킨다. 농약살포횟수는 사용기준의 1/2이하로 사용하고 제조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수확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만 사용해야 하며 잔류농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의 1/2 이하여야 한다. 저농약농산물 인증은 사실상 2010년에 중단됐으며, 기존 인증 농가에 한해 2015년까지만 연장 가능한 상태이다.

이에 더해 전환기유기농이라는 것도 있다. 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고 1년 이상 재배할 경우 한시적으로 전환기유기재배라고 일컫

는다. 그러므로 '친환경농산물' 은 이 네 가지 분류를 모두 통합하여 사용하는 이름임을 기억해야겠다.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작년 2012년 3조 1,373억 원에서 2016년 4조 1,259억 원, 2020년에는 7조 4,749억 원까지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커지는 시장에 비해 친환경인증제도는 제대로 된 소비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인증농가와 지자체, 인증기관, 유통업체 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친환경농산물 종류별 표시방법	
유기농산물	-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또는 유기OO (OO는 농산물의 일반적 명칭으로 한다) - 유기재배농산물, 유기재배OO 또는 유기축산OO
무농약농산물	- 무농약농산물 또는 무농약OO - 무농약재배농산물 또는 무농약재배OO - 무항생제 축산물, 무항생제OO 또는 무항생제 사육OO
저농약농산물	- 저농약농산물 또는 저농약OO - 저농약재배농산물 또는 저농약재배OO
(사)한국유기농업협회	- (사)한국유기농업협회 인증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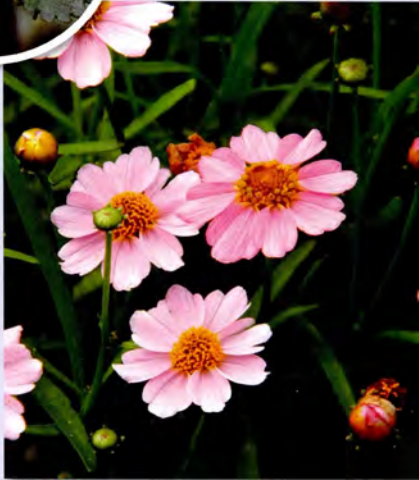
3월 식물관리요령 봄철 식물관리법

3월, 봄이다. 계절의 시작이고, 농사의 시작이다. 얼었던 땅이 녹고 식물도 기지개를 켜고 한 컷 물을 들이 마신다. 뿌리내리고 싹을 틔워 올린다. 양지바른 곳에는 부지런한 야생화가 뭐가 그리 바쁜지 벌써 꽃이 한창이다. 식물들이 가장 바빠 움직이는 봄날, 우리도 식물관리에 부지런을 떨어보자.



물주기에 주의가 필요한 봄철

싹이 올라오기 전 뿌리는 활발하게 대사작용이 일어난다. 양분이나 수분을 적절히 보충해 줘야함은 물론이다. 너무 많은 물은 뿌리를 썩게 만들므로 그 또한 신경 써야 한다. 겨울철에는 7일에 1회 정도 주는 겨울철과는 달리 봄에는 물주기를 3~4일에 1회 정도로 늘려야 한다.(수분증발이 빠르면 주기를 당겨도 된다.)



야생화 관리

대부분의 야생식물들은 봄에 싹이 튼다. 알아서 크는 식물이야 손댈게 없지만 우리가 가꾸는 대부분의 식물들은 손이 간다. 과수원에서는 과수 가지치기를 해야 하고, 싹을 틔워 모종으로 길러내 이식을 해야 한다. 겨우내 온실이나 실내에서 키우던 식물들은 어떨까? 식물이 얼까 환기가 무서워 전전긍긍한 계절이 지났으니 이제 가끔 바깥공기에 노출시켜 주어야 한다. 너무 오랫동안 실내에 방치해 두면 식물체는 쇠약해진다.



알뿌리 노출하기

봄이 오면 오래 찾게 되는 식물 중 하나가 알뿌리식물이다. 시중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화려한 색을 자랑하는 튤립과 향기 좋은 히아신스, 그리고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수선화다. 뿌리가 양파처럼 동그랗고 탐스러운 히아신스는 뿌리를 그대로 노출해 심는 것이 더 멋스럽다. 너무 작거나 크지 않은 둥근 화분에 튤립의 구근을 심거나 아니면 싹이 나 있는 튤립을 사도 좋은 날이다. 오목한 그릇에 자갈과 물을 담고 그 위에 뿌리를 올려주면 유리병에 담지 않아도 알뿌리를 자연스럽게 드러낸다. 긴 꽃대에 비해 뿌리가 빈약한 수선화는 원형 도자기에 심어 뿌리를 보호하면 좋다. 동그란 화분은 알뿌리 식물의 모양을 더욱 돋보이게 하므로 화분을 선택할 시 둥근 것 위주로 장만하면 좋다. 비교적 서늘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거실이나 현관 선반에 놓으면 적당하다.

분재 가꾸기

분재는 3월 중순경 눈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분갈이를 한다. 분갈이 방법은 반드시 그늘진 실내에서 한다. 미리 화분 속의 용토를 조금 건조시켜 놓는다. 특히 포토에 물이 고인 것은 꼭 분갈이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새로 구입한 것 중 뿌리에 발 흙이 묻어있으면 꼭 씻어주는 게 좋다. 깊은 화분은 뿌리 뻗음이 좋지 않으므로 적당한 깊이의 화분을 선택한다.



정원수 보살피기

봄은 식물뿐만 아니라 해충도 깨어난다. 예방약제(디포수화제, 톱신엠)를 살포하면 병해충은 미리 방제할 수 있다. 기온이 변덕스러우므로 보온도 신경 써야 한다. 알맞은 전정은 수목의 수형을 잡아 주고, 새순의 생기를 돋우어 준다.



관엽식물

2월은 아직 저온일 뿐만 아니라 공기도 건조합니다. 식물도 덩달아 쇠약해지죠. 넓은 관엽식물일수록 건조한 공기에 잎이 닿으면 잎에서 수분이 많이 증발됩니다. 뿌리에서 수분을 흡수할 수 있으면 시들지 않겠지만, 저온기에는 식물이 활발하게 성장하지 못하므로 뿌리도 별로 수분을 흡수 못합니다. 습도가 부족할 때에는 흙에 물을 아무리 줘도 안 됩니다. 앞에 분무해서 보호하거나 난방기 가까이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난방을 끄고 온도가 내려가면 습도는 자연히 늘어납니다. 앞에 분무를 해주는 것은 난방중일 때 합니다.





글·사진 요리연구가

참조기 무조림

긴 겨울을 지나, 꽃들이 만개를 준비하는 3월이 찾아왔다.
3월에 어울리는 요리를 생각하다 남해바다를 지나 서해를 회유하는 참조기를 떠올려 보았다. 3월이면 복상을 하여 연평도와 법성포 앞바다에 산란을 하는 참조기. 제철음식은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 참조기도 제철을 만났다. 사계절 피어나는 채소와 함께 맛을 낸 '참조기 무조림'을 소개한다.



제주산 참조기

저녁상에 어울리는 최고의 메인 요리로 조기조림을 준비했다. 제사상에도 오를 만큼 조기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생선 중 하나일 것이다. 참조기 하면 굴비를 연상하게 하고, 연이어 영광 법성포가 떠오를 테지만, 현재 참조기를 가장 많이 잡는 곳은 제주라 한다. 명절을 보내러 제주도에 다녀온 동생이 들고 온 참조기는 생긴 것이 마치 옥돔처럼 생겨 몇 번이고 확인했지만 머리가 크고 핑크빛이 나는 비늘로 덮여 육지 사람들(타지 사람들)은 옥돔과 쉽게 구분하기 힘들다고 한다.

조기는 국립수산물학원의 도감에 '참조기'로 되어 있다. 이 가관에서 참조기라 이름붙인 까닭은 참조기와 유사하여 시장에서 가끔 속임수 판매를 하는 수조기와, 흔히 백조기로 불리는 부세와 보구치, 또 흑조기 등과 분명한 구분을 두기 위한 이름이라고 한다. 참조기는 서해를 회유하는 물고기로 겨울에는 제주 서남 해역과 동중국해 일대에서 지내다 3월 산란기에 이르러 복상을 하여 연평도와 법성포 앞바다에서 산란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연평도와 법성포에는 조선시대 때부터 불이면 참조기 파시가 열렸다고 한다.



◀ 참조기는 민어과에 속한 바닷물고기. 몸길이는 30센티미터 정도이고, 꼬리자루가 가늘고 길다. 몸빛은 옅은 회색을 띤 황금색이며, 입술은 불그스름하다. 말린 것을 굴비라고 한다. 우리나라, 중국, 대만 근해에 널리 분포한다. 학명은 *Pseudosciaena polyactis*이다.



재료

조기 1마리, 무 1/3, 양파 1개, 맛타리버섯 반팩

양념장

다진 마늘 1/2T, 고춧가루 1T, 참기름 1/2t, 간장, 물 각 1잔, 소주1/2잔(소주잔)

요리

1. 조기 손질은 지느러미와 꼬리를 제거해 주고 비늘을 벗긴다.
2. 양파와 무는 굵직하게 썬다.
3. 양념장에 소개한 양념을 양파와 버섯을 넣고 섞어준다.
4. 냄비에 무를 간다.
5. 무 위에 양념장을 1/3 얹는다.
6. 5번 무 위에 조기를 얹고 남은 양념장을 다 얹어준다.
7. 센 불에서 끓이다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낮춰준다. 중간중간 냄비를 들고 밑에 눌러 붙지 않았는지 잘 확인해 준다. 국자로 양념을 조금씩 떠서 생선 위에 얹어 준다.
8. 무가 익었는지 보고, 조기에 양념이 잘 배인 것 같을 때 불을 꺼준다.



김광두
전 상명대학교
산림과학 교수



인완식
농학박사 씨드림 상임대표



유봉수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상담 소장



윤상섭
삼육대학교 명예교수



이종식
서울여대 명예교수
한국도시농업 연구회 회장



김건순
(주) 그린메이커 대표



김명재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최주권
농학박사



이정식
전 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화초, 채소를 재배하면 식물생태, 재배법, 시기에 대해 궁금해집니다. 시들시들하다거나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누구한테 물어보나' 하며 주변사람을 탐색하게 됩니다. 이렇게 식물을 키우다 궁금한 것이 생기면 저희 가든인에 물어보세요.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상담 소장으로 계시는 유봉수 소장님께서 친절하게 질문에 답해드립니다. 또한 저희 전문필진분들이 관련사항에 대해 답변해드립니다. 이번 호에도 살림에 보탬이 되는 해결책이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가든인 편집자 주-



1. 마늘밭에 웃거름(추비)은 언제 주는 것이 좋은가요?

답 : 마늘밭은 반드시 웃거름(추비)을 주어야 합니다. 한지형마늘(6쪽마늘)의 웃거름을 주는 시기는 언 땅이 풀리는 3월 상순부터 10일 간격으로 3회에 나누어 주어야 하고, 늦어도 4월 초순까지는 시비를 끝내야 합니다. 그래야 생육도 좋아지고 벌마늘도 생기지 않는답니다. 1월 시비량은 300평 기준하여 유안비료 15kg에 황산가리 3kg입니다.

출장을 다니다보면 이따금씩 요소비료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소비료는 온도가 낮을 시 비료흡수가 늦어지게 되고 비닐멀칭 재배포장에서 가스피해를 받게 되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닐멀칭을 해서 심은 포장은 비닐 위해 비료를 뿌려주고 그렇지 않는 포장은 비료를 뿌려주고 겉흙을 호미로 긁어주거나 고랑에 있는 흙을 1~2cm정도 올려서 덮어주어야 합니다.

앞에 물기가 있으면 피해를 받게 되므로 비료는 맑은 날 주거나 비가 올 때 주는 것이 좋습니다. 황산가리를 주는 것은 마늘의 저장력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2. 어제 사온 딸기에 회색곰팡이가 생겼어요. 왜 그런 건가요?

답 : 아마도 잿빛곰팡이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병은 온도가 낮고 습기가 많은 곳에서 주로 발생하는 병으로 겨울철 하우스재배 시 딸기와 상추에 가장 문제가 되는 병입니다. 병원균이 병든 식물에 붙어 있다가 포자가 날아가서 전염되며 잎이나 줄기, 열매에 발생하게 됩니다.

재배포장을 과습하지 않도록 충분히 환기를 시켜주고 병든 줄기나 잎은 빨리 따주어 태워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사온 딸기는 온도가 낮거나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해야 하며 먹기 전에 사이다를 분무하여 드시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독한 농약으로 이 병을 방제했으나 요즘은 소비자 기호에 맞게 개발된 혼연제(연기)를 사용하여 방제를 하고 있어 병든 부위를 도려내고 먹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3. 베란다에 있는 다육식물 표면이 하얀 가루가 많이 묻어 있어요.

답 : 하얀 가루가 날리고 있다면 아마도 깍지벌레 피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발생 부위에 있는 흰 덩어리를 손으로 살짝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가루 밑에 2~3cm 크기의 타원형 모양의 황갈색 벌레가 있을 것입니다. 깍지벌레는 생장점 근처 또는 표면을 가해하며 피해부위는 갈변하게 됩니다. 온도가 높으면 번식기가 빨라지고 피해도 많아집니다.

보통 성충과 약충이 혼합되어 피해를 주는데 등 부위에 밀랍을 분비하는 돌기가 있어 하얀 가루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피해가 심한 가지는 잘라내고 깍지벌레 전문 약제를 2~3회 살포해야 합니다.



5. 어제 오래간만에 재래시장에 갔다가 오이가 싱싱해서 사왔는데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네요. 왜 그런가요?

답 : 아마도 사실이 나쁜 환경조건에서 재배한 오이를 사셨나 보네요. 오이의 쓴맛은 에리트레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어린 식물이나 열매가 자라는 시기에 환경이 나쁠 때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식물이 자기방어를 위해 만들어 내는 일종의 방어물질이죠.

쓴 오이는 썰어서 찬물에 담갔다 요리를 하거나, 식초물에 담가두면 금방 쓴맛이 사라진답니다.

쓴 성분은 기온이 높고 가뭄을 할 때, 저온일 때 더 많이져서

오이 맛을 더욱 쓰게 만

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쓴 오이를 냉

장고에 보관해 두면

더 쓴맛이 강해진다

고 하네요. 또한 쓴

오이를 너무 많이 먹

으면 설사를 하는 경우

도 있으나 몸에 해로운 성

분은 아니라고 합니다.



4. 온실에서 키우는 상추에 거머리 같이 생긴 벌레가 붙어 있어요. 그 벌레가 그랬는지 잎을 갈아먹은 흔적도 없네요.

답: 아마도 민달팽이가 생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온실 안이 덥고 습한가요. 민달팽이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잘 자라며 식물체의 잎이나 꽃을 갉아먹고 산답니다. 민달팽이가 붙어있는 장소는 달팽이 몸에서 나오는 채액 때문에 식물체 조직이 광택이 나서 다른 벌레와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토양 살충제를 모래와 섞어 뿌려주거나 적은 면적이면 당도가 높은 과일 껍질을 놓아두면 저녁에 먹이를 찾아 달팽이가 모여들므로, 새벽에 손으로 잡아주면 좋습니다.

가든인이 추천하는 Books & Flowerpot

도시가 발달할수록 초록에 목마르다. 빌딩숲이 아닌 진짜 숲을 원하고, 숲을 가질 수 없으니 작은 정원이나 화분하나에 정이 간다. 단순히 화분에 화초를 키우며 즐거움을 느꼈던 사람들은 식재료를 직접 기르길 원하다. 작은 텃밭에서 가족과 함께 직접 채소를 기르고, 채소가 주는 소박함과 풍성함을 식탁에서 함께 하길 바란다. 도시텃밭이 인기다. 지자체에서 직접 분양을 받기도 하고 내가 직접 마련해서 가꿔도 된다. 실패를 줄이려면 크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분도 계시고, 베란다텃밭을 세세하게 알려주는 분도 계시다. 직접 시골로 내려가 농사를 짓는 분도 알려줄 정보가 많다. 이번호에는 책뿐만 아니라 베란다텃밭용 화분이나 실용적인 화분, 기존에 나왔지만 가든인 독자에게 알찬정보가 되리라는 마음으로 다양하게 소개한다.



은나노 새싹재배기

은나노 스프라우트는 토양재배와 수경재배로 사용이 가능하다. 토양재배의 경우 흙의 보습성과 보비성에 의해 새싹채소를 더욱 건강하고 빠르게 자라나게 하는 장점이 있다. 제품사용설명서와 함께 새싹키우기 정보가 알차게 들어있다. 가격은 25,000원



elho 엘호 벽걸이화분 그린갤러리 더블

아름다운 실내공간을 도와주는 벽걸이 화분은 1개 혹은 여러 개를 묶어서 사용할 수 있다. 11cm가 넘는 화분은 들어가지 않으므로 사이즈 확인 후 구매를 하면 된다. 저면관수 시스템으로 게이지 부분에 물을 주면 된다. 식물을 벽에 걸어 인테리어 효과가 만점인 벽걸이화분은 액자대신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인터넷서점에서 판매한다. 가격은 싱글 73,000원 더블 121,000원



옥상 및 베란다 텃밭용, 화초식재용기

구성 : 텃밭상자 3호(60.2 x 20.8x16.4cm), 지렁이분변혼합토(8L), 상토(8L), 부직포
사용방법 : 텃밭상자 하단부에 부직포를 깔고 지렁이분변혼합토를 포설하고 그 위에 상토를 포설한 다음 씨앗을 파종하거나 모종을 식재함. 단 모종을 식재하는 모든 토양을 섞은 후 3~4일 숙성시켜서 사용 가능함. (씨앗 파종이나 모종 식재 후 물을 충분히 줘야 합니다.)

도시농사꾼이 알아야 할 모든 것 도시농업

『도시농업』은 도시의 콘크리트를 깨서 흙을 살리고, 그 자리에 텃밭을 조성하여 팍팍한 도시생활에 축축한 윤기를 주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책이다. 사람이 흙을 일구고 생명을 키워서 많은 사람들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도시농업은 생명을 창조하는 일, 녹색을 살리는 참다운 문화를 조성하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도시 농업은 도시에서 넘쳐나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원 순환시키는데 이용되도록 한다. 또한 농사가 사라지면서 함께 사라진 공동체가 흙을 기반으로 이웃과 자연 생명이 함께 하는 공동체적인 삶을 되찾아 준다. 그리고 도시농업을 통해 작물종 다양성을 구현한다면 우리 생태계에 건강함을 되찾아줄 것이고, 이것은 결국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밑거름이 된다. 이 책은 내로라하는 도시농부들의 목소리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팍팍한 도시 한가운데 새로운 녹색생명문화를 만들고 있는 현장을 전한다. 이를 통해 도시의 식량자급률을 높이며, 붕괴된 공동체 문화를 다시 세우는 의미를 일깨워준다.

전국귀농운동본부 텃밭보급소 편 | 들녘 | 11,500원 | 284쪽

나무 가지치기

가지치기는 무턱대고 나무를 자르는 것이 아니다. 이 나무를 왜 심었는지부터 생각하고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 꽃을 즐기려고 나무를 심었다면 아름다운 꽃을 더 많이 피우도록 가지치기를 하고, 열매를 수확하려고 나무를 심었다면 좀 더 많은 열매가 달리도록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 산울타리처럼 담장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심었거나, 강한 햇빛을 가리는 그늘을 만들기 위해, 또는 짐승의 침입을 막기 위해 심었다면 그 목적에 맞춰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 또한 나무 가지치기를 하는 방법은 나무 종류에 따라, 잎 종류에 따라, 잎 성질에 따라, 나무 모양에 따라 각각 다르다. 이 책은 1장 가지치기의 기본에서는 먼저 가지치기의 목적과 가지치기의 모양, 가지치기를 하기 전에 알아야 할 나무의 종류와 부위별 이름 등 가지치기를 하기 전에 알아야 할 기본적인 지식을 알려주고, 나무 종류에 따라 2장 갈잎나무(낙엽수) 가지치기, 3장 늘푸른나무(상록수) 가지치기, 4장 바늘잎나무(침엽수) 가지치기, 5장 과일나무 가지치기로 분류하여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가지치기 시기와 구체적인 가지치기 방법을 실제 나무 사진과 상세한 가지치기 그림 등을 보여주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무라코시 마사요시 저/김현정 역 | 그린홈(GREEN HOME)192쪽 | 19,000원

은퇴 후, 행복한 세상은 시골 텃밭에 있다

나는 시골에서 텃밭하며 살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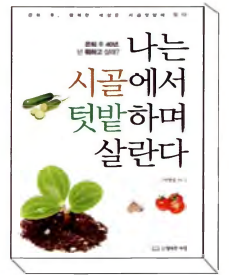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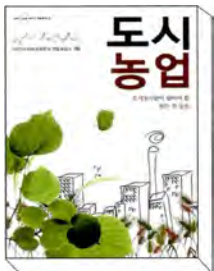
대부분의 은퇴자들, 혹은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돈 다음으로 걱정해야 할 것은 남아도는 시간에 비해 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건강을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지, 무료한 시간만 보내면 치매에 빨리 걸리는 것이냐 아닌지 등등을 생각하면 불안이 가중되면서 우울해지기 십상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문제들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그 수많은 해결책 중 하나는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제2의 삶의 길을 찾는 것이다. 우리는 그 길을 시골의 텃밭에서 찾을 수 있다. 시골 텃밭이야말로 은퇴 후에도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평생직장으로 삼을 수 있고, 건강, 취미, 노후자금 절약, 부부관계 등의 모든 측면에서 유쾌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 중의 하나라는 점에 공감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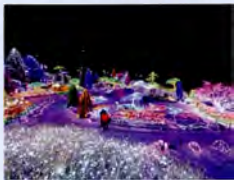
이명섭 저 | 도서출판 행복한세상 | 15,000원 | 312쪽

새싹채소로 꾸미는 집 안의 작은 텃밭 실내 가드닝

좁은 실내에서도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채소와 허브, 새싹채소에 대한 모든 것. 실내 가드닝을 알려주는 책. 실내 가드닝에 적합한 좋은 흙과 씨앗을 고르는 법, 필요한 도구에서부터 씨앗 심는 법, 종류별로 기르는 법, 수확한 채소로 맛있는 요리하는 법까지 모두 담고 있어 초보자도 쉽게 도전할 수 있다.

스즈키 아사미 저 | 김세원 역 | 아르코나인 | 2013년 04월 | 12,800원 | 552쪽





아침고요수목원의 제 7회 오색 별빛정원전

· 전시 기간 : 2013년 12월 6일부터 2014년 3월 16일까지

아름다운 자연과 별빛 속 낭만이 더해지는 오색별빛정원전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망설이다가 '오색별빛

정원전'을 감상하지 못한다면 또 다시 일 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방문을 계획 중이라면 서둘러야 한다. 자연에 빛을 입혀 놓은 듯, 형형색색 화려한 별빛이 한 폭의 그림을 만들어낸다. 낮과는 또 다른 환상적인 모습의 별빛 향연이 시작된 것이다. 올해로 7회를 맞은 이번 축제는 12월 6일부터 3월 16일까지 화려하게 펼쳐진다. 낭만 가득한 아침고요수목원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자.

식물 보호를 위해 친환경 전구를 이용해 5개 정원에서만 진행된다. 점등은 일몰시를 기준으로 진행되어 오후 9시까지 점등되며, 토요일은 밤 12시까지 연장 점등 된다.

아침고요수목원의 제11회 한반도 야생화전

· 전시 기간 : 2014년 3월 15일(토)부터 5월 31일(토)까지다

· 부제 : 우리의 먹거리 야생화

· 전시 종수: 130여 종 / 240여 작품

야생화는 이름 그대로 산이나 들, 강가 등 야생에서 피어나는 식물을 뜻하는 것으로 자연에서 접해볼 수 있으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야생화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동시에 점차 사라지고 있는 희귀식물을 가까이에서 접해봄으로써 멸종위기 식물 보존과,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며 교육적인 전시 문화 공간이 되어주고 있다.

경기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애플다운받으셨나요.

경기농업기술원이 도시농부를 위한 '텃밭농사 영농일지'를 개발했다.(2013년)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사용하면 농사를 치를 지어보는 분이나 확실한 노하우가 없는 분들은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텃밭농사 365 오색채소' 달력도 판매한다고 한다. 3월은 농사의 시작이다. 앱을 다운받아 활용하면 당황하는 일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제10회 부산도시농업박람회 개최

오는 3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부산 Bexco 제 1전시장 3홀에서 제 10회 '부산도시농업박람회'가 열린다. "도시에서 살면서 자연을 꿈꾼다"를 모토로 도시농업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역할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도시농업의 문화를 만들고 선도해 가는 공익적인 박람회 이미지를 제고하고 공모전 상품전 콘테스트 학술회 등으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최신 기술, 도구, 개발상품을 전시 판매한다. 도시농업 관련 기관 단체 대학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Network도 운영한다. 400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소비자를 위한 도시농업박람회로 성장한 부산도시농업박람회는 생산자 중심의 농업박람회에서 소비자를 위한 전시, 홍보, 판매위주의 박람회로 거듭나고 있다. 부산농업기술센터가 주최하고 부산경남방송 KNN이 주관하여 홍보한다.



도시텃밭 분양받으셨나요

작은 텃밭에 오밀조밀 심어져 있는 갖가지 '채소 기르는 재미'를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혹은 분양받으셨나요. 도시텃밭!!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농사체계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사를 지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에 각 지자체에서는 조그마한 자투리 공간을 찾아 텃밭을 분양하고 있다. 도심에서 텃밭을 가꾸고 체험하는 과정은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더불어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반가운 녹색생명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의의도 있다. 2014년은 도시농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

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각 지자체가 열심이다. 한편 분양받으면 1년에서 2년간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기에 경쟁률이 치열하다. 관심있는 분들은 각 지자체의 공지사항과 농경과, 농업기술센터에 연락해 분양날짜를 확인해서 서둘러야 한다. 빠른 곳은 11월이나 12월부터 시작하고 대부분은 2월에 분양을 해서 3월부터 텃밭 관리에 들어간다. 늦은 곳은 3월에도 분양을 한다. 분양을 못 받았다면 개인이 관리하는 텃밭을 알아봐도 좋다. 금액은 엷 비슷하다. 5坪에서 10坪정도로 5,6만원에서 10만 원 정도면 된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가든조성을 자재로 도와드립니다.

가드닝/원예자재 전문 **미림가든센터**

TEL (02)585-5346 , 503-7080

FAX (02)504-5200

경기도 과천시 물사랑로 257(주암동)

"미림가든센터"



오시는 길

차로 오실 경우.

경부고속도로 양재 I.C로 나와서 과천방향으로 700M 지점 좌측에 위치 네비게이션에 "경기도 과천시 물사랑로 257" 또는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47-8" 검색.

지하철 3호선 이용시.

양재역 11번 출구로 나와 일반버스 11-3, 917번 버스탑승. 주암동 하차 후 지리보도를 통해서 건너 오세요. (신분당선 이용시 9번, 10번 출구 이용)

지하철 4호선 이용시.

선바위역 1번 출구로 나와 일반버스(양재대명) 11-3, 917, 441번 버스탑승. 주암동 하차



2014 초화, 야생화 종자 TOP 11



꽃이 저도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에키나 세아!!
솔방울 이삭이 아름다워 절화로 좋습니다. 다년생으로 매년 만나볼 수 있는 분홍 에키나세아
■ 초장 : 60~70cm, 파종 : 3~4월, 개화 : 6~8월, 5g : 3,000 원



바람에 날아가는 나비 같은 풍점초
꽃 피기전 실타래모양으로 꽃술을 꽃잎에 싸고 개화하면서 풀어놓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 초장 : 60~70cm, 파종 : 3~7월, 개화 : 6~10월, 5g : 1,500 원



매우 화려하여 축제에 많이 이용되는 양귀비!!
귀하의 집앞에 축제를 재현해보세요. 추파용 종자로 가을에 씨앗을 뿌려야 다음 해에 크고 건강한 양귀비꽃이 개화됩니다.
■ 초장 : 70~100cm, 파종 : 10~11월 초, 개화 : 5~6월, 5g : 3,000 원



빠르게 꽃을 피워내는 코스모스 빅스타 사계!
파종 후 60일후에 개화되어 작고 귀여운 코스모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 초장 : 70~80cm, 파종 : 3~7월초 개화 : 6~10월, 5g : 3,000 원



식이섬유가 풍부해 다이어트에 좋은 브로콜리
식이섬유 뿐만 아니라 비타민C도 풍부하여 피부관리에 탁월합니다. 실내보다는 실외 재배가 좋습니다.
■ 파종 : 3월 또는 7월, 15~20℃로 관리, 장마철 주의, 10립 : 1,000 원



는 건강에 가장 좋은 채소 근대!
뿐만 아니라 골다공증예방 및 항암효과에 탁월합니다. 초보자가 기르기 쉽습니다.
■ 파종 : 3월, 이식 : 4월, 수확 : 6~11월, 1g : 2,000 원



금연 도움을 주는 케일
니코틴 제거 효과가 뛰어나 금연 계획을 세우신 분에게 매우 좋습니다. 호냉성 채소로 추위를 잘 견뎌 겨울까지 실외 재배가 가능합니다.
■ 20립 : 1,000원



산후 조리에는 좋은 노란 호박!
이노작용을 촉진시키는 작용이 있어 산후 붓기 빠지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발아율이 매우 좋습니다.
■ 3립 : 3,000원



노화를 예방해주는 고마온 빨간무(비트)
파종 후 20일 만에 수확 가능합니다. 실내,외 어디든 잘 자랍니다.
■ 1g : 2,000원



흙 없이 기르는 새싹채소!
씨앗을 하루정도 물에 불렸다가 물 적신 솜위에 뿌린 뒤 5~7일이면 바로 수확하여 먹을 수 있습니다.
■ 1g : 1,000원



봄~가을까지 계절따라 다르게 연출되는 26종의 야생화
26종의 종자가 혼합되어 개화시기에 따라 다양한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년생 종자로 이루어져 매년 관상 가능합니다.
■ 파종 : 연중가능 | 1kg : 140,000원

2014 이천그린아카데미

도시원에 아카데미 5기 교육생모집

✿ 교육의 목표

- 일반원에 기초이론과 기술교육으로 건전한 취미 원예생활을 생활원으로 전환하여 이론과 실습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 실내정원, 베란다정원, 채소가꾸기의 기초적 지식과 기술을 함양합니다.
- 정원학습을 통하여 관심있는 원예분야를 현장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개인별로 식물재배 육묘장을 제공하여 개인이 원하는 경험 실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실습교육의 특징

- 야생화 정원가꾸기, 베란다정원만들기, 텃밭가꾸기, 잔디정원가꾸기
- 종자의 파종, 육묘, 식물재배, 병충해 방제, 화분의 이식, 전정, 분재가꾸는 방법소개
- 현장실습 과정의 강화로 직접 경험해 보는 생활원에 중심교육



식생, 녹지조경 실습장면

국화분재재배 교육생모집

많은 분들의 요청으로 인하여 국화분재 교육을 다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실전 국화분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일정 : 2014년 5월 ~ 11월(월 2회 교육)
- 교육내용

국화의 재배환경과 품종특성	국화분재의 병해충방제
국화분재 수형별 재배법	화분갈이와 잎,꽃수기
모형 만들기(와화(優花)재배기술	수료식

- 교육신청 : 하단의 교육신청서 접수(전화, 팩스, 이메일)
- 교육비 : 500,000원
- 교육비 입금계좌 안내 : 농협 1087-01-012794, 예금주 박공영 우리꽃
- 교육문의 : 전화 031-634-7990 팩스 031-634-7991
메일 edu.gardenjoa@gmail.com

✿ 개강안내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등록자, 예약자 우선)
- 교육일정 : 2014년 4월 ~ 7월(3개월 과정) /매주 수요일 10:30분~15:30분
- 교육장소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 우리씨드그룹 교육장
- 주요 커리큘럼 안내

도시정원 조성과 생육관리	화훼원에 실내녹화
육상녹지 조성법과 정원설계	베란다정원
건강문화 체험건강	건강실습

- 교육신청 : 하단의 교육신청서 접수(전화, 팩스, 이메일)
- 교육비 : 700,000원(가든도구, 교육자료, 중식, 가든인 1년구독료 제공 및 우리꽃 식물묘종 10% 할인권)
- 교육비 입금계좌 안내 : 농협 1087-01-012794, 예금주 박공영 우리꽃
- 교육문의 : 전화 031-634-7990 팩스 031-634-7991
메일 edu.gardenjoa@gmail.com
- 교육 안내자료 요청 시 우편발송하여 드립니다. 회차별 보여주신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활기차고 밝기운이 가득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데미 신청서

구 분 : 도시원에 5기 () 국화분재 ()	연락처 :
성 명 :	이메일 :
주 소 :	
신청목적 : 교육 / 귀농귀촌 () 취미 ()	입금은행명 :
교육장 이동수단 : 자가용 () 대중교통 ()	입금자명 :

가든조아 가든에 어울리는 인테리어 소품

집안을 아기자기하게 꾸밀 수 있는 작은 소품부터 정원에 어울릴 수 있는 새집까지 다양한 종류를 만날 수 있는 가든조아
 2014년 유럽풍 스타일의 고품격 신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졸업식, 입학식, 기념일날 이벤트용으로 사용하면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말의 해' 로켓체어 13,000 원	세라믹 양 15,000 원	애벌레친구 (2개set) 23,800 원	패밀리 액자 23,200 원
			
발렌타인 아로마향기 11,000 원	세라믹 앵두액자 개당 23,500 원	소형 서랍 15,000 원	세라믹 잔디인형 6세트 14,500 원
			
발렌타인 향초 2개세트 10,000 원	캔들 디자인소품 25,000 원	세라믹 장식버드 대 : 35,000 원 / 중 : 20,000 원	나무열쇠함 15,000 원

새해맞이 신상품 선물용품 보유 / 한정판매!! 가든조아에서 만나보세요.

월간 <가든인> 구독이벤트

- 한국 최초 독인식 온천리조트 테르메덴 50%할인권을 제공
- 숲속에 작은유럽 제이드가든의 20%할인권폰을 정가구독자에게 제공

문의전화

Tel. 031-645-2000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termeden.com



Gardenin 50% 할인권

월간(가든인) 정가구독이벤트 [기간] 2014. 3. 1 ~ 2014. 3. 31 (3. 17~4. 10 내부수리)

February 2014 Gardenin

정상인 12만 원 이면 달 (가든인) 제이데이 참여합니다?
 기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나 흥미로운 기사 등 '가든인'이 제이 데이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든인)은 제이데이와 함께 발행되어 있습니다.

■ 이 달에 가장 유익했던 기사는 무엇입니까?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는 무엇입니까?

(가든인)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할 부분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정가구독

16.6% OFF

정상가 12만원 ▶ 할인가 10만원

February 2014 Gardenin

정상가 12만원 ▶ 할인가 10만원
 가든인 정가구독 1년 12권

신청하시는분

이름	성별
이메일	직업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주소	

구독기간

대금납입방법 무통장입금 (농협) 317-0005-7946-71

정가구독 신청 및 문의 031-712-7009

※정가구독 12만원 이상 결제하신 분은 정가구독 1년 12권

예금주 우리꽃영농조합법인

한국 최초 독일식 온천리조트

테르메덴 50% 할인권

[기간] 2014. 3. 1 ~ 2014. 3. 31 (3. 17~4. 10 내부수리)

이용안내

- 스파 이용에 한해서만 할인 적용됩니다.(시우나 이용 제외)
-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1매 2인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본 이용권을 매표소에 제시하여 주십시오
- 본 이용권은 중복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 본 이용권은 비매품으로 판매 및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AK레저(주)

Tel. 031-645-2000 www.termeden.com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3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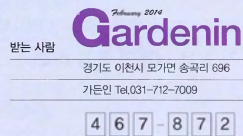
월간 가든인

Tel. 031-712-7009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송곡리 696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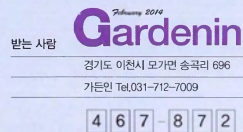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



편집후기

꽃생추위에 설날은이 얼어 죽는다. 봄추위가 장독 켜다
등의 속담처럼 3월은 완벽한 봄이라 하기엔 쌀쌀하다. 그
래도 봄은 온다. 긴긴 겨울의 터널을 지나 이제 막 벗어난
환희다. 남녘의 꽃소식이 반갑고, 구석천 틈에 피어난 작
은 들꽃이 대단해보인다. 살갗에 닿는 바람도 온화하다.
봄은 그렇게 살그머니 온다. 어느 날 갑자기 찬하고 나타
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그머니 옷깃에 물들듯 온다. 우
리가 그걸 알아차리고 반기면 된다. "반갑다, 봄아! 보고
싶었다. 봄아! 날 기다려주고 목이 환자는 길어날 심경이
다." 라고 포옹감을 빌며 봄을 맞이해보자. 마른 세악지
엽 바쁜 꽃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3월을 살아보자.

발행 우리꽃영농조합
발행인 김영채 경희대학교 명예 교수
박공영 우리시드(Unseed)그룹 대표 / 이학박사
고문 이순영 前 합평 농업기술센터 소장
편집인 이명
전문위원 김광두 前상명대학교 산업대학 겸임교수
김광훈 대림원예총모(주) 대표
김귀순 (주) 그린페이퍼 대표
박신애 건국대 생명환경과학대 교수
안완식 농학 박사 / 씨드림대표
우정아 경기조경가든대학 강사/가든디자이너
유병수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상담소장
윤정식 원광디지털대학교 환경건강학과 겸임교수
윤광성 상육대학교 명예 교수
이정식 前 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이충석 서울여자대학교 명예 교수
최주건 농학박사
객원기자 김지태 jsummer@gmail.net
황주리 jurie777@hatmail.net
디자인인쇄 보마드 bomad@naver.com

주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송곡리 696
전화 031-712-7009
팩스 031-634-7991

February 2014
Gardenin

가든플래너 박공영의

정원 연출 기법과 식물 선택 노하우의 모든 것

우리꽃이 제안하는 조경용 식물 가이드북

한국의 대표적인 정원 테마가 시작됩니다.

계절별 변화하는 살아있는 자연이 다가옵니다.

유럽식 정원, 이제 한국의 집과 도심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 발간 10개월 만에 완판, 초판 발행 5쇄의 베스트셀러
- 교과서적 식물도감과는 다른 현장 경험을 통한 살아있는 정보와
울 컬러 사진 제공
- 혼성 혼합식재, ARI Garden, E&P(생태연못), 벽면녹화, 조경용
지피식물의 적용과 관리(A-Z)
- 현장 적용된 정원 연출 사례 제시 및 각 적용 식물의 특성 비교
- 봄부터 겨울까지 연중 꽃이 피는 혼성 혼합 식재의 비법 공개
-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는 연중 테마 정원 ARI Garden
- 1000여종 식물의 습성과 특성, 식재법을 울 컬러로 제공



가든인 독자 특별 할인가
20,000원 (정가 32,000원)



우리꽃영농조합법인 031)634-7990

조선왕조 500년 온천의 명소 이천! 품격이 다른 온천수 – 테르메덴



중부·수도권 제일의 온천으로 테르메덴 선정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여행작가협회 그리고 관광객자협회가 공동으로 이천 '테르메덴'을 중부·수도권의 최고의 온천으로 선정하였다. 테르메덴 온천수는 자극성이 강한 유황천이나 산성천 등과 달리, 알카리성 온천으로 여러 가지 효능의 성분이 골고루 혼합된 온천수이다. 수질은 부드럽고 온화하며, 남녀노소 모두에게 적합하고 특히 병후 회복과 건강 증진, 피로회복, 스트레스 해소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을 완화하고 피부를 아름답고 부드럽게 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

삶의 무게를 느낀다면 **단언컨데 온천욕은 가장 완벽한 힐링**입니다.



셔틀버스 운영시간

이천 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구 제일은행)앞에서
 테르메덴 무료 셔틀버스 이용(약 15분 소요) ⇒ 이천 테르메덴 도착

구분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 ⇨ 테르메덴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 앞 출발)	테르메덴 ⇨ 이천터미널 (테르메덴 본관 앞 출발)
매일 (월~일)	08:20 09:20 10:20 11:20 13:00 14:20 15:20	12:40 14:00 15:00 17:30 18:30 19:30

※ 편차 및 도로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에이케이레저(주)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372-1
 문의 : 031)645-2000